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한국어와 한국문화

김혜영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21-KDA-1250006)

강의계획서

- 강의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 강사명: 김혜영
- 구성: 총 10차시
- 분과: 한국어학
- 수준: 들어가기(초급)

- 강의 목표

본 강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언어 예절, 의식주, 관혼상제, 명절, 여가, 문학, 대중문화와 같은 한국문화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는 한편,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한국어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배운다.

-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1차시	한국어와 한글 (1)	① 도입 ② 한국어의 정의 ③ 한국어의 역사 ④ 한국어의 특징 ⑤ 핵심 요약 및 정리
2차시	한국어와 한글 (2)	① 도입 ② 한글의 탄생 ③ 한글의 특징 ④ 한글 자모와 표기법 ⑤ 핵심 요약 및 정리
3차시	한국인의 언어 예절	① 도입 ② 높임법과 예절 ③ 호칭어, 지칭어와 예절 ④ 인사와 예절 ⑤ 핵심 요약 및 정리
4차시	한국인의 의식주 (1) : 의복과 주거	① 도입 ②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 ③ 한국의 의복 문화 ④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 ⑤ 한국의 주거 문화 ⑥ 의복, 주거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⑦ 핵심 요약 및 정리
5차시	한국인의 의식주 (2) : 음식	① 도입 ②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와 떡 ③ 한국의 지역별 대표 음식

		④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 ⑤ 음식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⑥ 핵심 요약 및 정리
6차시	한국의 관혼상제	① 도입 ②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식 ③ 한국의 장례와 제사 ④ 결혼식 및 문상 예절 ⑤ 관혼상제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⑥ 핵심 요약 및 정리
7차시	한국의 명절	① 도입 ② 한국의 대표적 명절, 설날과 추석 ③ 명절 음식과 풍속 ④ 명절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⑤ 핵심 요약 및 정리
8차시	한국인의 여가	① 도입 ② 한국인의 여가 시간과 여가 문화 ③ 여행과 문화생활 ④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⑤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⑥ 핵심 요약 및 정리
9차시	한국의 문학	① 도입 ② 한국의 고전문학 (1) : 다양한 목소리 ③ 한국의 고전문학 (2) : 풍자와 해피엔딩 ④ 한국의 현대문학 (1) : 가족과 세대 ⑤ 한국의 현대문학 (2) : 전쟁 ⑥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⑦ 핵심 요약 및 정리
10차시	한국의 대중문화	① 도입 ② 한류의 어제와 오늘 ③ 한국의 대중음악과 K-pop ④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⑤ 한국의 팬 문화 ⑥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⑦ 핵심 요약 및 정리

-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강좌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1차시> 한국어와 한글 (1)

■ 학습목표

1. 한국어가 무엇이며, 한국어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2. 한국어의 계통을 알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3. 자신의 모어와 비교하며 한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어의 정의
3. 한국어의 역사
4. 한국어의 특징
5.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 번의 수업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언어 예절, 의식주, 관혼상제, 명절, 여가, 문학, 대중문화와 같은 한국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문화와 연결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어는 한국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한국문화의 다른 요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 한국어의 정의

이 수업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배웠거나 배우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은 한국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표준국어대사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어(母語, mother tongue)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송철의 2017: 17).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모어로 배우며 일생 동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한국어라고 하면 보통은 한국의 표준어를 떠올리지만 표준어만이 한국어는 아닙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方言, dialect)들도 한국어입니다. 한국의 방언은 크게 경상도의 동남방언, 전라도의 서남방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북한의 황해도 지역 대부분을 포함하는 중부방언, 제주도에 사용되는 제주방언, 북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동북방언, 서북방언, 이렇게 여섯으로 나뉩니다(권영민 외 2009: 189).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 방언을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영어의 “What is this?”와 같은 뜻의 문장은 방언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권영민 외 2009: 189). 동남방언에서는 “이기 뭐꼬?”, 서남방언에서는 “요것이 뭐당가?”, 중부방언에서는 “이게 뭐니?”, 제주방언에서는 “이게 뭐깁?”, 동북방언에서는 “이거이 무스겔름?”, 서북방언에서는 “이어이 뭐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는 서울말인 “이게 뭐니?”만 표준어로 인정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표준어를 배우지만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이런 방언들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언들은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방언이 궁금한 학생들은 교재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방언이 나오는 동영상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한민족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어가 모어나 제2언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인구 중 1.51%에 해당하는 26만 4,986명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류정일 2022. 11. 3.).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들 중에서 사용 인구수로 13위 정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언어이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한 약 5,000만 명, 북한 약 2,300만 명, 연변 자치구를 비롯한 중국 지역과 미국, 일본 등의 해외동포 약 500만 명을 합쳐 7,000만에서 8,000만 명에 이릅니다(구본관 외 2015: 29).

또한 최근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며 한국어는 외국어로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97년 2,692명이었던 응시자 수는 2019년에는 375,871명으로 약 140배나 늘어났습니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1.1.).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은 2007년에는 3개국 13개소뿐이었지만 2022년에는 84개국 244개소로 약 19배 늘어났으며, 연간 수강생 역시 2007년 750명에서 2021년 81,476명으로 약 110배 늘어났습니다(조용준 2022. 6. 16.).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배우는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문자로 적습니다. 때때로 한국 사람들조차도 한글과 한국어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English)’가 언어의 이름이고 그것을 적는 문자의 이름은 ‘알파벳(alphabet)’인 것처럼 ‘한국어’는 언어의 이름이고 그것을 적는 문자의 이름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한국어는 존재했습니다. 다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문자, 즉 한자로 한국어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3. 한국어의 역사

흔히 ‘한국어’라고 하면 현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한국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한국어도 포함합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한국어는 현재의 한국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어의 조상이 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들은 그 계통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상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언어들은 하나의 어족(language family)으로 묶입니다. 한국어의 경우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구본관 외 2016 : 335-336). 알타이어족에는 크게 몽골어 계통, 만주어 계통, 터키어 계통, 한국어 계통이 있습니다.

알타이어족은 다른 어족과 비교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 단어에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모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어의 맨 앞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오는 것을 꺼리며, 동사나 형용사를 서로 이을 때 별도의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어미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분류할 때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굴절어, 교착어, 고립어로 분류하는데, 알타이어족의 언어들은 교착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별도의 요소가 존재하고 이것들이 단어와 결합합니다. 교착어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친족 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알타이어족을 이루는 네 개의 분파 중에 가장 먼저 갈라져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이 때문에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의 다른 세 부류의 언어와 가장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한국어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합니다(송철의 2017 : 48~49, 구본관 외 2015 : 337~338). 첫 번째 시기인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국가가 성립된 시기부터 통일신라가 멸망하는 10세기 초까지 약 천 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의 한국어는 고대 한국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신라는 가야, 고구려, 백제를 아우르는 한반도의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언어가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인 중세는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를 말하고, 이 시기의 한국어는 중세 한국어라 부릅니다. 10세기 초 고려의 건국으로 한반도의 중심지는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고려의 수도인 개성(개경)으로 바뀌는데, 이로 인해 언어의 중심지도 이 시기에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경주에서 중심부에 있는 개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중세 한국어는 14세기경에 말소리 체계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때문에 중세 한국어를 10세기 초부터 14세기 말까지의 전기 중세 한국어와 15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의 후기 중세 한국어로 나눕니다. 후기 중세 한국어는 한글 문헌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한국어 역사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인 근대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한국어를 가리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오면서 한국어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서 17세기에는 한국어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7세기를 근대 한국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현대 한국어의 특징 중 상당수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 시기인 현대는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의 한국어를 현대 한국어라고 합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이 시기에 와서야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령으로 공문서에도 한글을 쓰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송철의 2017 : 49).

그러면 이제 각 시기 한국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시다(송철의 2017 : 49-51).

우선 고대 한국어는 ‘신라어’로 대표됩니다. 백제나 고구려의 언어도 함께 쓰이고 있었지만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신라어 자료는 대부분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법인 ‘이두’와 ‘향찰’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특히, 향찰로 기록된 시인 ‘향가’는 당시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중세 한국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한국어는 말소리가 현대 한국어와 많이 달랐습니다. 중세 한국어는 지금의 한국어보다 더 많은 말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몇 개는 현대 한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빙’(순경음 비읍), ‘△’(반치음), 그리고 ‘ㆍ’(아래 아)와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어떤 말소리들은 현대 한국어와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ㅐ’와 ‘ㅑ’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ɛ]와 [e]로 발음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aj]와 [əj]로 발음되었습니다. 또한 중세 한국어는 성조(聲調, tone)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달랐습니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한국어에서 표면적으로 구분되는 성조는 낮은 소리인 ‘평성’과 높은 소리인 ‘거성’, 그리고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인 ‘상성’,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구본관 외 2016 : 230). 성조는 17세기 전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경상도, 함경도 등 일부 지역의 방언에서는 성조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현대 한국어와 많이 비슷하지만 지금과 다른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는 지금과 종류와 체계가 달랐습니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가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 즉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는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이고, 다른 하나는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즉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등에 대해 대답하는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입니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에서는 어미 ‘-가’와 ‘-녀’가 사용되었고,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에서는 ‘-고’와 ‘-뇨’가 쓰였습니다.

단어의 경우는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중세 한국어는 현대에 비해 고유어 단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유어들은 이후에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한국어의 고유어 ‘ᄃᆞᆫ’은 한자어 ‘강(江)’으로, 고유어 ‘뫼’는 한자어 ‘산(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근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선 중세 한국어에 존재했던 ‘ㆍ’와 같은 모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모음 ‘ㅐ’와 ‘ㅑ’도 현대 한국어와 같은 소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말소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대의 한국어는 중세 한국어와 크게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문법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전에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는 ‘이’뿐이었지만, 이 시기에 주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조사인 ‘가’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았/었-’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근대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어의 측면

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한자어 단어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천의 한 종류인 ‘비단’, ‘무명’과 같은 말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다홍’과 같은 말은 이 시기에 중국어에서 가져온 한자어이며, ‘신문’, ‘전기’, ‘철학’과 같은 말은 이 시기에 일본어에서 가져온 한자어입니다.

4. 한국어의 특징

세상에는 아주 많은 언어가 있고, 이 언어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자 특수한 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어는 무엇인가요? 모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큰 부분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한국어를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서 한국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리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장애음의 특징입니다. 장애음은 자음 중에서도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정도가 큰 자음을 말합니다(유현경 외 2018: 53). 한국어의 ‘ㅂ, ㄷ, ㄱ, ㅈ’, 영어의 ‘p, t, k’ 등이 장애음의 예입니다. 장애음은 소리를 내는 위치가 같아도 그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계열로 나뉘는데 언어에 따라 몇 개의 계열로 나뉘는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장애음 중 하나인 파열음, 그러니까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ㅂ, ㅍ, ㅃ, ㄷ, ㅌ, ㅌ, ㄱ, ㅋ, ㄲ’ 이렇게 아홉 개가 있는데 이들 중 ‘ㅂ’와 ‘ㅍ’와 ‘ㅃ’, ‘ㄷ’와 ‘ㅌ’와 ‘ㅌ’, ‘ㄱ’와 ‘ㅋ’와 ‘ㄲ’는 각각 소리나는 위치가 동일합니다. 한국어에는 소리를 내는 위치가 동일한데도 다른 소리로 들리는 파열음이 세 개씩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소리를 구분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ㅂ, ㄷ, ㄱ’와 ‘ㅍ, ㅌ, ㅋ’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입안에서 나오는 공기의 세기입니다. 입 앞에 휴지 한 장을 세워 들고 ‘바’와 ‘파’를 발음해 보면 ‘바’를 발음할 때보다 ‘파’를 발음할 때 휴지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파’를 발음할 때 입안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바’를 발음할 때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ㅂ, ㄷ, ㄱ’와 ‘ㅃ, ㅌ, ㄲ’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목 안쪽에 있는 후두의 긴장 유무입니다. ‘ㅂ, ㄷ, ㄱ’를 발음할 때에는 후두가 별로 긴장하지 않지만 ‘ㅃ, ㅌ, ㄲ’를 발음할 때에는 긴장합니다. 한국어에서는 ‘ㅂ, ㄷ, ㄱ’처럼 공기의 흐름이 세지 않고 후두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 장애음을 ‘평음(예사소리)’이라 부르고, ‘ㅍ, ㅌ, ㅋ’처럼 공기의 흐름이 센 장애음을 ‘격음(거센소리)’, ‘ㅃ, ㅌ, ㄲ’처럼 공기의 흐름이 아주 약하고 후두가 긴장한 채로 발음하는 장애음을 ‘경음(된소리)’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격음, 경음, 이렇게 세 개의 계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음과 경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은 소리를 낼 때 목청이 떨리느냐 안 떨리느냐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 이렇게 두 계열이 있거나, 소리를 낼 때 후두가 긴장하느냐 긴장하지 않느냐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 이렇게 두 계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는 /p, t, k/와 같은 무성음 계열과 /b, d, g/와 같은 유성음 계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계열의 장애음을 가지는 언어가 모어인 학습자가 한국어와 같이 세 계열을 가지는 언어를 배울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 계열의 소리가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ㅃ, ㅌ, ㄲ’와 같은 경음을 가장 어려워합니다(박진호 2017: 405).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단어의 맨 앞이나 받침에 오는 자음의 특징입니다(송철의 2017: 22). 한국어에서는 단어의 맨 앞이나 받침 위치에서 오로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단어의 맨 앞에서 여러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습니다. 영어 단

어 ‘spring’에서는 단어의 맨 앞에서 세 개의 자음이 발음됩니다. 받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경우는 ‘first’처럼 받침 자리에서 여러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단어의 맨 앞이나 받침 위치에서 자음을 여러 개 연속해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글을 쓸 때는 ‘닭’과 같이 받침 자리에 ‘ㄹ’과 ‘ㄱ’ 두 개의 자음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둘 중 하나만 받침 자리에서 발음합니다.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단모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유현경 외 2018: 3). 단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입니다. 한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된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이렇게 10개입니다. 이것들은 혀의 위치와 높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 하나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단모음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체계가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단모음의 실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정해진 것과 다소 다르고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유현경 외 2018: 55). 10개의 단모음을 실제로 말할 때 다 구분해서 발음하는 한국인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 지역의 노년층으로 한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ㅓ, ㅕ’를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즉, ‘ㅓ, ㅕ’는 [we], [wi]와 같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 모음으로 흔히 발음됩니다. 게다가 중년층 이하의 사람들은 대부분 ‘ㅐ’와 ‘ㅑ’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음하는 단모음은 7개입니다. 저 역시 7개의 단모음을 구분하여 발음하고 있어서 ‘ㅓ, ㅕ’를 단모음으로 발음하거나 ‘ㅐ’와 ‘ㅑ’를 구분하는 것은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도 7개의 단모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한국어를 듣고 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알아보시다. 우선, 한국어는 언어의 유형 중 ‘교착어(첨가어)’에 속합니다(송철의 2017: 22). 교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나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가리킵니다(『표준국어대사전』). 즉, 한국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담당하는 문법적인 역할을 표시할 때 그 단어에 어떤 요소들이 차례로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3인칭 복수 소유격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3인칭 대명사인 ‘그’에 복수를 나타내는 ‘-들’을 결합시키고 여기에 다시 소유격을 나타내는 조사 ‘의’를 결합하여 ‘그들의’로 표현합니다. 이때, 3인칭 대명사 ‘그’에 결합한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의 어떤 부분이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3인칭 복수 소유격을 표현할 때 단어의 형태를 ‘their’로 변화시켜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their’의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에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의 문법적인 기능은 조사가 표시하며, 동사, 형용사의 문법적인 기능은 어미가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모두 단어의 뒤에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어간 ‘하-’에는 ‘하시었겠습니다’와 같이 다양한 어미가 결합할 수 있고, 이 어미들은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어미와 조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와 어미 중에는 조건에 따라서 교체되어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유현경 외 2018: 4). 예를 들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와 ‘가’,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을’과 ‘를’은 앞에 오는 말의 맨 끝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단어의 맨 끝에 받침이 있는 ‘선생님’ 뒤에는 조사 ‘이’, ‘을’이 결합하고, 단어의 맨 끝에 받침이 없는 ‘언니’ 뒤에는 조사 ‘가’, ‘를’이 결합합니다. 어미 ‘-니까’와 ‘-으니까’, ‘-면서’와 ‘-으면서’ 등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맨 끝에 받침이 있는지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쓰입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가-’ 뒤에는 ‘가니까, 가면서’와 같이 ‘-니까’나 ‘-면서’가 결합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 ‘먹-’ 뒤에는 ‘먹으니까, 먹으면서’와 같이 ‘-으니까, -으면서’가 결합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를 공부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가 쓰이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편,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은 주어(subject)와 동사(verb), 목적어(object)의 어순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한국어는 SOV형 언어에 속합니다. 즉,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I love you.”, 중국어에서는 “워아이니”와 같이 주어-동사-목적어의 순서로 구성되는 문장을 한국어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와 같이 주어-목적어-동사의 순서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한국어의 어순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입니다(송철의 2017:23, 박진호 2017:414-415, 구본관 외 2015:34). 예를 들어 “철수가 민기를 때렸다.”와 같은 문장은 “민기를 철수가 때렸다.”와 같이 어순을 바꾸어 표현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철수가 민기를 때렸다.”와 “민기를 철수가 때렸다.” 모두 때린 사람은 철수이고 맞은 사람은 민기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 “Tom hit Bob.”을 “Bob hit Tom.”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Tom hit Bob.”의 경우 때린 사람은 Tom, 맞은 사람은 Bob이지만, “Bob hit Tom.”의 경우 때린 사람은 Bob, 맞은 사람은 Tom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문장의 어순을 다양하게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고 문장이 모두 성립하는 이유는 한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를 잘 드러내 주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수가 늘어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수가 많을 경우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다양한 어순의 문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어순을 완전히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도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의 뒤에 올 수 없습니다. ‘예쁜 집’을 ‘집 예쁜’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의문문에서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송철의 2017:23). 즉, 평서문과 의문문 사이에 어순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가방이다.”, “그는 과자를 샀다.”와 같은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것은 가방이냐?”, “그는 과자를 샀니?”가 됩니다.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서술어에 결합하는 어미가 이 문장이 의문문임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 “이것은 가방이다.”와 동일한 의미의 문장 “This is a bag.”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this a bag?”과 같이 어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잘 생략되는 언어입니다(송철의 2017:23). 화면 속 대화를 읽어 봅시다.

(1) 하진 : 오전에 뭐 했어?

상윤 : 한국어 공부했어.

하진 : 누구랑 했는데?

상운 : 헤민이랑 했어.

하진 : 오전에 도서관에서 미나도 만났어?

상운 : 아니, 못 만났는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각각 ‘너는’, ‘나는’과 같은 주어가 없고,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주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과 같은 목적어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역시 ‘너는’과 같은 주어가 없고 여섯 번째 문장은 ‘나는’, ‘미나를’과 같은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합니다(유현경 외 2018 : 7). 즉, 문장의 흐름이나 대화의 상황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으며,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했니?”라는 질문에 “응, 했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너는 숙제를 했니?”-“응, 나는 숙제를 했어.”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은 전체 문장으로 대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고 전체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문장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적절하게 생략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유현경 외 2018 : 7).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문법적으로 높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문장과 대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상하 관계와 친한 정도 등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높임법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유현경 외 2018 : 507). 이때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에 따라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뉩니다. 화면에 제시된 예문을 봅시다.

(2) 할머니께서 외출을 하신니 집이 조용해졌다.

(3)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했다.

(4) 내일은 목요일이다. /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은 각각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쓰인 문장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사용된 조사 ‘께서’와 어미 ‘-(으)시-’는 외출을 하는 행위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 사용된 조사 ‘께’는 인사를 받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주체 높임법이, 두 번째 예문에서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듣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다.”라는 문장보다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가 상대방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임법은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언어 예절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예절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임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번째 강의에서 ‘한국어의 언어 예절’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휘의 측면에서 한국어의 특성을 알아보시다. 우선, 한국어에는 친족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구본관 외 2015 : 35). 친족어는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인

간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의 경우는 이러한 어휘가 크게 발달해서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 아빠, 아버님, 춘부장, 선친, 가친, 선대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의 아버지를 높여 말할 때는 ‘춘부장’을 사용하고, 남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말할 때는 ‘가친’을 사용합니다.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말할 때는 ‘선친’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말도 ‘형, 동생, 아우, 언니, 오빠, 누나, 누이’ 등으로 남녀나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구분됩니다. 친척을 나타내는 말 역시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되며 ‘고모, 이모, 백부, 숙부’와 같은 한자어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같은 고유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어의 친족을 나타내는 말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히 쓰인다는 것입니다(송철의 2017:23). 친족이 아니라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거나, 말하는 사람과의 나이 차이에 따라 친족이 아닌 사람을 ‘형, 오빠, 누나,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를 한국어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직원을 부를 때 종종 ‘이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직원이 이 사람의 친척인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의 ‘이모’ 역시 친족을 나타내는 말이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에는 소리나 동작, 모양 등을 흉내 내는 말, 상징어도 발달되어 있습니다(구본관 외 2015:35-36). 특히 한국어의 상징어는 모음이 바뀌거나 자음이 바뀌면서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는 물줄기 따위가 잇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상징어 ‘줄줄’은 모음 ‘ㅓ’가 ‘ㅜ’로 바뀌어 ‘줄줄’이 되면 ‘굵은 물줄기 따위가 잇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줄줄-줄줄’의 경우처럼, 한국어에서는 보통 ‘ㅏ’나 ‘ㅓ’ 같은 모음은 작고, 밝고, 가벼운 느낌을 나타내고 ‘ㅑ’나 ‘ㅜ’ 같은 모음은 크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나타냅니다. ‘감감하다-깜깜하다-캄캄하다’와 같이 자음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하다’는 ‘감감하다’보다 더 센 느낌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색채어도 발달되어 있습니다(구본관 외 2015:36, 송철의 2017:23). 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무척 많고 각각은 명도와 채도를 비롯한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구본관 외 2015:147). 예를 들어, ‘빨간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붉다-발갡다-빨갡다-새빨갡다-벌겡다-뽕겡다-시뽕겡다-발그스름하다-발그레하다-불그스름하다-불그레하다-불그죽죽하다’ 등 수십 개가 있는데, 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빨간색을 발그스름하다거나 발그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빨갡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다양한 색채어가 가지는 미묘한 의미 차이는 색채어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의 색채어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어는 청자 중심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구본관 외 2015:34, 유현경 외 2018:7). 즉,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나 대화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화면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5) 상윤 : 그거 안 먹니?

하진 : (), 안 먹어.

이 대화에서 상윤은 ‘그거 안 먹니?’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안’을 사용하여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진은 괄호 안에 ‘응’과 ‘아니’ 중 어떤 말을 넣어 대답해야 할까요? 정답은 “응, 안 먹어.”입니다. 즉, 대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 먹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먹는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이 “안 먹니?”였음을 고려해 질문한 것이 맞다는 의미로 ‘응’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와 비교를 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영어에서 “Don’t you eat it?”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안 먹는다는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대답을 하는 사람은 “No, I don’t.”로 대답할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는 ‘Yes’에 해당하는 ‘응’이라고 대답을 하고, 영어는 ‘아니’에 해당하는 ‘No’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자 중심 언어가 아닌 모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종종 의문문에 ‘응’이나 ‘아니’로 대답을 할 때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상대에게 공손함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했습니다(유현경 외 2019 : 7, 구본관 외 2017 : 35). 앞서 살펴본 높임법도 높임의 대상에 대한 공손함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으)ㄴ 것 같다’, ‘-는 듯싶다’와 같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으로 공손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못 가요.”보다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에 대해 더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명시적 발화보다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공손성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유현경 외 2018 : 7). 특히, 상대에게 부담이 큰 거절이나 명령, 요청 등을 수행할 때는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화면의 대화를 봅시다.

(6) 상윤 : 내일 나랑 저녁 먹을래?

하진 : 아, 나 내일은 다른 약속이 있어.

상윤 : 내일 나랑 저녁 먹을래?

하진 : 내가 다음에 꼭 시간 낼게. 다음에 먹자.

첫 번째 대화에서 하진은 저녁을 함께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다음에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상대방의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와 같이 요청을 할 때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도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어는 특히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 때 이러한 간접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간접 표현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대화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표현의 사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어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거절이나 요청과 같이 상대에게 부담이 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양쪽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뒷부분에서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 봐야 안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5. 핵심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한국어의 계통과 역사,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한국어의 정의에서는 한국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어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언도 포함됩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시기에 따라 고대 국가가 성립된 시기부터 10세기 초까지의 고대 한국어, 10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중세 한국어,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 한국어,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한국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어는 신라어로 대표되며, 향찰과 이두로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중세 한국어는 말소리의 체계가 현대의 한국어와 많이 달랐으며, 성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나타내는 어미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지금의 한국어와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어 역시, 현대 한국어보다 고유어가 많았습니다. 근대 한국어는 ‘ㆍ’가 사라지고 다양한 말소리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주격 조사 ‘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았/었-’이 나타나는 등 현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하나 둘 완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어의 측면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로부터 한자어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격음, 경음 이렇게 세 계열을 가집니다. 한국어는 단어의 맨 앞, 또는 받침 위치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으며 다양한 단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와 어미 중에는 조건에 따라서 교체되어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오는 SOV형 언어이며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고 의문문을 만들 때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와 목적어가 자주 생략되며 높임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휘의 측면에서는 친족어가 많이 발달해 있으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친족어가 많이 쓰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징어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모음이나 자음이 바뀌면서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색채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어는 청자 중심 언어이며, 공손함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해 있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중요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밝히는 특성 역시 공손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 시간이 흐르며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모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좀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인 한글에 대해 배웁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고 한글의 특징과 한글을 구성하는 자모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격음, 경음이라는 세 개의 계열이 있다. (O/X)

정답: O

2. 한국어는 받침 위치에서 오직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 (O/X)

정답: O

3. 한국어는 주어-동사-목적어의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는 SVO형 언어에 속한다. (O/X)

정답: X

4. 한국에서는 친족을 나타내는 말들을 친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사용한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5. 한국어가 속해 있는 어족(language family)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① 쎈 어족 ② 우랄 어족 ③ 알타이 어족 ④ 인도-유럽 어족

정답 : ③

6. 중세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 한국어보다 더 많은 말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② 현대 한국어에 비해 한자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③ 성조(聲調, tone)를 가지고 있었으나 17세기 전후에 사라졌다.

④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과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의 어미가 달랐다.

정답 : ②

단답형 (8분)

7. 한국어에서 단어의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는?

정답 : 조사, 어미

8. 한국어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문법적으로 높여 표현하는 방법은?

정답 : 높임법

9. ‘응, 아니’ 중, 다음 대화의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민수 : 내일 영화 보러 안 갈래?

현우 : (), 갈래.

정답 : 아니

서술형 (10분)

10. 한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유에 대해 서술하세요. 그리고 한국어 문장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어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쓰세요.

모범 답안: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어순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어에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역할이나 관계를 잘 드러내 주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더라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존이 어제 김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어제 존이 김밥을 먹었다.’, ‘김밥을 어제 존이 먹었다.’라고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어순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올 수 없다. 즉 반드시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야 한다. ‘예쁜 가방’은 ‘가방 예쁜’으로 쓸 수 없다.

나. 토의 (40분)

한국어와 모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이 차이가 한국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신의 경험을 들려 주세요.

다. 과제 (40분)

한국어의 어휘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모범 답안: 다른 언어의 어휘들과 구별되는 한국어 어휘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친족어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나타내는 어휘만 해도 ‘아버지, 아빠, 아버지님, 춘부장, 선친, 가친, 선대인’ 등으로 다양하며,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말도 ‘형, 동생, 아우, 언니, 오빠, 누나, 누이’ 등으로 다양하다. 친척을 나타내는 말도 세분되어 있다.

둘째로, 흉내말이라고도 부르는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 상징어는 모음이나 자음이 바뀌면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나타낼 때, ‘줄줄’을 쓸 수도 있고 ‘줄줄’을 쓸 수도 있다. ‘줄줄’은 가는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를 나타내고, ‘줄줄’은 굵은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를 나타낸다.

셋째로,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매우 많은데, 명도와 채도에 따라 미묘한 의미 차이를 나타낸다. ‘빨간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만 해도 ‘붉다, 발갛다, 빨갛다, 새빨갛다, 벌겍다, 빨겍다, 시빨겍다, 발그스름하다, 발그레하다’ 등등으로 아주 많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다.

■ 참고자료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구본관 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II』, 집문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류정일(2022. 11. 3.), 「LA지역 외국인 5위 ‘한국어’」, 『LA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11/02/society/generalsociety/20221102204200095.html>>.

박진호(2017), 「대조언어학」,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제3판), 아카넷, 401-445.

송철의(2017),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제3판), 아카넷, 15-55.

유현경 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조용준(2022. 6. 16.), 「세종학당, 84개국 244개소로 확대...19개국 23개소 추가」,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16000282>〉.

한국국제교류재단(2021.1),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얼마나 늘었을까」, 『KF NEWSLETTER』 205,
〈<https://www.kf.or.kr/kfNewsletter/mgzinSubViewPage.do?mgzinSubSn=11049>〉.

<다양한 한국어 방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데이브 World of Dave(2016. 10. 18.), 「데이브 [지역별 서울 전라도 경상도 부산 제주 표현 차이]」,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CchIPz_pBs〉

스브스뉴스 SUBUSUNews(2017. 4. 27.), 「어설픈 사투리는 가라...진짜 전라도 사투리 퀴즈 대결 /스
브스뉴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6xRcpgcPY>〉.

티캐스트 tcast(2018. 10. 10.), 「이게 진짜 북한 사투리! 북한 지역별 사투리 모음 zip #수다로통일_공
동공부구역_JSA 매주 (화) 밤 10시 방송」,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aNTJJKckXU>〉.

헬로tv뉴스 강원(2019. 8. 2.), 「강원도 사람도 모르는 강원도 사투리에 대한 모든 것! (feat.강원도사투
리 특징)」,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cixKrUxy-8>〉.

CLAB(2021. 8. 15.), 「부산 VS 대구 VS 창원, 경상도 사투리 비교! (햄 VS 희야 VS 누야)」,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4dzzrt10YM>〉.

KBS 교양(2019. 1. 16.), 「전국이장회의-충청남도과 충청북도 사투리도 하늘과 땅 차이?」, 20190116」,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zA3z-oUvU4>〉.

<2차시> 한국어와 한글 (2)

■ 학습목표

1.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한다.
2. 한글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3.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글의 탄생
3. 한글의 특징
4. 한글 자모와 표기법
5.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죠? 오늘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인 한글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언어를 적기 위해서는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기호인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영어는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기록합니다. 이처럼 한국어도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자의 이름이 '한글'입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글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이 문자 체계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알아보고,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들을 조합해서 한국어를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글의 탄생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인데요, 한국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만 13세 이상의 사람 1,700명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1위는 이순신 장군으로 14%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대왕으로 11%를 차지했습니다(한국갤럽 2019. 10. 30.). 이 중에서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조선을 다스렸는데, 이 기간 동안 조선에서는 문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들이 나왔습니다(권영민 외 2009: 183). 이처럼 세종대왕은 조선을 다스리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세종대왕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된 15세기 전반까지 한국에는 고유의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글을 적을 때에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이 한자는 한국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또한 한자는 배우기가 아주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살아갔죠. 한자를 활용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지배층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 기관에 억울함을 전할 방법이 없었고, 편지를 통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기도 어려웠으며,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남기기도 어려웠습니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한국어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글을 만드는 일을 마친 것은 1443년입니다(송철의 2017: 52). 이때 세종대왕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 문자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하지만 문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언어를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언어를 적는 방식을 연구해야 하죠. 한글이 창제된 후에 이 한글을 가지고 한국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는 조선시대의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의 학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이 왕이 된 지 28년이 되던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완성됩니다. 문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책이죠. 이 책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완성된 때를 한글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때라고 보죠. 이 책에는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 훈민정음의 각 글자들을 만든 원리, 각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 훈민정음으로 한국어를 적는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을 보면 당시에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권영민 외 2009: 187).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처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관리들도 훈민정음을 익혀

사용하고, 재판의 판결문뿐만 아니라 왕이 내리는 문서인 교서도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쓰도록 하였습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19). 그렇게 해야만 글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관리들은 이러한 왕의 결정에 크게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 있던 중국의 문화를 배우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점, 쉬운 새 문자를 배워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한자를 배우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훈민정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세종은 이러한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면서, 한국에서는 비로소 일반 사람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권영민 외 2009 : 184). 한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당시에 한자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여자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글로 편지를 써 교환하며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19). 관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심지어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한글로 벽보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죠. 조선의 열 번째 왕이자 난폭한 왕으로 유명한 연산군은 이러한 백성들의 저항에 놀라 한글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로 된 문학작품들이 등장한 것도 한글로 인해 생긴 큰 변화였습니다(권영민 외 2009 : 184).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문학작품 역시 한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한글로 된 시조나 가사 문학이 등장하고 한글 소설이 나와서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19세기 중기까지도 조선의 공용 문자는 어디까지나 한자였습니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글). 한글은 공적이지 않은 문자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1894년 11월 21일 왕의 명령으로, 법률 명령을 모두 한글로 적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공용 문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이 바로 널리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의 문자 생활에서 훈민정음이 더욱 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된 책인 훈민정음은 한국의 국보이면서 동시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지정되었죠. 그리고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유네스코에서는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들여 좋은 결과를 낸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서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으로 정하고 1989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¹⁾ 그리고 한국의 공휴일 중에는 ‘한글날’이라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이날은 바로 한글이 세상에 알려진 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이처럼 한글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사람으로서 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만 원짜리 지폐에는 세종대왕의 초상이 나오고, 한국에는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시 등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리, 건물, 지명 등이 있죠. 세종대왕과 한글은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1) 정확히는 1989년에 만들어졌고 1990년에 처음으로 상을 주었다.

3. 한글의 특징

한글은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이며 한국문화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글이 한국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단위 중에 어떤 단위를 대표하느냐에 따라 문자를 나누면 단어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송철의 2017: 52). 단어문자는 글자 한 자가 하나의 단어를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문자로는 한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去’)는 하나의 한자인데요, 이 글자는 한국어의 ‘가다’에 해당하는 한 단어를 대표합니다. 이처럼 단어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뜻을 가지게 되죠. 다음으로 음절문자는 한 글자가 의미와는 상관없이 한 음절을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여기에서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과 모음이 어울린 한 덩어리의 소리를 말합니다(송철의 2017: 31). ‘한글’이라는 단어는 ‘한’과 ‘글’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죠. 일본의 가나가 대표적인 음절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의 하나인 히라가나의 이 글자(‘が’)는 ‘ga’라는 하나의 음절을 대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소문자는 글자 한 자가 음소를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여기에서 ‘음소’는 의미를 구별하게 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송철의 2017: 32).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인 ‘가’에서 /ㄱ/를 /ㄴ/로 바꾸면 말하는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나’가 되면서 의미가 바뀌죠. 이렇게 의미를 구별하게 해 주는 /ㄱ/와 /ㄴ/는 각각 하나의 음소입니다. 이러한 음소를 대표하는 음소문자는 자모문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소문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알파벳, 그리고 오늘 배우는 한글이 있습니다(송철의 2017: 52). 한글의 ‘ㄱ’, ‘ㅏ’는 각각 한글의 음소 하나씩을 대표하죠. 글자 하나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즉 뜻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 단어문자와 달리 음절문자와 음소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며, 문자의 주된 기능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모음 글자와 자음 글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음소문자, 자모문자인데요, 문자 발달을 이야기할 때 보통 문자는 단어문자에서 음절문자, 음절문자에서 음소문자 순으로 발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음소문자는 문자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발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송철의 2017: 53).

그리고 한글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음절문자나 자모문자의 경우 그 앞 단계의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를 기록하는 문자인 가나는 음절문자로, 그 앞 단계인 단어문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런 보통의 문자들과는 달리, 다른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새로운 원리로 새로운 모양의 글자를 만든 것이죠.

또한, 한글은 글자를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 만든 원리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보통의 문자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 만든 원리가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죠. 특히, 문자를 만든 뒤 그 문자를 만든 사람, 목적, 원리, 그리고 문자의 사용법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남아있는 사례는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한편,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된 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모시 탕거리니(Timothy Tangherlini) 미국 UCLA 교수는 한글은 세계의 그 어떤 문자들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음운 체계를 표현한 문자라고 했죠(정재훈 2013. 10. 9.).²⁾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로버트 램지(Robert Ramsey) 교수 역시 한글은 소리와 글이 서로 체계적인 연계를 지닌 과학적인 문자라면서 어느 한 나라를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선물이기도 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김재홍 2009. 10. 7.).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이 2018년 한국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글문화에 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현경숙 2021. 3. 4.).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글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송철의 2017: 54).

첫째로, 한글은 독창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글은 다른 글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 문자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자음은 소리를 내는 인체 부분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은 매우 독창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말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인체 부분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은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글은 과학적입니다. 한글은 당시 한국어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만든 문자입니다. 한국어의 말소리 각각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각각의 말소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그것을 글자의 모양에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언어 연구의 결과로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글은 체계적입니다. 한글은 기본자만 다른 대상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 기본자에 선이나 점을 더하거나 기본자들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한글 자음 'ㄴ', 'ㄷ', 'ㄹ'은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대표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음들은 글자 모양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선 하나를 더하면 'ㄷ', 두 개를 더하면 '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다른 문자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음소문자인 알파벳에서 한글의 'ㄴ, ㄷ, ㄹ'에 대응되는 알파벳은 'N, D, T/n, d, t'인데요, 이들 사이에는 글자 모양의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과학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동영상들을 검색해 보면 90분, 한 시간, 심지어는 30분 만에 한글을 가르쳐 주는 동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런 동영상을 보면 외국인들도 한 시간 정도 한글을 익히고 난 뒤에는 한글로 적혀 있는 단어들을 읽거나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훈민정음』의 서문에도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다 가기 전에 깨달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10일이면 배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처럼 한글이 배우기 쉬운 것은 한글이 일정한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의 모양을 통해 소리를 쉽게 알 수 있어서 한글을 만든 원리를 이해하면 전체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각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를 파악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4. 한글 자모와 표기법

2) 언론사에서 티모시 탱거리니 교수의 인터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언어'로 번역하였기에 강의 동영상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문자' 대신 '언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여기에서는 '언어'를 '문자'로 수정하였다.

앞서 한글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글을 만든 원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떤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한글을 구성하고 있는 자음자와 모음자, 그리고 한글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글은 독창성과 과학성, 체계성을 가진 훌륭한 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글을 만든 원리와 한글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적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면 한글이 어떤 측면에서 독창성과 과학성,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24자이지만,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한글은 총 28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였죠. 현재는 자음이 14자, 모음이 10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처음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에는 지금보다 자음이 셋, 모음이 하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한글에 대한 해설서라 할 수 있는 책 『훈민정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글을 만든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음 17자는 기본 글자 5개를 만든 다음에 기본 글자에 선을 하나씩 더하거나 모양을 다르게 해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글, 구분관 외 2016: 415-418, 안병희 2007: 241-242). 기본 글자는 말소리를 내는 인체 부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음의 기본 글자는 ‘ㄱ, ㄴ, ㄷ, ㅅ, ㅇ’입니다. 먼저 ‘ㄱ’은 /k/(그) 소리를 대표하는데, 이것은 혀의 뒷부분과 목구멍 가까이에 있는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ㄴ’은 /n/(느) 소리를 대표하는데, 이 소리는 혀의 앞부분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기 때문에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ㄷ’은 /m/(므) 소리를 대표하는데 이 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서 입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ㅅ’은 /s/(스) 소리를 대표하는데 혀의 앞부분과 윗잇몸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그 사이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며 나는 소리로, 치아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ㅇ’은 ‘ㄱ’과 마찬가지로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 가까이에 있는 안쪽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 /ŋ/(응) 소리를 대표하는데,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 때 모양을 본뜬 인체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오늘날의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글을 만들 당시에 각각의 말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인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리를 내는 인체 부분을 본떠 기본자를 만든 뒤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을 하나씩 더해 새로운 자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본자에 더해지는 선은 그 글자가 기본자의 소리보다 조금 더 센 소리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기본자에 선을 하나 더해 만든 자음자는 기본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조금 더 센 소리를 대표하며, 선을 두 개 더해 만든 자음자는 기본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면서 선을 하나 더해 만든 자음보다 좀 더 센 소리를 대표하는 식이었습니다. ‘ㄱ’보다 조금 더 센 소리는 ‘ㄱ’에 선을 하나 더한 ‘ㅋ’으로 나타내고, ‘ㄴ’보다 조금 더 센 소리는 ‘ㄷ’, 그보다 조금 더 센 소리는 ‘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ㄷ’에도 선을 더해 ‘ㅌ, ㅍ’을 만들었으며, ‘ㅅ’에 선을 더해 ‘ㅆ, ㅈ’을 만들고, ‘ㅇ’에 선을 더해 ‘ㅎ’(여린 히을)과 ‘ㆁ’을 만들었죠.

이 외에 기본자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만든 자음도 있습니다. ‘ㄱ’의 모양을 변형하여 만든 ‘ㅇ’(옛이응), ‘ㄴ’의 모양을 변형해 만든 ‘ㄹ’, ‘ㅅ’의 모양을 변형해 만든 ‘ㅍ’(반치음) 같은 것들이죠. 이들 역시 각 자음자가 대표하는 말소리를 만드는 위치는 기본자와 동일한데, 소리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목록을 보면,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ᄃ(순경음 비음)’과 같이 자음을 세로로 이어 쓴 자음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ᄅ(반치음), ᄇ(여린 히음)’과 같은 글자들 역시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한국어에서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ᄋ(옛이음)’이 나타내던 소리는 ‘o’으로 적게 되면서 ‘o’도 없어졌고, ‘ㅅ, ㅆ’ 등과 같이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적은 글자들 중 일부도 사라졌습니다. ‘ㄱ, ㅋ, ㆁ’과 같이 동일한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적은 쌍자음 글자는 남아서 현재까지 경음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모음자 중에서는 ‘ㆍ’가 나타내던 모음 소리가 사라지면서 문자 역시 사라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훈민정음』 책에서는 받침을 표시할 때는 자음 글자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모든 자음이 다 받침자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ㄱ, ㄷ, ㄱ, ㄴ, ㅁ, ㅂ, ㅅ, ㅈ’ 이렇게 8자면 모든 받침을 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어의 받침 자리에서 나는 소리가 이 여덟 가지뿐이었으며, 다른 자음들은 받침 자리에서 이 여덟 가지 소리 중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받침은 소리를 따라 8개의 글자 중 하나로 적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현대의 받침 적는 방법은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많이 다른데요, 책 『훈민정음』에서는 받침을 소리 나는 대로 8개의 글자 중 하나로 적도록 정했지만 지금의 한국어 표기법에서는 한국어를 ‘어법에 맞게’ 적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한글 맞춤법 제1항).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꽃’ 뒤에 조사 ‘만’이 와서 ‘꽃만’이라고 쓰일 때에는 [꼐만]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꽃’의 받침 자리에 있는 ‘ㅈ’이 [ㄴ]로 소리 나는 것이죠. 그리고 ‘꽃’ 뒤에 조사 ‘과’가 결합해서 ‘꽃과’라고 쓰일 때에는 [꼐파]와 같이 발음됩니다. 받침 자리의 ‘ㅈ’이 [ㄷ]로 소리 나죠. 만약 처음 한글을 만들 때 정한 것처럼 소리 나는 대로 받침을 적는다면 ‘꽃만, 꽃과’의 ‘꽃’은 각각 ‘꼐, 꼐’으로 적혔을 것입니다. 즉, ‘꽃[花, flower]’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모양으로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글자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죠. 즉 ‘꽃, 꼐, 꼐’보다는 ‘ㅈ’ 받침의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인 ‘한글맞춤법’에서는 처음 한글을 만들 때의 받침 적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말은 받침도 하나로 고정해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8개의 자음 외에도 다양한 자음들이 받침 자리에서 쓰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는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한국어를 적는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두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음소문자인 한글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송철의 2017: 55). 예를 들어, ‘fire(火)’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를 ‘ㅍㅂㅅ’과 같이 풀어서 쓰지 않고 ‘불’과 같이 한 음절을 모아서 쓰도록 하는 것이죠. 음절의 맨 앞에 오는 자음자의 오른쪽 옆이나 아래에 모음을 적고 받침이 있을 경우 그 아래에 받침을 적는 식으로 글자를 적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같은 음소문자인 알파벳으로 영어 단어를 표기하는 방식과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여러 장 묶어서 만드는 물건을 한국어에서는 [ㅈㅅㅅ] 이라 하고 영어에서는 [buk] 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 모두 하나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 음절 단어를 한국어로 적을 때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ㅈ’을 적고 그 옆에 모음자 ‘ㅂ’을 적은 뒤 마지막으로 받침 ‘ㄱ’을 ‘ㅈ’과 ‘ㅂ’ 아래에 적습니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자음자 ‘b’ 옆에 모음자

‘o’ 두 개를 나란히 적고 마지막으로 ‘k’를 다시 모음자 옆에 적죠. 그래서 한글로 한국어를 적을 때와 달리 글자들이 옆으로 죽 늘어서게 됩니다.

보통 음소문자를 적을 때에는 알파벳처럼 옆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한글로 적을 때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소문자를 모아쓰기 하게 되면 음절문자처럼 음절을 구분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편리해지기 때문에 풀어쓰기를 하는 것보다 문자를 읽을 때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표기법이 복잡해지는 단점도 있죠.

이 외에도 한글을 만들 때에는 각 음절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안병희 2007 : 243). 이처럼 소리의 높낮이를 문자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한국어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는 것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정한, 글자를 만드는 원칙은 한글의 체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바일 한글 자판입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한글을 입력할 때 컴퓨터 자판과 동일한 쿼티 자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휴대전화처럼 작은 기기에서 한글을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키로 구성된 한글 자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글 자판을 개발할 때 한글 자판의 키 수를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한글을 만든 원칙입니다. 그 예로, 나랏글 자판의 경우 한글을 만들 때 기본자로 삼은 ‘ㄱ, ㄴ, ㄷ, ㄱ, ㅅ, ㅇ’과 기본자의 모양을 변형해 만든 자음인 ‘ㄲ’이 각각 하나의 키가 되고, 여기에 ‘획 추가’ 즉, 선을 하나씩 더해주는 키가 있어서 ‘ㄱ’을 누르고 ‘획 추가’를 누르면 ‘ㅋ’이 되는 식으로 자음자를 입력합니다. 한글 자음자를 만들 때 기본자에 선을 더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음자를 입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쌍자음은 ‘ㄱ, ㄷ, ㅂ, ㅅ, ㅈ’을 입력한 뒤에 ‘쌍자음’이라고 적힌 키를 눌러서 쌍자음으로 바꿉니다. 또한 모음의 경우도 ‘ㅏ, ㅑ, ㅓ, ㅕ, ㅣ, ㅡ’는 하나 또는 두 개가 하나의 키에 배정되어 있고 그 외의 모음은 ‘획 추가’ 키를 누르거나 둘 이상의 모음을 합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ㅛ’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ㅓ’를 누른 뒤 ‘획 추가’를 누르고, ‘ㅟ’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ㅜ’, ‘ㅣ’, ‘ㅣ’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이 역시 기본자를 만들고 이들을 한 번 또는 두 번 합치거나 모음자를 서로 합쳐 새로운 모음자를 만드는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입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바일 한글 자판인 ‘천지인’ 자판도 한글을 만든 원리를 활용하여 만든 자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판은 자음의 경우 ‘ㄱ’과 ‘ㅋ’, ‘ㄴ’과 ‘ㄹ’, ‘ㄷ’과 ‘ㅌ’ 등과 같이 대체로 글자의 모양이 서로 관련이 있는 자음자들이 짝을 이뤄 하나의 키가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격음, 경음 이렇게 세 계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지인’의 자음 자판에는 이 자음의 세 계열이 반영되어 있어서 ‘ㄱ ㅋ’ 자판을 한 번 누르면 평음을 대표하는 글자 ‘ㄱ’, 두 번 누르면 격음을 대표하는 글자 ‘ㅋ’, 세 번을 누르면 경음을 대표하는 글자 ‘ㄱ’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모음자 키는 한글을 만들 당시의 모음 기본자인 ‘ㅣ, ㅡ, ㅜ’ 단 세 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키를 이용해 한글 모음자를 만들 때의 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음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모음자 ‘ㅑ’를 입력하고 싶으면 ‘ㅡ’와 ‘ㅣ’를 입력하고, ‘ㅟ’를 입력하고 싶으면 ‘ㅡ, ㅜ, ㅜ, ㅣ, ㅣ’를 차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을 만드는 원리를 활용하면 한국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데에 필요한 키의 수를 12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널리 사용되기 전에 버튼

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자판들이 특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자판의 개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랏글, 천지인과 같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사용한 자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한 손으로 한글을 입력해야 할 때에는 이런 자판들이 더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글을 변용해 한국어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놀이가 인터넷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박진호 2017. 9. 4, 이승연 2022. 10. 6., 최혜승 2022. 11. 18.).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자모로 바꾸어 표현하는 놀이인데요, 예를 들어,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쓰거나 ‘멍작’을 ‘땡작’, ‘귀엽다’를 ‘커엽다’, ‘대머리’를 ‘머머리’, ‘세종대왕’을 ‘세종머알’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눈물’을 ‘룸곡웁눈’이라고 쓰는 것처럼 글자를 회전시키거나 ‘부부’를 ‘뽀’라고 쓰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의 변화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쓰고 ‘멍멍이’라고 읽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멍멍이’ 대신 ‘댕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표기와 단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젊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표기와 단어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표기와 단어가 널리 쓰이면서 최근에는 신문 기사나 TV 뉴스에서도 ‘댕댕이’가 음주운전자 검거?…서울시 표창까지 받은 이유는’과 같이 제목이나 본문에서 ‘댕댕이’와 같이 변형된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최혜승 2022. 11. 18., 강영연 2023. 1. 25.).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한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 변형된 표기를 쓰다가는 한글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잊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표기, 단어들을 잘 모르는 중장년층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글을 변형하며 새로운 표기와 단어를 만드는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좋고 보는 의견과 나쁘다고 보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놀이 문화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너네 댕댕이 커엽다.’와 같은 글을 보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니 댕댕이도 커여워.’라고 답해 보세요. 아마 한바탕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5. 핵심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인 한글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이 문자 체계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알아보고,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한글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면,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15세기 전반까지 한국은 고유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1443년 한국어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를 만들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고 있죠.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을 가지고 한국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이 책에는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 훈민정음의 각 글자들을 만든 원리, 각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 훈민정음으로 한국어를 적는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널리 사용되면서 한국에서는 비로소 일반 사람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글로 된 문학작품들도 등장했죠. 그 후 1894년에 한글은 정식으로 조선의 공용 문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글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글은 모음자와 자음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음소문자, 자모문자로 문자 발달의 최종 단계에 있는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글자를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 만든 원리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문자를 만든 뒤 그 문자를 만든 사람, 목적, 원리, 그리고 문자의 사용법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남아있는 사례는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한편,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된 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한글은 독창적입니다. 특히 말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인체 부분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은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글은 과학적입니다. 한글은 당시 한국어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만든 문자입니다. 셋째로, 한글은 체계적입니다. 한글은 기본자만 다른 대상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 기본자에 선이나 점을 더하거나 기본자들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과학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자모와 표기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만든 방법을 살펴보면, 자음 17자는 말소리를 내는 인체 부분의 모습을 본떠서 기본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ㅇ’을 만든 다음에 기본 글자에 선을 하나씩 더하거나 모양을 다르게 해서 ‘ㅋ, ㆁ, ㄷ, ㅂ, ㅍ, ㅈ, ㅊ, ㅎ’과 같은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모음자 11개는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자 ‘ㆍ, ㅡ, ㅣ’를 만들고 이를 합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같은 다른 글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28자를 만든 뒤, 28자만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자음을 세로로 이어 쓰거나 자음이나 모음을 각각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말소리가 변하면서 한글 체계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한글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있습니다.

자음: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ㅊ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편, <훈민정음> 책에서는 받침을 표시할 때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이렇게 8자만을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어의 받침 자리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8개의 글자 중 하나로 적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어 표기법에서는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도록 하고 있어서 다양한 자음들이 받침 자리에서 쓰입니다.

또한 한글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음절 단위로 모아 쓰도록 한 것도 표기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한글은 음소문자이지만 음절을 구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한글을 만들 때에는 각 음절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는데, 이 역시 한국어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는 것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정한, 글자를 만드는 원칙은 한글의 체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한글 입력과 같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쓰거나 ‘명작’을 ‘땡작’, ‘부부’를 ‘뽀’라고 쓰는 것처럼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자모로 바꾸어 표현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표기와 단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젊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한글의 탄생 과정을 알고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인의 언어예절에 대해 배워봅니다. 한국어로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언어예절을 잘 알고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문화를 잘 이해해서 예절에 맞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 번째 시간에는 높임법과 호칭어, 지칭어, 인사 등과 관련이 있는 한국인의 언어예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글은 기존에 있던 다른 글자를 모방하고, 변형하여 만들었다. (O/X)

정답: X

2. 한글은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 만든 원리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 (O/X)

정답: O

3. ‘훈민정음’은 한글을 만든 시기와 사람, 만든 원리를 기록한 책의 제목이다. (O/X)

정답: O

4. 한글의 모음은 소리를 내는 인체 부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O/X)

정답: X

선택형 (8분)

5.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일을 마친 때는?

① 1443년

② 1446년

③ 1449년

④ 1545년

정답 : ①

것이다. 그 결과물은 ‘ㅈ, ㅉ, ㅊ, ㅊ’이다.

■ 참고자료

- 강영연(2023. 1. 25.), 「'댕댕이'가 음주운전자 검거?...서울시 표창까지 받은 이유는」,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251651i>>.
- 구본관 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II』, 집문당.
-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 김재홍(2009. 10. 7.), 「램지교수 "한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901995?sid=103>>.
- 박진호(2017. 9. 4), 「야민정음, 발랄한 문자 놀이」, 『서울대저널』, <<http://www.snurn.com/news/33973>>.
- 송철의(2017),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제3판), 아카넷, 15-55.
- 안병희(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승연(2022. 10. 6.), 「댕댕이·커여워·팡역시...국립국어원 '야민정음' 행사 논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5132600004?input=1195m>>.
- 전국역사교사모임(2019), 「훈민정음을 만들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82510&cid=47322&categoryId=47322>>.
- 정재훈(2013. 10. 9), 「세계로 퍼져가는 한글..."가장 뛰어난 문자"」,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1310090508179560>.
- 최혜승(2022. 11. 18.), 「'명작' 대신 '명작'... 수능에 등장한 '야민정음」,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11/17/MZRSFJ3HZF2TNVBFQTM7ZUMV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한국갤럽(2019. 10. 30.), 「한국인이 좋아하는 40가지 [사람편]」, 『Gallup』, <[https://www.gallup.co.kr/dir/GallupReport/GallupReport\(20191031\)_%ED%95%9C%EA%B5%AD%EC%9D%B8%EC%9D%B4%EC%A2%8B%EC%95%84%ED%95%98%EB%8A%94_%EC%82%AC%EB%9E%8C%ED%8E%B8.pdf](https://www.gallup.co.kr/dir/GallupReport/GallupReport(20191031)_%ED%95%9C%EA%B5%AD%EC%9D%B8%EC%9D%B4%EC%A2%8B%EC%95%84%ED%95%98%EB%8A%94_%EC%82%AC%EB%9E%8C%ED%8E%B8.pdf)>.
- 「한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508>>.
- 「한글 맞춤법」, 『국립국어원』,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
- 현경숙(2021. 3. 4.), 「[imagine] 위대한 유산 ① 한국인을 지성으로 이끈 한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55300805?input=1195m>>.

<3차시> 한국인의 언어 예절

■ 학습목표

1.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와 쓰임을 이해하고 높임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2. 한국어의 다양한 호칭어, 지칭어를 이해하고 예절에 맞게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한국어에서 인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높임법과 예절
3. 호칭어, 지칭어와 예절
4. 인사와 예절
5.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이번 시간이 벌써 여러분들과 세 번째로 만나는 시간이네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할 때 이 수업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운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인의 언어예절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예절을 중요시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습니다. 동쪽에 있는 예의에 밝은 나라라는 뜻이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다양한 예절이 발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언어예절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언어예절이란, 언어를 예의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절차나 질서를 말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키도록 권장되는 언어 구조와 언어 사용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언어예절은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어예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 역시 한국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일이 늘어날 테니 언어예절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겠죠.

언어예절에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도 있지만, 언어의 종류나 언어

사용자가 속한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인의 언어예절, 그중에서도 한국인에게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언어예절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언어예절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높임법과 호칭어, 지칭어, 인사 등과 관련이 있는 예절을 배워볼 것입니다.

2. 높임법과 예절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때 한국어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문법적으로 높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높임법은 한국어의 언어예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높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높임법을 예의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됩니다. 우선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니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말 속에 등장하는 사람, 곧 문장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언어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나이, 지위, 신분, 친분 정도, 말을 주고받는 상황의 특성 등에 따라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 다릅니다.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높임법을 사용해야 언어예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죠.

한국어의 높임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높임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높임법을 나누면 서술어에 어미를 붙여 높임 표현을 만드는 문법적인 방법과 높이는 뜻이 더해진 어휘를 사용하는 어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높임법은 다시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체에 대해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주체, 주어를 문법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어미 ‘-시-/ -으시-’를 서술어에 붙이는 것입니다.

(1) 어머니는 오늘 뭘 하셨어요?

(2) 선생님께서 오시네요.

이 예문에서 ‘선생님’과 ‘어머니’는 모두 말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오시다, 하시다’와 같이 어미 ‘-시-’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문의 ‘하셨어요’에서 ‘-셨-’은 높임의 어미 ‘-시-’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이 결합하면서 둘이 합쳐져 ‘-셨-’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체를 높여서 표현하려고 할 때는 서술어에 ‘-시-/ -으시-’를 붙이는 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문법적인 방법과 함께 어휘적인 방법으로 주체를 가리키는 주어 뒤에 붙는 조사를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바꿔 주기도 합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각각 ‘께서’와 ‘께서는’으로 바꿔 주면 높임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선생님께서 오시네요.’의 ‘께서’가 바로 주어를 높이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주체 높임법을 언어예절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 높임법을 어떤 때에 사용해야 하고 어떤 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주체 높임법을 설명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법은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을 때에 사용합니다. 특히 아주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반드시 분명하게 예절을 지켜 높여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조사 ‘께서’를 어미 ‘-시-/오시-’와 함께 써서 높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체가 높여야 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께서’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에 ‘-시-/오시-’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하는 사람이 높여야 할 대상과 친한 경우에는 ‘께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시-/오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 ‘께서는’을 사용하면서 서술어에 ‘-시-/오시-’를 붙이지 않는 문장은 쓸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가 집에 오시네요.’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아버지께서 집에 오네요.’와 같은 문장은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화의 상황에서 주체를 높이는 것이 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대화를 봅시다.

(3) 후배: 언니, 어제 영화 보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선배: 응, 재미있더라. 너도 봐 봐.

후배: 어디서 봤어요? 가까운 데에 그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어요?

선배: 응. 길 건너 백화점 건물에 있어.

이 대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후배가 선배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나이도 선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후배가 선배가 주체가 되는 문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체 높임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를 보면 ‘보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오시-’가 사용되었지만, ‘봤어요’에서는 ‘-시-/오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높이지 않은 문장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체 높임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높임법을 사용한 문장과 사용하지 않은 문장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친한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데요, 한쪽이 다른 쪽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도 서로가 아주 친하면 말하는 사람이 높여야 할 대상인 대화 상대방을 높이지 않은 문장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언어예절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문장에 ‘-시-/오시-’를 넣어주어야겠죠.

한편, 지금까지 주체 높임법의 예로 설명한 문장들은 모두 주어로 등장하는 주체를 직접 높인 것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장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체 높임법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의 예를 봅시다.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무척 따뜻하시다.

(5) 사장님, 오늘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 두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마음’이나 ‘옷’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옷’을 입고 있는 ‘사장님’이 높여야 할 대상이죠. 이처럼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 또는 소유물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로 쓰일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서술어에 ‘-시-/오시-’를 붙여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높임은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인다 하여 ‘간접 높임’이

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이나 ‘웃’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언어예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간접 높임’이 너무 많이 쓰여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간접 높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간접 높임을 사용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 메뉴는 안 되세요.”, “결제 금액은 5천 원이 됩니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예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많이 쓴다고 해서 모두 문법과 언어예절에 알맞은 표현인 것은 아니죠.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처럼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대상이 주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그 메뉴’, ‘결제 금액’과 같은 것들이 주어일 때 간접 높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식당에 가거나 직원의 서비스를 받을 때, 혹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동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간접 높임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알고 잘못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하는 방법으로, 문장 끝의 서술어에 여러 종결어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6) 어머니,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7) 은지야, 나는 농구를 좋아한다.

화면의 예를 보면 동사 ‘좋아하다’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나이, 지위, 친분 등에 따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로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에서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높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라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은지야, 나는 농구를 좋아한다.”에서 ‘좋아한다’는 듣는 사람 ‘은지’를 높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에 비해 훨씬 복잡합니다. 주체 높임법은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구분밖에 없는 반면에, 상대 높임법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나누는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상대 높임법은 먼저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느냐,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격식적 용법과 비격식적 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격식적 용법은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나이, 직업, 지위 등을 고려해서 특정한 등급의 어미를 써야 합니다. 즉, 격식적인 용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미가 사용되는지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언어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어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 높임법의 격식적 용법은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각 등급의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방, 듣는 사람을 아주 높이는 것과 보통 정도로 높이는 것, 보통 정도로 낮추는 것과 아주 낮추는 것, 이렇게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몸을 씻습니다./씻으오./씻네./씻는다.

(9) 몸을 씻습니까?/씻으오?/씻나?/씻느냐?

- (10) 몸을 씻으십시오./씻으시오./씻게./씻어라.
 (11) 몸을 씻으십시오./씻읍시다./씻으세./씻자.
 (12) 산이 높습니다./높으오./높네./높구나.

화면에 보이는 예는 다양한 문장들을 상대 높임의 순서에 따라 보인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임의 등급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동사 ‘하다’에 종결어미를 붙여 각각의 높임 등급에 따라 제시하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아주높임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다	합니다
예사높임	하오	하오	하(시)오	합시다	하오
예사낮춤	하네	하나/하는 가	하게	하세	하네
아주낮춤	한다	하느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

동사 ‘하다’를 아주높임으로 표현하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다’, 감탄의 ‘합니다’가 되고요. 예사높임으로 표현하면 ‘하오’, 의문의 ‘하오’, 명령의 ‘하오’, ‘하시오’, ‘합시다’, 감탄의 ‘하오’가 됩니다. 예사낮춤으로 표현하면 ‘하네’, ‘하나/하는가’, ‘하게’, ‘하세’, 감탄의 ‘하네’가 되고요. 아주낮춤으로 표현하면 ‘한다’, ‘하느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가 됩니다.

언어예절에 맞게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등급이 어떤 때에, 즉 듣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높임은 상대 높임법에서 듣는 사람을 가장 높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손님과 같이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되며, 회의나 연설, 발표, 토론, 보고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사높임과 예사낮춤의 경우, ‘합시다’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사높임이나 예사낮춤의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사용되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나이가 많은 등장인물들이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들을 기회가 드물지만 있을 겁니다. 예사높임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약간 높여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사낮춤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이들을 약간 낮춰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나이 든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거나 나이 많은 선생이 나이 많은 제자에게, 혹은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사용합니다. 드라마에서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어서 먹게.”라고 한다든지,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역시 나이가 꽤 많아 이제는 교수가 된 제자에게 “자네 집은 어딘가?”라고 묻는 장면 같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사낮춤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낮춤은 친구나 어린 사람에게 아주 낮춰서 말할 때 사용됩니다.

격식적인 용법과 달리 비격식적 용법은 친한 선후배나 동료, 친구, 그 외의 아주 친한 사이, 즉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한 사이에서 서로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비격식적 용법은 격식적 용법만큼 등급 구분이 세부적이지 않아서 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죠. 반말의 ‘-아/-어, -지, -는지, -ㄴ까/을까, -군/-는군, -네, -나, -는가’에 높임을 나타내는 ‘요’를 붙이면 비격식적인 높임이 되고 ‘요’를 붙이지 않으면 비격식적인 안 높임이 됩니다. 비격식적인 높임은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두루 쓰이고, 비격식적인 안 높임은 예사낮춤과 아주낮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두루 쓰입니다.

- (13) 몸을 씻어요./씻어.
- (14) 몸을 씻지?/씻지요?
- (15) 몸을 씻어요./씻어.
- (16) 몸을 씻을까요?/몸을 씻을까?
- (17) 산이 높네요./산이 높네.

높임과 안 높임으로 구분되는 비격식 용법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고 더 친근하고 정감이 있는 태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높임의 방법입니다. 격식적 용법에 비해 좀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 높임법의 높임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는 질문을 한 사람이 높여야 할 사람이면 ‘네, 아니요’로 대답하고 높여야 할 사람이 아니면 ‘응, 아니’로 대답합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높여야 할 사람이 경우 말하는 사람은 ‘나, 우리’ 대신 ‘저, 저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높임법의 사용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나이나 지위, 신분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친한 정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친한 정도에 따라 높임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8) 언니, 이 영화 봤어요?
- (19) 언니, 이 영화 봤어?

만약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친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친언니는 말하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니 “언니, 이 영화 봤어?”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대학교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하는 사람이 선배와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 ‘봤어요’를 쓸 수도 있습니다. 친한 선배라면 ‘봤어’를, 친하지 않은 선배라면 ‘봤어요’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을 예절에 맞게 잘 사용하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와 얼마나 친한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높임 표현들 중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 (20) 언니, 뭐 해? (O) / 언니, 뭐 하니? (X)
- (21) 언니, 이거 받아. (O) / 언니, 이거 받아라. (X)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질문을 만드는 ‘-니’, 명령을 할 때 쓰는 ‘-아라/-어라’는 아무리 친한 사이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며,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 역시 용법이나 등급이 대화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대화를 봅시다.

(22) 아버지: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들 친구의 아버지: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버지: 저야 뭐 잘 지내지요. 가끔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화를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도 아버지와 아들 친구의 아버지 모두 격식적 용법의 높임말과 비격식적 용법의 높임말을 섞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격식적 용법과 비격식적 용법을 섞어서 쓰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높임법의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3) 의사: 오늘 바쁘시죠?

동료 의사: 오늘은 수술이 많아서 너무 바쁘네요.

의사: 저도 그래요. 일주일 내내 수술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동료 의사: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쓰러져.

위의 대화에서는 높임 표현과 안 높임 표현이 섞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주 친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과의 얼마나 친한지를 생각해서 상대 높임법의 등급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안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몇 번 만나서 친해지면 말을 놓게 됩니다. 말을 놓는 것은 높임 표현을 쓰지 않고 대화를 하는 사람과 서로 안 높임 표현을 쓰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안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혼자 안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예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신과 대화 상대방의 나이가 같다면 “우리 이제 말 놓을까요?”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뒤, 상대방이 동의하면 함께 안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나이가 많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가 말을 놓아도 될까요?”하고 묻은 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안 높임 표현을 쓰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말 놓으세요.” 또는 “말씀 낮추세요.”라고 말 놓을 것을 요청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안 높임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처럼 서술어에 어미를 붙여서 높이는 문법적인 방법 외에 특수한 어휘를 써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24) 할머니, 물 드세요.

(25)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화면 속 예문에서 ‘드시다’는 ‘먹다’를, ‘돌아가시다’는 ‘죽다’를 높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어휘에는 ‘있다’를 높여 표현한 ‘계시다’, ‘아프다’를 높여 표현한 ‘편찮으시다’, ‘자다’를 높여 표현한 ‘주무시다’, ‘말하다’를 높여 표현한 ‘말씀하시다’ 등이 있습니다.

한편,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에는 문장의 목적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26)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27)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

화면 속 예문에서 ‘드렸다’는 ‘주었다’와 같은 뜻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 즉 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모시고’ 역시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이기 때문에 ‘데리고’를 바꾸어 쓴 것이죠.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어휘들은 문장의 목적어나 행위의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문장의 목적어나 행위의 대상을 높이는 어휘로는 ‘만나다, 묻다’ 대신 쓰이는 ‘뵙다, 여쭙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임의 대상 뒤에 ‘에게’가 붙는 경우에는 ‘께’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장의 목적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는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과는 높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과 나란히 하여 ‘객체 높임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들은 다양한데요, ‘데리다’-‘모시다’처럼 어휘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생-선생님’, ‘부장-부장님’, ‘교수-교수님’처럼 높임의 의미가 없는 어휘에 높임의 뜻을 더해주는 말이 붙어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어휘들은 화면에 더 제시해 두었으니 기억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높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을 물을 때 질문을 듣는 사람이 높여야 하는 사람이면 “이름이 뭡니까?”라고 묻지 않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표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와 같이 정보를 물어볼 때 흔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의 높임법은 다양한 종류와 꽤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임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과 상황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높임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높임법은 언어예절에 적합한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예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높임법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호칭어, 지칭어와 예절

이번에는 언어예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호칭어, 지칭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을 뜻하고,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뜻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호칭어, 지칭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언어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호칭어와 지칭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호칭어와 지칭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언어예절과 직

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칭어, 지칭어를 선택하는 데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호칭어, 지칭어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국어의 특징을 배울 때 한국어에는 친족어가 아주 발달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호칭어와 지칭어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가족, 친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가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족, 친지와 관련이 있는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말을 이해하고 한국의 문학작품이나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호칭어, 지칭어들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족, 친지의 호칭어, 지칭어를 비교적 간략하게 알아보고, 직장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지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예절에 맞게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호칭어, 지칭어를 살펴봅시다.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족의 수가 줄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서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긴 뒤에도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자체는 언어예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아들, 딸’을 사용하거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 서열에 따라 ‘첫째, 막내’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내야’ 하고 부르거나 ‘우리 첫째’ 등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 즉 손주의 이름을 넣어서 ‘영수 아빠, 민수 엄마’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를 부를 때 ‘여보’가 가장 일반적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영수 아빠, 영수 엄마’와 같이 자녀 이름을 넣어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결혼 전에 상대방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자기, 선배, 오빠, 누나’와 같이 부르던 습관 그대로 결혼 후에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가리킬 때는 ‘남편, 우리/저희 남편’, ‘아내, 우리/저희 아내’를 씁니다. 또 자신의 가족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과 남편, 상대방과 아내 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을 씁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며 말할 때는 사위를 부르는 말인 ‘무슨 서방’, ‘누구 아빠, 누구 아범’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를 때에도 자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습니다. 높이는 마음을 담아 ‘아버님, 어머님’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부모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특별히 구분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면 됩니다. 배우자 부모의 지칭어도 호칭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의 부모를 ‘장인/장인어른’이나 ‘장모/장모님’으로, 남편의 부모를 ‘시아버지/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시어머님’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새아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사위의 성을 넣어 ‘김 서방’ 같이 부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손주 이름을 넣어 ‘민주 아범/민주 아빠’, ‘민주 어멈/민주 엄마’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며느리나 사위를 친자식 같이 친근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자녀를 부를 때처럼 이름으로 직접 부르는 가정도 많습니다. 다만, 이름을 부를 때에는 무시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가리키는 말도 부르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서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는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쓰고 낮은 사람은 이름이나 ‘동생’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의 나이 차이가 크거나 형제들에게 손주가 생길 정도로 서로 나이가 들면 ‘형님, 누님’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누나는 ‘큰고모’, 아버지의 여동생은 ‘작은고모’라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이 여럿일 때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등으로 순서를 표시해서 부릅니다. 아버지 형제자매의 배우자 역시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고모부’ 등으로 부르고 가리킵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또 다릅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모’라 부르거나 가리킵니다. 어머니와의 서열 관계에 따라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큰이모, 작은이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역시 ‘외숙모, 이모부’라고 부르고 가리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버지 집안 쪽을 ‘친가’, 어머니 집안 쪽을 ‘외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집안을 좀 더 가깝게 여기는 전통적인 생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어머니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아버지 집안이라고 해서 더 가깝게 여기고 왕래한다든지 어머니 집안이라고 해서 더 멀게 느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대신 그냥 ‘할머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손주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손주를 가리키며 말할 때는 ‘손자’, ‘손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두루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사돈, 사돈어른’이 있습니다. 손주가 있다면 손주의 이름을 빌려서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 누구 외할아버지, 누구 외할머니’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친지의 호칭어, 지칭어 중 일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칭어, 지칭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의 호칭과 지칭은 직장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직장 안에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하는 문화나 관습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역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직장 상사일 텐데요, 전통적으로 직장 상사의 호칭어, 지칭어는 상사의 직함 이름에 ‘-님’을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앞에 이름이나 성, 부서 등을 붙여 해당 상사를 구별해 불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부르거나 여러 명의 과장이나 부장 사이에서 특정한 상사를 구분해야 할 때에는 ‘최 과장님’, ‘총무과장님’ 등으로 부릅니다. 다만 상사여도 아주 친밀한 사이인 사람의 경우에는 ‘과장님’, ‘부장님’처럼 ‘-님’을 붙여 높여 부르는 것이 서로 어색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사의 이름이나 성 뒤에 ‘선배’를 붙여 ‘김혜영 선배, 김 선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높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위나 나이와 함께 친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의 호칭어, 지칭어는 직함 이름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앞에 성이나 이름을 넣어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함 뒤에 ‘-님’을 넣기도 합니다. 직함이 없을 때는 이름이나 성에 ‘씨’를 붙여 ‘김혜영 씨’와 같이 부르거나 동료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선배/선배님’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간혹 아주 친한 동성의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형,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적인 직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직장에서 아래 직원을 부를 때 직원의 성을 넣어 ‘김 군’, ‘김 양’, ‘미스터

김, 미스 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성별이나 결혼 여부 등이 호칭에서 드러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인 직장에서는 '김혜영 씨, 혜영 씨' 또는 성 뒤에 직함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을 존중하는 표현이자 언어예절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최근에는 '씨' 대신 '-님'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직장 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지칭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직원과 손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호칭어, 지칭어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는 손님이 직원을 '젊은이, 총각, 아가씨' 같은 말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말 속에는 나이 차이나 손님으로서 갖게 되는 사회적인 힘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 역시 상대방을 낮추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어들은 언어예절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죠. 다행히 최근에는 이런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칭어를 듣고 함부로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식당, 미용실, 상점 등과 같은 서비스 기관의 직원을 부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기요, 저기요'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말은 직원과 손님의 관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말이라 손님과 직원 모두에게 편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김혜영 씨, 혜영 씨'처럼 직원의 이름에 '씨'를 결합시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 직함이 있는 직원을 부른다면 그 직함을 이용해 '과장님', '김 과장님', '김혜영 과장님'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부르는 말은 그 말이 쓰이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손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름 뒤에 '님'이나 '선생님'을 붙여 '김혜영 님, 김혜영 선생님'과 같이 부릅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를 '누구 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상점이나 학원과 같은 곳에서는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 여러 가지 말이 쓰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손님을 구분해야 할 때에도 손님의 이름 뒤에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을 붙여 '김혜영 손님, 김혜영 고객님, 김혜영 회원님' 등과 같이 부릅니다.

4. 인사와 예절

이번엔 마지막으로 언어예절을 지켜 인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사는 인간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죠. 특히 한국은 인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성'이란 예의 바르게 인사를 차리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히 어른들에게 예절을 지켜 인사를 하는 것을 사람의 품성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사는 말로 하는 말인사와 몸으로 하는 절인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말인사와 절인사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적절한 말인사를 하면서 절인사로 공손함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어른이나 직위가 높은 사람 또는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절인사를 합니다. 목과 등을 펴고 배를 당기며 양 무릎을 붙이고 팔을 겨드랑이에 붙여 자세를 바르게 한 뒤, 몸을 숙입니다. 몸을 숙일 때는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인사와 함께 하는 한국어의 말인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대부분 말인사 표현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자주 쓰이는 인사 표현들 중 특이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언어예절의 측면에서 인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인사의 경우 누구에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인사의 상황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잘 잤니?’와 같이 주로 자는 동안 별일이 없이 잘 잤는지를 묻습니다. 이웃사람에게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때처럼 잘 잤는지를 물을 수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와 같이 일반적인 인사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에서는 아침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를 사용합니다. 저녁 인사는 주로 가정에서 잠자기 전에 가족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집 밖으로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와 같이 인사하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나 왔다.’와 같이 인사합니다. 어딘가에 갔다가 올 것 혹은 어딘가에 갔다 왔음을 알리는 인사인데요, 가정에 있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와 같이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니?’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거리에서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안녕’, ‘안녕하세요?’와 같이 인사하기도 하지만 ‘어디 가세요?’, ‘어디 가니?’, ‘어디 다녀오십니까?’와 같은 인사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인사말은 사용된 문장의 의미만 보면 어디에 가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질문의 답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어디를 다녀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직장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인사말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와 같이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이때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사를 받는 사람 중에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라는 표현에는 ‘고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수고하세요.’라고 하면 고생하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에 따라서는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윗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요.’와 같이 사과의 말과 함께 먼저 나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말을 엮고 나서 퇴근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직급이나 나이의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는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처럼 인사할 수도 있죠.

직장에서 하루 중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아침 인사가 아니어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처럼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난 시간이 식사 시간 무렵이라면 식사를 했는지 묻는 표현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점심 잡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어요?’, 비슷한 직급, 나이의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는 ‘식사하셨어요? 식사했어요?, 점심 먹었어요?’와 같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식사를 마쳤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말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사를 한 사람과 다시 마주친 경우에는 목례만 하면 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대개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잔치를 하는 경우라면 ‘어서 오십시오.’ 뒤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와 같은 문장을 덧붙여 자리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는 관공서, 회사, 백화점, 시장, 음

식점 등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택시나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또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잔을 들어 서로 부딪치면서 간결한 구호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위하여’입니다. 한 사람이 술자리의 목적이거나 성격에 따라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선창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답하는 말로 ‘위하여!’라고 외칩니다. 그 외에도 ‘건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먼저 ‘안녕하십니까?’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한 뒤 ‘저는 누구입니다.’처럼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명함을 건네는 순서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명함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윗사람이 명함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 명함을 윗사람에게 드리고 싶으면 ‘제가 명함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와 같이 간접적인 표현으로 묻는 것이 한국의 언어예절에 적합한 것입니다.

5. 핵심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우리는 한국인의 언어예절,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높임법과 호칭어, 지칭어, 인사 등과 관련이 있는 예절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배운 한국인의 언어예절은 높임법입니다.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문법적으로 높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을 때 어미 ‘-시-/오시-’를 서술어에 붙여 높임을 표현합니다. 이와 함께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을 각각 ‘께서’와 ‘께서’으로 바꿔 높임을 표현하기도 하죠. 단, 일상적인 대화에서, 특히 말하는 사람이 높여야 할 대상과 친한 경우에는 ‘께서’를 잘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화의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친한 경우에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 또는 소유물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로 쓰일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서술어에 ‘-시-/오시-’를 붙이는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하는 방법으로, 문장 끝의 서술어에 여러 종결어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상대 높임법은 먼저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느냐,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격식적 용법과 비격식적 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의 격식적 용법은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어미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높임은 듣는 사람을 가장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사높임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약간 높여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사낮춤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이들을 약간 낮춰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낮춤은 친구나 어린 사람에게 아주 낮춰서 말할 때 사용됩니다. 격식적인 용법과 달리 비격식적 용법은 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반말의 어미에 높임을 나타내는 ‘요’를 붙이면 비격식적인 높임이 되고 ‘요’를 붙이지 않으면 비격식적인 안 높임이 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높임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여야 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네, 아니요, 저, 저희’를 사용하고 ‘너’를 사용하지 않으며, 높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응, 아니, 나,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친한 사람이라면 안 높임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높임 표현들 중 질문을 만드는 ‘-니’, 명령을 할 때 쓰는 ‘-아라/-어라’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 역시 격식적 용법과 비격식적 용법을 섞어서 쓰거나 대화 중에 높임법의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높임 표현을 쓰다가 친해지면 말을 놓게 됩니다. 말을 놓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뒤에 안 높임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에는 특수한 어휘를 써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시다’, ‘돌아가시다’, 등과 같은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어휘, ‘드리다, 모시다’, 조사 ‘께’ 등과 같이 문장의 목적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어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선생-선생님’처럼 높임의 의미가 없는 어휘에 높임의 뜻을 더해주는 말이 붙어 만들어진 어휘도 있고, 높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칭어, 지칭어를 정리해 봅시다.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을 뜻하고,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뜻합니다.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자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자녀의 이름이나 ‘아들, 딸, 첫째, 막내,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사용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부를 때는 ‘여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등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가리킬 때는 ‘남편, 우리 남편/저희 남편’, ‘아내, 우리 아내/저희 아내’를 씁니다. 자신의 가족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과 남편, 상대방과 아내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을 씁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도 자신의 부모에게 쓰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쓸 수 있으며, 아내의 부모를 ‘장인/장인어른’이나 ‘장모/장모님’으로, 남편의 부모를 ‘시아버지/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시어머님’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가/새아가, 누구 어멈/누구 엄마’, 사위는 ‘무슨 서방’ 또는, ‘누구 아범/누구 아빠’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나보다 서열이 높을 경우 ‘형, 누나, 오빠, 언니’, 서열이 낮을 경우 이름이나 ‘동생’을 사용합니다. 조부모의 경우 아버지 집안 쪽이든, 어머니 집안 쪽이든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호칭어, 지칭어로 사용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손주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손주를 가리키며 말할 때는 ‘손자’, ‘손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두루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사돈, 사돈어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칭어, 지칭어를 정리해 봅시다. 직장 상사의 호칭어, 지칭어는 상사의 직함 이름에 ‘-님’을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앞에 이름이나 성, 부서 등을 붙여 해당 상사를 구별해 부릅니다. 다만 상사여도 아주 친밀하면 상사의 이름이나 성 뒤에 ‘선배’를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의 호칭어, 지칭어는 직함 이름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앞에 성이나 이름을 넣어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함 뒤에 ‘-님’을 넣기도 합니다. 직함이 없을 때는 이름이나 성에 ‘씨’를 붙여 사용하거나 ‘선배/선배님’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래 직원은 ‘누구 씨’ 또는 성 뒤에 직함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씨’ 대신 ‘-님’을 붙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기관의 직원을 부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기요, 저기요’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직원의 이름에 ‘씨’를 결합시켜 부를 수도 있고, 직원의 직함을 안다면 그 직함을 이용해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 반대로 공공 기관에서 손님을 부를 때, 손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름 뒤에 ‘님’이나 ‘선생님’을 붙여 손님을 부릅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점이나 학원과 같은 곳에서는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 여러 가지 말이 쓰입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언어예절을 지켜 인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침 인사의 경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잘 잤니?’와 같이 인사합니다. 이웃사람에게는 가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을 포함하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와 같이 일반적인 인사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침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를 사용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와 같이 인사하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나 왔다.’와 같이 인사합니다. 거리에서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니?’, ‘어디 다녀오십니까?’와 같은 인사 표현을 사용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와 같이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때로는윗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요.’와 같이 사과의 말과 함께 먼저 나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말을 엮기도 합니다. 비슷한 직급이나 나이의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는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처럼 인사할 수 있죠. 직장에서 하루 중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처럼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난 시간이 식사 시간 무렵이라면 식사를 했는지를 묻는 표현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사를 한 사람과 다시 마주친 경우에는 목례만 하면 됩니다.

손님을 맞을 때에는 대개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다함께 잔을 비울 때에는 ‘무엇을 위하여!’나 ‘건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먼저 ‘안녕하십니까?’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한 뒤 ‘저는 누구입니다.’처럼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언어예절에 대한 수업을 마쳤고, 동시에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시간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수업에서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배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옷 그리고 집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친한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어나 주체를 높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사용된다. (O/X)

정답: X

2. 상대 높임법의 비격식적 용법은 ‘요’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
다. (O/X)

정답: O

3. 전통적으로 직장 상사의 호칭어, 지칭어는 상사의 직함 이름에 ‘-님’을 붙이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O/X)

정답: O

4. 명함을 건넬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명함을
먼저 건네야 한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높임법은 과거 한국어의 언어 예절에서는 매우 중요했지만, 현재는 그 중요성이 떨어져
므로 반드시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
- ② 상대 높임법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격식적 용법과, 비격식적 상황에 쓰이는 비격
식적 용법으로 나뉜다.
- ③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집안 쪽을 ‘외가’, 어머니 집안 쪽을 ‘친가’라고 했다.
- ④ 한국의 인사 예절에서는 말로 하는 말인사와 몸으로 하는 절인사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하나만 선택하여 인사를 한다.

정답: ②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주체 높임법은 어미 ‘-시-//-으시-’를 서술어에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
- ② 예사뉘춤과 예사높임은 현재 한국어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 높임법이
다.
- ③ 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이 여럿일 때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등으로 순서를 표시하여 부른다.
- ④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가세요?’, ‘어디 가니?’와 같이 말하는 것은, 대
개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 묻어보려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사를 하려는 것이다.

정답: ②

3.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드리다 - 주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주다’의 높임 표현
- ② 여보 -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 ③ 사돈 -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 ④ 어서 오십시오 - 손님을 맞이할 때 쓰는 말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단어로 적으세요.

1. ‘동쪽에 있는 예의에 밝은 나라’라는 뜻의 단어는?

정답: 동방예의지국

2. 문장의 목적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는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과 나란히 하여 부르는 말은?

정답: 객체 높임법

3. 예의 바르게 인사를 차리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은?

정답: 인사성

4. 술자리에서 모두가 동시에 잔을 들어 서로 부딪치면서 외칠 수 있는 구호 두 가지는?

정답: 위하여, 건배

나. 토의 (30분)

한국어에 가족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와 가족을 나타내는 지칭어가 다양하게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봅시다.

다. 과제 (60분)

처음 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호칭어에는 상황별로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 참고자료

강승임(2014), 「높임 표현」, 『3일만에 끝내는 국어문법교과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3484&cid=47319&categoryId=473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9),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국립국어원.

박경우·조인옥(2016), 『한국문화교실』, 보고서.

정민영(2016), 『현대인의 언어 예절』, 글누림.

조민주(2021. 11. 16.), 「‘밥’으로 통하는 한국인의 인사말」, 『서울일보』,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492>>.

「호칭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5743&cid=46674&categoryId=46674>>.

<4차시> 한국인의 의식주 (1): 의복과 주거

■ 학습목표

1.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전통 가옥인 한옥의 특징을 이해한다.
2. 한국의 의복 문화와 주거 문화를 이해한다.
3. 의복이나 주거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
3. 한국의 의복 문화
4.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
5. 한국의 주거 문화
6. 의복, 주거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7.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배우고 한국문화 중에서도 한국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언어에 절, 언어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 그러니까 옷, 음식, 집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옷 그리고 집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전통 가옥인 한옥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의복 문화와 주거 문화의 특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나 집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2.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

여러분들은 한복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K팝이나 한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나 한국 드라마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거나 패션 화보에서 한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상,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입던 의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한복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보통 ‘한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것일 텐데요, 이런 모습의 한복은 조선 중기 이후, 후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복은 아주 다양한 옷들로 구성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겹옷은 저고리, 바지나 치마,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저고리는 한복의 윗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고리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팔이 들어가는 부분을 소매라고 하는데 한복 소매 아래쪽에는 배래라고 부르는 둥근 부분이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저고리 앞쪽에는 ‘고름’이라고 부르는 긴 끈이 좌우에 각각 한 개 달려 있는데 이 둘을 묶어 저고리를 여밉니다. 여자는 아래옷으로 치마를 입는데, 치마를 몸에 감아 두르고 치마끈으로 묶어 고정합니다. 치마는 윗부분에 주름을 많이 잡으면 둥글고 풍성한 모양이 됩니다. 남자는 아래옷으로 바지를 입는데 허리띠를 묶어 허리를 고정하고 발목 부분 역시 바지의 끝을 접은 뒤 대님으로 묶습니다.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옷옷입니다. 저고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름이 없습니다. 보통 단추를 달아서 입습니다. 조끼 역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옷인데 소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는 주로 외출할 때 입는 옷옷입니다. 끝이 무릎에 닿을 정도의 길이이며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고름이 있습니다.

한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 자료에서부터인데요, 시기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 소매통, 허리띠의 유무 등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여성 저고리의 길이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16세기만 해도 여성의 저고리는 허리를 덮을 정도였고, 품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부터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서 치마 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치마는 허리선보다 올려 입게 되었습니다. 저고리는 점차 가슴선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품도 작아졌습니다. 가장 짧을 때는 가슴선을 다 덮지 못할 정도로 짧았다고 해요.

또한 한복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별에 따라 남성의 한복과 여성의 한복이 다릅니다. 또한 입는 사람의 나이나 신분, 옷의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한복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어린아이들이 입는 색동저고리입니다. 색동저고리는 여러 색의 옷감을 잇대거나 여러 색으로 염색해서 만든 천으로 소매를 만든 저고리인데요, 건강하게 자란 아기의 첫 생일인 돌에는 이 색동저고리를 아기에게 입혔습니다. 소매는 보통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흰색의 오방색을 이어 붙여 만들었는데, 아기가 복을 받고 나쁜 것을 물리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복은 아마 한국의 역사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왕이 입었던 옷, 곤룡포입니다. 곤룡포는 왕이 평소에 일을 할 때 입었던 옷인데, 가슴과 등, 양어깨에 금실로 수를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왕이 곤룡포를 입을 때는 ‘익선관’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옥대’라고 하는 허리띠를 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한복은 결혼을 할 때 입는 한복입니다. 신부는 혼례 때 붉은색의 화려한 활옷이나 원삼을 입고 머리에는 장식이 달린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고 꽃신을 신었습니다. 신랑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었던 옷인 단령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허리에는 허리띠인 각대를 두르고 목이 긴 장화 형태의 목화도 신었습니다.

과거에는 옷의 종류뿐만 아니라 한복의 길이나 색깔, 모양이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드러

내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 여자는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고, 아랫부분에 금박으로 장식을 한 치마는 높은 신분의 여성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양반은 길고 풍성한 치마를 입었던 반면 서민들은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발목이 드러날 정도의 비교적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옷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천의 종류와 무늬, 색 등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흰색에 아무 무늬가 없는 면으로 만든 한복이 기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와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복은 오랜 시간 한국인들의 의복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의복이 들어온 이후에도, 1945년 광복 이후에도 한복은 한국인의 일상복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점차 서양식 의복, 양장이 일반화되면서 한복은 일상복의 자리를 서서히 내려놓게 되었죠. 현재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간편한 양복을 주로 입고, 한복은 특별한 날에 가끔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한복을 입죠.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웨딩촬영, 폐백, 환갑잔치, 가족 결혼식 등과 같은 행사에서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또한 생활하기에 편하게 디자인을 바꾼 생활한복을 입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복은 폭이 넓고 긴 치마, 길이가 짧고 고름이 달린 저고리, 입고 벗을 때 매번 새로 묶어야 하는 대님 등 현대인들이 입고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생활한복은 이런 부분들을 생활하기에 편하도록 변형한 한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하기에 편하게 변형한 한복뿐만 아니라 한복의 전통적인 요소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과 신소재를 결합한 다양한 한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복궁과 같은 옛 궁궐 근처입니다.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처에는 한복을 빌려주는 가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시면 한복을 입고 궁궐을 방문해 보세요. 멋진 사진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3. 한국의 의복 문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의 한국 사람들은 서양식 의복, 양장을 주로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도 이렇게 양장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양장이 들어온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당시에 서양의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고 선교사를 비롯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양장도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50년대 이후 일상화된 양장은 다양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1960년대에는 미니스커트가 한국에 등장해서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니스커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는데, 한국에는 1967년에 한 가수가 미니스커트를 선보이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다리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던 때였기 때문에 다리를 대부분 드러내는 미니스커트는 도발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그만큼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행이 계속 이어지자 1970년대 초에는 미니스커트를 퇴폐 풍조라고 정하고 정부가 단속을 벌였는데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치마의 끝이 무릎 위로 17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어서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위치나 남성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게 된 것은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자아정체성 표출이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개인이 양복점 같은 곳에서 자신의 몸에 맞게 제작하는 맞춤복에

서 일정한 치수 기준에 맞게 기업에서 생산한 기성복으로 유행이 이동했습니다. 패션은 대중화되었고 티셔츠와 청바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교복을 입던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된 ‘교복 자율화’가 1983년에 시행되면서 의복 문화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의복 문화는 개성적으로 다양화되었고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특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의복 문화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만이 가지는 의복 문화의 독특한 성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노출이나 파격적인 옷차림, 외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방송국의 복장 규제입니다. 한국의 방송국들은 1990년대 말까지 출연자들의 복장을 엄격하게 규제하였습니다. 염색 머리, 남자 출연자의 귀고리 착용, 여자 출연자의 배꼽 노출 및 짧은 윗옷으로 인한 속살 노출, 찢어진 청바지 등 지금은 일상적인 많은 복장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간이 지나며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2010년대 초만 해도 배꼽이 드러나는 의상이나 짧은 치마가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정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지금도 문신은 방송에서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젊은이들은 노출이나 파격적인 옷차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경우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의상이나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을 하고 직장을 가면 “오늘 무슨 일 있어?”라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고 직장을 가면 “오늘 무슨 일 있어?”라고 걱정스럽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3월이 되면 ‘새내기 옷차림, 새내기 메이크업’과 같은 주제의 게시물들이 SNS에 올라옵니다. 여성이 외출을 할 때는 화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비스직의 경우 화장을 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크게 발전해서 지금은 ‘K-뷰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세계 3대 화장품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국 1위를 차지하였고, 화장품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피부 관리법이나 메이크업을 따라 하는 콘텐츠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K-뷰티의 특징은 빛나는 피부, 복잡하고 다양한 피부 관리법, 피부 건강과 보습, 미백을 강조하는 경향, 빠른 신제품 개발, 인삼, 마유, 달팽이 추출물과 같은 동양적이고 독특한 재료 등입니다. 특히 가격에 비해 질 좋은 화장품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의류 사이즈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XS, S, M, L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각각 44, 55, 66, 77과 같이 표시하기도 하고 85, 90, 95, 100과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XS, S, M, L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85, 90, 95, 100과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식 사이즈 분류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려고 하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사이즈 표시와 한국의 표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과 같이 피부색을 표현하는 화장품의 색 구분 역시 보통 ‘호수’라고 불리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13호, 21호, 23호, 25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수는 색상을, 뒤에 있는 수는 밝기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 체계는 한 대형 화장품 회사

에서 만든 색 체계로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본래 인종이 아주 다양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색상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21호, 23호 정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색상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밝은 피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피부색과 관계없이 21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편 한국에는 ‘프리사이즈’라고 불리는 하나의 사이즈로만 제작되어 판매되는 옷들이 많습니다. 프리사이즈라는 말은 사실 영어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옷이 하나의 사이즈로만 생산될 때 주로 프리사이즈로 표시합니다. ‘프리사이즈’라는 말을 들으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 또는 옷이 잘 늘어나서 누가 입어도 딱 맞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되고 있는 한국의 프리사이즈 옷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프리사이즈는 한국인들의 평균 체형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사이즈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S나 M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프리사이즈 옷을 살 때에는 실제 크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프리사이즈 옷이 마른 몸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도 하고, 이런 옷들이 사람들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옷이 유행을 하면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그 옷을 자주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운동복이 유행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운동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겨울에 긴 패딩 점퍼가 유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색깔 비슷한 디자인의 긴 패딩 점퍼를 어디나 입고 다닌다든지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산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외국에 여행을 간 한국인들을 볼 때 많이 볼 수 있는 복장인데요, 한국 중장년층이 최근에 많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등산복은 본래 등산과 같은 격렬한 야외 활동을 할 때 입는 옷인데,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고 움직이기 편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모두 적합해서, 한국에서는 일상에서 입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산, 도시, 영화관, 경기장,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외국의 멋진 명소에서 등산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는 한국인들을 보며 외국 사람들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행 짐을 가볍게 하고 외국의 날씨에 대응하기 좋은 옷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4.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의복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입니다.

한옥은 한국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옥 역시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재료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등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지붕의 재료가 무엇이나에 따라 나뉘는데, 지붕을 짚이나 갈대 같은 것으로 만들면 초가집이라고 하고 흙이나 시멘트 같은 것을 굳혀서 만든 ‘기와’로 지붕을 만들면 기와집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초가집과 기와집인데요, 지붕의 재료가 다른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부유한 집은 기와로 지붕을 만들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짚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한옥의 공간 구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식 때문에 남자가 주로 머무는 공간과 여자가 주로 머무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이때 집의 안주인, 그러니까 여자가 머무는 방을 ‘안방’이라고 불렀고, 집의 남자주인이 머물며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는 방을 ‘사랑방’이라 불렀습니다. 안방은 바깥사람은 물론이고 집안의 남자들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의 가장 안쪽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이라고 하는 큰 마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청은 나무로 된 바닥이 땅에서 떨어져 있어서 바닥 밑으로도 공기가 통하고 천정이 높으며 벽의 일부도 개방되어 있거나 개방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잘 통합니다. 이 때문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좋아서 과거에는 대청이 여름철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옥 지붕에 있는 처마도 한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처마는 지붕이 벽보다 좀 더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비나 바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집 안으로 적당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 줍니다. 또한 처마의 아름다운 선은 한옥의 멋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집의 크기나 모양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한옥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에 따라 지역별 특색이 날씨와 기온에 적합하게 발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지방에서는 외부의 찬 공기를 막고, 내부의 열을 잘 유지하기 위해 방을 두 줄로 배열하는 형태의 겹집 구조와 낮은 지붕의 한옥이 발달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남부 지방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방을 한 줄로 배열하는 홑집 구조와 마루 구조가 발달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에서는 지붕의 처마 끝에서 땅까지 둘러치는 ‘우데기’라는 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던 한옥은 현재에 와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가집의 경우는 1971년부터 한국 정부의 주도 하에 초가지붕을 시멘트 슬레이트지붕으로 바꾸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옥을 쉽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옥이 현대 한국인의 생활과 많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모든 집에 공통적으로 있는 한옥 고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방 시스템인 ‘온돌’입니다.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방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입니다. 온돌의 구조와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이때 발생한 열이 방바닥 밑으로 난 통로를 통해 방바닥 전체를 데우고 따뜻해진 방바닥은 다시 방안 전체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리고 통로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방바닥을 데운 열기는 굴뚝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아궁이에 가까운 바닥은 먼 바닥에 비해 따뜻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궁이에 가까운 바닥을 ‘아랫목’이라 부르고 먼 바닥을 ‘윗목’이라 부릅니다. 아랫목은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그 안에 밥이 담긴 밥그릇을 넣어서 밥을 따뜻하게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온돌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온돌은 효율이 높고 아주 경제적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불의 열기가 아궁이 위쪽에 놓인 솥의 물을 데우고 동시에 방바닥을 데웁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열에 의해 방바닥이 가열되고 여기에 저장된 열이 방 안에 온기를 전달해 줍니다. 또한 온돌은 건강에 좋습니다. 온돌에는 따뜻한 아랫목과 시원한 윗목이 모두 있기 때문에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 순환이 잘되고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원한 윗목은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았고, 덥고 건조한 곳에 두면 모양이 뒤틀리기 쉬운 나무로 만든 가구는 윗목에 두어 모양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돌의 재료가 되는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서양식의 주택 구조가 일반적이 된 것에 따라 온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의 온돌을 찾기 어려운 대신, 대부분의 집에서는 보일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합니다. 콘크리트의 방바닥 내부에 동 파이프를 설치한 뒤 보일러에서 덥힌 더운 물을 파이프 안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온돌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온돌 효과가 다시 부각되면서 서양식 침대에 돌을 얹고 이 돌을 덥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돌침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국의 찜질방 역시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옥은 이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옥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산한옥마을이나 전주한옥마을, 서울의 북촌, 경복궁, 덕수궁과 같은 고궁들이 그런 곳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시거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곳에 들러 한국의 전통 가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 한국의 주거 문화

의식주, 그러니까 옷과 음식, 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집은 좀 더 특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정이 크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과 같은 표현이 오래 전부터 널리 쓰이는 것도 이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에게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평생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평가할 때 살고 있는 아파트의 넓이나 가격, 브랜드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도시, 그중에서도 서울과 그 주변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은 집값에도 영향을 미쳐서 집값이 집 주변의 교육 환경에 따라, 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달리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좋지 않은 집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인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것은 한국이 땅이 좁고 사람이 많은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하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다른 형태의 집들에 비해 비교적 고급스럽고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다양한 시설과 아름다운 조경, 멋진 형태를 가진 고급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집을 빌리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외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집을 빌리는 방법의 일종인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라 불리는 많은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의 집을 빌린 뒤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맡겼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월 집주인에게 집을 빌린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월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집주인은 집을 살 때 부족한 돈을 집을 빌리는 사람을 통해 이자를 내지 않고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을 살 때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을 빌려주며 받은 많은 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비용 없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집주인에게 충분한 돈이 있지 않으면 다음 번에 집을 빌릴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이사를 하지 못하거나, 더 심한 경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도 한국의 집들은 거의 대부분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집들은 서양식이라고 해도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신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문 앞에 신발을 벗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보통 바닥이 집의 다른 곳보다 낮고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가구가 놓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와 같은 별도의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서양식의 집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닥이 아닌 의자에 앉거나 서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도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식탁, 소파, 침대 등과 같은 가구들도 현재는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상, 방석, 요 등을 활용해 바닥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바닥에 밥상을 펴놓고 그 위에 밥을 차린 뒤 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아 밥을 먹고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자는 식입니다. 거실 바닥에 누워 TV를 보거나 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바닥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도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거실에 소파가 있는데도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를 등받이로 삼아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이상한 풍경이면서 신기한 일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식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거실 바닥에 눕거나 앉아 TV를 보며 그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링크를 교재에 제시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자신의 몸을 대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닥에 누워 있는 한국 사람들을 신기해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침대 신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 1위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기’, ‘한국인은 못 참는 신발 신고 침대 눕기’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온돌 방식이 외국에 소개되면서 한국식 난방법이 다른 나라에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보일러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하니 어쩌면 곧 여러분들이 계신 나라에서도 한국의 온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 의복, 주거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옷이나 집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배웠으니 이제는 옷, 집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도 배워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옷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 어휘입니다. 한국에서는 위에 입는 옷을 ‘윗옷’ 또는 ‘윗도리, 상의’라고 합니다. 윗옷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칼라가 있고 목에

넥타이를 맬 수 있는 와이셔츠, ‘T’자 모양으로 생긴 티셔츠, 여자나 아이들이 입는 셔츠 모양의 옷인 블라우스, 털실로 두툼하게 짠 스웨터, 머리 부분을 덮는 모자가 달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옷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는 다른 나라의 말, 특히 영어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아서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더 쉽게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옷들은 소매라고 부르는, 팔을 넣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 ‘반팔’과 ‘긴팔’로 나뉩니다. 반팔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소매, 또는 그런 소매를 가진 옷을 말하고, 긴팔은 손목까지 내려오는 소매, 또는 그런 소매를 가진 옷을 말합니다. 여름철에 더울 때는 소매가 아예 없는 옷을 입기도 하는데 그런 옷은 ‘민소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입는 옷은 ‘아래옷’ 또는 ‘아랫도리, 하의’라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바지와 치마입니다. 치마는 바지와 달리 허리부터 다리까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죠. 바지는 역시 길이에 따라 무릎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바지를 반바지, 발목까지 오는 바지를 긴바지라고 부릅니다. 옷 중에는 윗옷과 아래옷이 붙어서 하나로 된 옷도 있는데 이것은 ‘원피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겉에 입는 옷을 ‘겉옷’, 겉옷의 안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을 ‘속옷’이라 하고, 옷의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을 ‘옷옷’ 또는 ‘외투’라고 합니다. ‘코트’, ‘패딩 점퍼’, ‘재킷’과 같은 옷들이 옷옷에 속합니다. 옷은 용도에 따라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는 교복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옷차림을 나타내는 말을 배워봅시다. 화면에 ‘세련되다, 깔끔하다, 활동적이다, 실용적이다, 파격적이다, 개성적이다, 복고풍이다’와 같은 말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옷차림에 대해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세련되다’는 어색하지 않게 잘 꾸며져 있다는 뜻입니다. “너 오늘 세련되게 입었다.”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옷차림이 잘 꾸며져 있다는 칭찬입니다. ‘깔끔하다’는 옷차림이 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옷이 아주 깔끔한데.”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다’는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뜻이고 ‘실용적이다’는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 같은 옷들이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지요. ‘파격적이다’는 정해져 있는 방식을 깨뜨리는 특징이 있다는 뜻이며, ‘개성적이다’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옷차림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미니스커트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파격적이고 개성적인 옷차림이라고 생각되었죠. ‘복고풍이다’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대에 1990년대나 2000년대의 옷차림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옷차림은 복고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택의 종류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을 알아봅시다. 주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것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도 아주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들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나눈 집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에 한국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빌라’인데, 한국에서 ‘빌라’는 보통 4층 이하의 한 건물 안에 여러 집이 함께 사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한 건물 안에 한 집만 사는 주택입니다. 그 외에 오피스텔도 있는데, 이것은 본래 간단하게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무실을 가리키는 말합니다. 사무실과 집의 기능을 겸하는 형태인데 요즘에는 주거 공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면 많이 살게 되는 주택의 한 종류로 원룸도 있습니다. 원룸은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 식당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집입니다. 비교

적 규모가 작지만 그만큼 집을 빌리는 데에 드는 돈이 적어서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제부터는 옷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은 옷을 사는 손님과 점원 사이의 대화입니다.

점원 :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것 있으세요?

손님 : 우선 둘러볼게요.

(잠시 후)

손님 : 이거 입어 봐도 돼요?

점원 : 네, 저쪽에서 입어 보세요. 사이즈 몇 입으세요?

손님 : 55요.

점원 : 그러면 55 사이즈로 드릴게요.

(잠시 후)

점원 :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로 하시겠어요?

손님 : 네, 그런데 새거로 주세요.

첫 문장에서는 점원이 손님에게 인사를 하며 어떤 물건을 찾는지 물어보죠. 보통 이때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원피스를 사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점원이 찾는 물건이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 주거나 물건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려고 하는 물건이 명확하지 않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직접 보면서 고르기 원하는 경우, 또는 점원이 옆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우선 둘러볼게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둘러보다’는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는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게를 둘러보던 손님이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거 입어 봐도 돼요?”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 보다’/‘-아 보다’는 ‘시험 삼아 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어 보다’는 시험 삼아 입다, ‘먹어 보다’는 시험 삼아 먹다, ‘살아 보다’는 시험 삼아 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도 되다’/‘-어도 되다’는 가능이나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입어 봐도 돼요?’라는 표현은 시험 삼아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나, 시험 삼아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옷을 파는 가게에서 옷을 직접 입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옷을 입어볼 수 없는 가게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입어 봐도 돼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입어 봐도 되는지 물어보자 점원이 친절하게 “저쪽에서 입어 보세요.”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을 알려 주네요. 그리고 옷을 입어 보려면 옷이 손님에게 맞아야 하니까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사이즈 몇 입으세요?” 이런 표현은 옷을 살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이즈를 나타내는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앞에서 배웠던 한국식 사이즈로 대답을 해 주면 좋겠죠. “55요.” 이렇게요.

이렇게 55 사이즈의 옷을 입어본 손님이 옷을 입고 나오자 점원이 칭찬을 합니다.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이거로 하시겠어요?” ‘-로 하다’/‘으로 하다’는 ‘그렇게 정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은 살 물건을 이것(이거)으로 정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뭔가를 사거나 주문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식당에서도 “디저트는 커피로 하시겠어요, 차로 하시겠어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

답은 “커피로 할게요.”와 같이 역시 ‘-로 하다’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대화로 돌아가면, 손님도 옷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네” 하고 그 옷을 사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런데 새거로 주세요.” 여기에서 ‘새거’는 ‘새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옷가게에서는 옷을 입어 보고 살 수 있다 보니 상점에서 판매하는 옷이라고 해도 이미 포장이 뜯어져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입어 봤던 옷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직 아무도 입지 않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새것을 사고 싶다면 새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새거로 주세요.”입니다.

7. 핵심 요약 및 정리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의복 문화와 주거 문화 그리고 의복이나 주거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표현을 배웠는데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저고리, 바지, 치마,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저고리에는 고름이 있고, 치마에는 치마끈, 바지에는 허리띠와 대넒이 있어 옷을 여미고 고정합니다. 한복의 종류는 성별, 나이, 신분,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의 한국인들은 주로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한복을 입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은 양장을 주로 입고 생활하며, 양장은 20세기 초 한국에 들어온 이후 꾸준히 변화를 거쳤습니다. 1960년대에는 미니스커트가 등장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유행의 중심이 이동하고 티셔츠와 청바지가 일상적인 것이 되며 젊은이 중심의 의복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옷차림이 다양하게 발전하며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출이나 파격적인 옷차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며, 의상이나 화장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독특한 의류 사이즈 분류와 화장품 색 분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알아두면 한국 물건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옷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이즈로만 생산되는 옷도 많은데 이런 옷을 ‘프리사이즈’라고 표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행하는 옷을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자주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복이나 긴 패딩 점퍼, 등산복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주거 문화로 넘어가 보면, 한국의 전통 가옥은 초가집, 기와집 등 종류가 다양하며, 안방, 사랑방의 구분, 대청과 처마의 존재 등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은 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크기나 구조가 다양했는데 현재는 일대에서 한옥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거의 모든 집에는 공통적으로 ‘온돌’이라 부르는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방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입니다. 현재는 서양식 건물에 맞게 보일러를 활용해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정이 크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평가할 때 살고 있는 아파트의 넓이나 가격, 브랜드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달리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

한 편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는 집을 빌리는 방법의 일종인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린 뒤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맡겼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인들은 온돌로 인해 실내에서 신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문 앞에 신발을 벗는 공간이 존재하며, 여전히 밥상, 방석, 요 등을 활용해 바닥에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바닥에 자신의 몸을 대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다.

옷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 어휘로는 윗옷(윗도리, 상의), 와이셔츠, 티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후드티, 반팔, 긴팔, 민소매, 아래옷(아랫도리, 하의), 바지, 치마, 반바지, 긴바지, 원피스, 겹옷, 속옷, 옷(외투), 코트, 패딩 점퍼, 재킷, 운동복, 교복 등을 배웠습니다. 옷차림을 나타내는 말로는 ‘세련되다, 깔끔하다, 활동적이다, 실용적이다, 파격적이다, 개성적이다, 복고풍이다’ 등을 배웠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 어휘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원룸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배운 한국어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원이 어떤 물건을 찾는지 물을 때 그냥 물건을 구경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둘러볼게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사려는 옷을 입어보고 싶다면 시험 삼아 해 보더라는 의미의 ‘-어 보다/-아 보다’와 가능이나 허락을 표현하는 ‘-어도 되다/-아도 되다’를 사용해서 “이거 입어 봐도 돼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옷을 살 때 “사이즈 몇 입으세요?”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55요.”와 같이 한국식 사이즈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물건이나 주문할 음식을 정했는지를 물을 때는 “이걸로 하시겠어요?”와 같이 ‘-로 하다/-으로 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질문을 사용합니다. 아직 아무도 입지 않거나 포장을 뜯지 않은 새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새거로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한국의 의복 문화와 주거 문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식주 중 의복과 주거를 뺀 나머지 하나, 음식 문화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지역별 대표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단령은 왕이 평소에 일을 할 때 입던 한복이다. (O/X)

정답: X

2. 한국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등산복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다. (O/X)

정답: O

3. 정부의 전통문화 보존 정책 덕분에, 현재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초가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O/X)

정답: X

4. 한국인은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O/X)

정답: O

선택형 (3분)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한복은 시대에 따른 변화 없이 늘 그 모습을 유지한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 ② 경복궁과 같은 옛 궁궐에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③ 1970년대 초에는 신식 유행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미니스커트 보급 운동을 펼쳤다.
- ④ 서비스직의 경우 여성 직원이 화장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직장이 많다.

정답: ②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한옥에서 지붕이 벽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인 처마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한옥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④ 한국 사람들은 편리함과 빠름을 중시하므로 밖에서 신발을 그대로 신고 침대에 눕는 것을 즐긴다.

정답: ④

단답형 (10분)

다음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단어로 적으세요.

1. 하나의 사이즈로만 제작되어 판매되는 옷의 사이즈 명칭은?

정답: 프리사이즈

2. 윗옷과 아래옷이 붙어서 하나로 된 옷은?

정답: 원피스

3. 불을 땀 열기로 방을 데우는 원리의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은?

정답: 온돌

4. 집주인에게 많은 돈을 맡기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돈을 찾아가는 방식의 집을 빌리는 한국의 제도는?

정답: 전세

5. ‘어색하지 않게 잘 꾸며져 있다’는 뜻의 단어는?

정답: 세련되다

6.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뜻의 단어는?

정답: 복고풍이다

7.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 식당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집은?

정답: 원룸

나. 토의 (30분)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는 유행이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행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국에서 옷을 사러 가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알아 봅시다.

■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김여진(2019. 12. 26.), 「‘프리’ 없는 ‘프리스이즈’ 옷, 다이어트 압박 부추겨」,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2498#home>>.

김영숙·김혜란·지문(2010), 「옛날 옷과 신분 제도」, 『조잘조잘 박물관에서 피어난 우리옷 이야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81812&cid=42949&categoryId=42949>>.

김용순, 「전세」,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1498>>.

김홍식, 「대청」,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835>>.

박경우·조인욱(2016), 『한국문화교실』, 보고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안방」,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상자』, <<https://www.nfm.go.kr/k-box/ui/anbang/introduce.do>>.

윤양노, 「한복」,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7251?pageType=search&keyword=%ED%95%9C%EB%B3%B5>>.

이민주, 「곤룡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6866?pageType=search&keyword=%EA%B3%A4%EB%A3%A1%ED%8F%AC>>.

이선이·이명순·백지윤(2019), 『오늘의 한국』(개정판), 한국문화사.

이정아(2022. 12. 23.), 「K-뷰티, 수입 1위 찍었다...일본인 사로잡은 '한국스러움」,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3000343>>.

장소원 외(2018), 『여행 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장지연(2019. 9. 9.), 「'프리'하지 않은 프리사이즈?... 여성복 사이즈 표기의 함정」, 『소비라이프』,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9>>.

정유진(2012. 12. 14.), 「슬레이트, 한때 부의 상징서 빈자 안식처로... 서울에 1만여동」,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1212142139395>>.

정유진(2016. 8. 23.), 「21호라는 편견」, 『ALLURE』,
<https://www.allurekorea.com/2016/08/23/%EB%82%B4-%ED%94%BC%EB%B6%80%EC%97%90-%EB%94%B1-%EB%A7%9E%EB%8A%94-%EC%9D%B8%EA%B8%B0-%EC%A0%88%EC%A0%95-%EB%B2%A0%EC%9D%B4%EC%8A%A4%EC%BB%AC%EB%9F%AC-21%ED%98%B8/>>.

필명리(2018. 4. 29.), 「외국학생 칼럼 ⑤ 한국의 화장 문화」, 『Story of Seoul』,
<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1>>.

한복진흥센터(2020. 10. 20.), 「[한복원정대 2탄] 한복은 다 똑같다?!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복.잘.알.되어봐요!」, 『한복진흥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nbokcenter&logNo=222120854770&categoryNo=21&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3&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

「한복」,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상자』, <https://www.nfm.go.kr/k-box/ui/hanbok/introduce.do>>.

한필원, 「대청」,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8297?pageType=search&keyword=%EB%8C%80%EC%B2%AD>>.

MSG(2020. 9. 18.), 「[라떼말이야] 입으면 민족반역자 취급 받았던, 60년대 미니스커트의 상륙 #라떼말이야 #MSG (MBC 150308 방송)」,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crNLRg-V6c&t=171s>>.

PD저널(1997. 8. 21.), 「쟁점토론-출연자 복장 규제 어떻게 볼것인가」,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

ELLE BEAUTY TEAM(2021. 6. 29.), 「What Is K-Beauty? He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ELLE』,
<https://www.elle.com/uk/beauty/skin/a25415/k-beauty-what-is-it-korean-beauty-10-step-beauty-cleansing-skincare/>>.

THE STRAITS TIMES(2016. 8. 11.), 「The draw of fast K-beauty」, 『THE STRAITS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lifestyle/fashion/the-draw-of-fast-k-beauty>>.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의 한국식 온돌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이슈량(2018. 2. 13.), 「한국의 온돌 제대로 즐기고 있는 평창 올림픽 외국 선수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XxNqAt668c>>.

<침대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영상>

오늘의집(2022. 12. 14.), 「한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 1위」,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9iZ50zjWUqU>>.

지식 브런치(2022. 8. 7.), 「집에서 신발을 신는 이유와 벗는 이유. 신발을 신는 나라가 많을까? 벗는 나라가 많을까?」,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qr4-ZVU0UI>>.

<5차시> 한국인의 의식주 (2) : 음식

■ 학습목표

1.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떡의 특징과 그와 관련이 있는 문화를 이해한다.
2.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을 이해한다.
3.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와 떡
3. 한국의 지역별 대표 음식
4.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
5. 음식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6.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옷, 집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들을 배워보고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중 김치와 떡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도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와 떡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국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거나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국 음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김치와 떡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배추, 무, 오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고추, 파, 마늘,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넣고 발효시켜서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96).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가 없었던 과거에는 채소를 저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과 섞어서 새로운 맛과 향기를 생성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개발된 한국 고유의 식품이 바로 김치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김치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재료의 종류, 국물이나 양념의 종류, 재료를 써는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한국의 김치 종류는 200종 이상이 된다고 보고된 적이 있지만 분류 방식에 따라, 추가되는 부재료나 젓갈 종류에 따라 계속 종류가 나뉠 수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우정사업본부 우표 정보).

다양한 종류의 김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추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추김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배추를 주재료로 하며, 무, 미나리, 마늘, 파, 생강 등 여러 가지 채소류와 소금, 고춧가루, 젓갈 등을 배합한 뒤 발효시켜 만듭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집에는 배추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배추김치는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먹는 김치입니다.

배추가 주재료가 되는 김치에는 보쌈김치도 있습니다. 개성지방의 대표적인 김치인 보쌈김치는 무와 배추에 여러 가지 양념을 한 뒤 이것을 넓은 배추 잎으로 보자기처럼 싸서 만듭니다. 속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담가, 먹을 때 편하고 맛과 그 모양새가 좋은 반면 손이 많이 가는 탓에 평소에 먹기보다는 잔치 때 주로 먹었습니다.

김치의 주재료로 배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추김치와 더불어 대표적인 김치인 깍두기는 무를 모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뒤 양념을 넣고 버무려 담급니다. 깍두기는 늦가을에서 이른 겨울 사이에 담그며 특히 곰탕, 갈비탕 등과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겨울철에 담그는 동치미는 무를 크게 썰거나 통째로 소금에 절인 뒤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부어 심심하게 만든 국물김치입니다. 떡과 함께 먹거나 술상 안주로도 좋고, 국물에 냉면이나 국수를 말아서 먹기도 합니다.

파를 주재료로 삼아 만드는 파김치도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파김치). 소금물에 절인 실파를 각종 양념을 넣고 버무려 만드는데,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잘 담급니다.

김치는 지역에 따라 맛과 재료, 만드는 방법 등이 다릅니다(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96).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고 날씨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빨리 시작되고 날씨가 추운 한국의 북쪽 지역은 기온이 낮아 김치가 쉽게 익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만 넣고 고춧가루도 많이 넣지 않아서 다른 지역의 김치보다 덜 짜고 덜 매운 편입니다. 서울은 오랫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서 다양한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김치 맛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이고 양념들을 다져서 넣기 때문에 보기에 깔끔합니다. 반면, 겨울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남쪽 지역은 기온이 높아 소금과 젓갈을 많이 넣고 고춧가루도 많이 넣어서 다른 지역보다 짜고 맵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김치가 빨리 익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과 젓갈을 많이 넣어 짠 편이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아주 매운 것이 특징입니다. 전라도 지역 역시 다른 지역보다 양념을 많이 넣어 맛이 강한 편이지만 전라도는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김치 또한 매우 맛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김치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한국민족대

백과사전』-김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일본의 옛 역사서에 있는 기록을 참고했을 때, 한반도의 사람들은 삼국시대에 이미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먹고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채소와 향신료를 섞은 김치가 있었으며 국물까지 먹는 국물형 김치가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1차 소금 절임 후 양념을 더해서 2차 발효를 유도하는 독창적인 양념형 김치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에 고추가 수입되면서 한국 김치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그 이전의 김치는 소금물에 담그거나 향신료를 이용하여 담갔는데, 1600년대부터 고추가 김치의 재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세기 접어들어 배추와 여러 가지 채소·젓갈·해물·고추까지 어우러진 김치가 유행하였고, 20세기 전후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의 종류가 바뀌면서 김치 양념을 앞 사이사이에 채워 넣는 통배추김치와 보쌈김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1950년대 이후 6.25전쟁을 거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과 물건들이 지역 사이를 오가는 일이 많아지고 쉬워지면서 각 지역의 독특한 김치는 많이 사라진 대신 김치의 조리법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김치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들의 필수 반찬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음식으로 식사를 할 때면 김치를 함께 먹습니다. 2021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일주일 평균 김치 섭취 횟수는 7.37회라고 합니다(송광섭 2022. 3. 25.).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김치를 먹는 것이죠.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인 1인당 하루 평균 김치 섭취량이 59.8g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섭취량도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라고 하니 한국인들의 김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치는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메커니즘을 다 규명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맛을 내는 데다 집안마다 담그는 방법도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 만들어도 항상 똑같지 않다 보니 입맛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먹던 김치 맛은 한국인에게 독특한 향수를 줍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발효음식 특성상 중독성도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더 생각나는 음식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김치는 한국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건강전문지 『Health』는 일본의 낫토, 인도의 렌틸콩,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요구르트와 함께 한국의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박경우·조인옥 2016:135-136). 김치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신경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TIME』지 역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팀의 실험결과를 인용해서 생균제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 그리스식 요구르트와 함께 김치를 소개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신문인 『Financial Times』도 2017년 2월 기사에서 의학 저널 『The Lancet』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장수 국가인 한국 사람들의 장수 비결로 김치를 꼽기도 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치).

김치는 원재료 자체가 이미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발효되는 과정에서 몸에 좋은 물질들이 더 늘어나며, 잘 숙성된 김치는 요구르트보다 유산균 함량이 많습니다. 채소가 주원료인 김치는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며 김치 안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과 유산균들은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비만과 암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김치는 어떤 음식과 먹어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권영민 외 2009:11).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서양 음식 등 다른 나라 음식을 먹을 때 김치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김치가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김치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날것과 불에 구운 것의 중간이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김치는 날것에도 맞고 구운 것에도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김치의 우수한 맛은 다채로운 양념의 조화 속에서 나옵니다. 김치에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를 비롯해서, 파, 마늘, 생강, 고추, 젓갈 등 각종 양념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묘한 배합이 맛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한편 한국에는 김치와 관련이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김장’입니다. 김장은 매년 11월 전후에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김장).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김장을 하는 날에는 삶은 돼지고기를 김장 김치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김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다 만들고 나면 항아리와 같은 저장 용기에 담은 뒤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냉장고의 성능이 좋아지고 김치 보관을 위한 김치 전용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김치를 좀 더 쉽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치 재료를 구하고 김치를 보관하는 일이 사계절 언제나 쉽게 가능해짐에 따라 김장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한 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서양 음식을 먹는 일이 늘어나고 외식 문화가 발달하며 식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김치 소비량이 줄다 보니 김장을 하는 경우도 줄고 김장을 할 때 만드는 김치의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치를 직접 만들지 않고 브랜드 상품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이러한 변화는 현대 한국인들의 삶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던 김치 만들기 노하우나 김장 문화가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쉽기도 합니다.

김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떡’도 있습니다. 떡은 그 역사가 무척 긴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곡식 가루를 찌거나 삶거나 기름에 지져 만드는 음식입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떡).

떡 역시 재료나 만드는 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뉩습니다. 한국의 떡은 잡곡을 원료로 하다가 쌀로 만드는 떡으로 바뀌었고, 쌀과 잡곡을 섞어 만드는 떡도 많아졌습니다.

떡을 만드는 방법으로 나누면 찐떡, 찰떡, 지진떡, 삶은떡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찐떡은 곡물을 가루로 만든 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시루’라는 그릇에 넣고 뜨거운 김으로 익혀서, 즉 찌서 만드는 떡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백설기, 송편 같은 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찰떡은 시루에 찌서 익힌 곡물 또는 곡물가루 반죽을 두드려서 만든 떡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인절미가 대표적이죠.

지진떡은 곡물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서 기름을 발라 익힌 떡으로, 최초의 떡은 지진떡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떡 중에는 전병, 화전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끓는 물에 삶아 건진 삶은떡이 있습니다. 비교적 늦게 발달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서 삶아 건져 가루로 된 재료를 묻힌 경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반도에서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떡은 원시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떡). 삼국시대의 무덤에서 떡을 찌는 그릇인 시루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곡식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떡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떡은 조선시대에 만

드는 방법이 확립되었는데, 이 시기의 자료를 보면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떡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한국에서 떡이 가장 발달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이 되면서 서양의 식품이나 조리법, 식생활 관습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고유의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떡 역시 서양식 과자가 전해지면서 덜 먹게 되었죠. 특히 방앗간이 늘어나면서 그전까지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떡을 사다가 먹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떡은 오래 전부터 각종 행사를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떡). 왕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혼례나 돌잔치, 회갑잔치에서도 상에 떡을 놓았으며, 제사를 지낼 때도 떡을 올렸습니다. 잔치 때에 올리는 떡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이기 위해서 상차림에 쓰이기도 했는데, 이때 일정한 모양으로 예쁘게 떡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가 일찍부터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절에 먹는 떡도 정해져 있는데, 설날에는 밥 대신 가래떡을 넣은 떡국을 먹으며 추석에는 솔잎을 넣고 찌는 송편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떡은 선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했을 때, 떡을 준비해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각각 방문하여 떡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한국의 관습입니다(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6:62). 다만, 최근에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변을 돌며 떡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나 돌잔치 후에도 축하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떡을 줍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찹쌀떡을 선물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유독 떡집이 많은 떡 골목이 있습니다. 종로구 낙원동 일대인데요, 이곳은 조선이 패망한 뒤에 궁궐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나와 낙원동 일대에 떡집을 차리면서 떡 골목이 되었다고 합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떡). 이곳에 있는 떡집들 중에는 70년, 90년 이상 된 오래된 가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떡집에도 프랜차이즈 경영이 도입되어 대형 업체들이 브랜드를 내걸고 전문 떡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유서 깊은 떡집들이 대를 이어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떡을 응용해 케이크로 만든 떡 케이크도 축하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초콜릿이나 잼, 치즈 등 새로운 재료를 넣어 만든 떡이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지역별 대표 음식

한국에는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바로 떠오르는, 지역별로 잘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두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 신당동의 떡볶이, 전주와 진주의 비빔밥, 수원인 갈비, 춘천의 닭갈비, 속초의 오징어 순대, 제주도의 옥돔구이, 서울 장충동의 족발 같은 것들입니다(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95).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서울 신당동에는 떡볶이 타운이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 가면 떡볶이 식당들이 길의 양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 초반에 신당동에 있었던 극장 앞에서 떡볶이와 간식거리를 팔던 가게에서 시작된 신당동의 떡볶이는 1970년대 후반에 여러 가게가 늘어난 골목을 이루게 되었고 198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대한민국 구석구석』-신당동 떡볶이 골목).

전주와 진주는 비빔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비빔밥은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나물, 고기

등을 얹고 참기름과 양념을 넣은 음식입니다(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2:66). 고소한 기름과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무척 맛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각종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식이 되고 있습니다.

비빔밥 중에서도 전주 지역에서 유명한 전주비빔밥은 전주의 특산물인 콩나물과 황포묵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주비빔밥). 진주 지역의 진주비빔밥은 숙주나물과 옥회가 들어가며 특별한 고추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진주비빔밥).

경기도 수원은 갈비로 유명합니다. 수원의 갈비는 간장이 아닌 소금으로 양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1940년대 수원 영동시장의 한 식당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수원갈비). 갈비 양념에 간장이 아닌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 자체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갈비의 크기가 다른 지역보다 큰 편이어서 수원의 갈비를 ‘왕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춘천의 닭갈비 역시 춘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닭갈비는 닭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 내어 도톰하고 넓게 편 후 양념과 고기를 그릇에 넣고 숙성시켜 고구마, 양배추, 떡볶이 떡, 깻잎 등과 함께 볶아 먹는 음식인데, 1960년대 말 숯불에 굽는 술안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닭갈비). 1970년대 들어 춘천의 명동 뒷골목을 중심으로 닭갈비집이 많이 생겼는데, 싸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휴가 나온 군인,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대학생갈비’, ‘서민갈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춘천의 중심가인 명동에는 닭갈비골목이 있는데, 150미터 정도 길이의 골목 양쪽에 닭갈비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대한민국 구석구석』-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최근에는 신당동떡볶이골목, 춘천닭갈비골목과 같이 하나의 음식이 유명한 지역 외에 여러 가지 음식 맛집들이 한 곳에 모인 미식거리의 인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상수동, 연남동, 경리단길, 샤로수길 등 다양한 미식거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음식 맛집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별 대표 음식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아서 한국인들도 각 지역의 음식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 한국의 지방별 향토 음식과 조리법 등이 궁금하다면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을 방문해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경우·조인옥 2016:140-141).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모든 향토음식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데 그 종류가 3,200개가 넘습니다.

4.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

한국 음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반찬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이선이·이명순·백지윤 2019:158). 한 나라의 음식 문화는 지리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된 산업이어서 곡식과 채소가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땅의 절반 이상은 산이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산나물과 해산물도 다양하게 생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의 재료가 다양한 만큼 음식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장, 김치, 젓갈 등의 발효식품이 발달하였고 채소류, 나물류, 해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반찬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각 계절에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

하여 만드는 ‘제철 음식’의 개념도 있습니다.

외국의 문화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음식 문화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준비된 음식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순서대로 나오는 서양 음식과 달리 한국 음식에서는 보통 상에 밥과 함께 반찬들이 한꺼번에 차려집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가득 찬 식탁을 만나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려진 반찬들은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반찬에 여러 사람의 수저가 닿게 되는데, 이것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이선아·이명순·백지윤 2019:159), 최근에는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음식을 각자의 그릇에 덜어 먹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에는 고기구이도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을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인데요, 한국의 고기구이는 식탁에서 직접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고기 요리와는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완제품’ 형태의 스테이크를 즐기기 때문에 생고기가 제공되고 그것을 직접 구워 먹는 한국의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고기구이와 함께 채소를 곁들여 먹는 독특한 방식으로 ‘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쌈’은 구운 고기를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쌈 문화는 그 역사가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이현미 2013. 7. 17.), 쌈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삼겹살이나 닭갈비 등을 다 구워 먹은 뒤, 밥, 김치, 각종 채소를 불판에 넣고 남은 고기를 넣은 뒤 볶아 볶음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볶음밥은 이전에 먹은 구운 고기와는 사뭇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점차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식당의 음식을 배달을 시켜 먹거나 만들어진 반찬을 구입해 먹으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사를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아침 식사를 판매하거나 밤 12시를 넘어 늦게까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는 24시간 문을 열기도 합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최근 더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식당의 메뉴를 한꺼번에 보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하면서 배달 음식은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 배달이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대학 캠퍼스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핵심입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와 같은 속담은 하찮은 찬물을 마시는 데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순서가 있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박경우·조인옥 2016:180). 이러한 속담은 한국의 식사 예절에서 어른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박경우·조인옥 2016:182-186, 이

선이·이명순·백지윤 2019:158-159).

우선, 식탁에서 여럿이 식사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앉은 뒤에 아랫사람이 앉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윗사람이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뒤에 아랫사람들이 수저를 듭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은 손에 들고 먹지 않으며 국 국물은 숟가락으로 떠 먹고, 그릇째 마시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반찬은 뒤적이지 않고 한 번에 집으며, 입 안에 든 음식이나 침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 속에 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음식이 입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말하지 않습니다. 씹는 소리와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지 않게 먹어야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들고 사용하지 않으며 먹다가 남은 생선뼈 등은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국그릇이나 밥그릇 뒤에 놓습니다. 식사 전후에 트림을 하거나 이를 쑤시는 것, 식사 도중에 코를 푸는 것, 물을 마실 때 양치질을 하는 것도 예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밥그릇에 수저를 꽂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윗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을 모시는 제사를 지낼 때 밥그릇에 수저를 꽂아둡니다.

식사는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간에 끝나도록 속도를 조절합니다. 만약 윗사람보다 먼저 식사가 끝났다면 숟가락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놓아 두었다가 윗사람의 식사가 끝나면 내려 놓습니다.

5. 음식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지역별 대표 음식,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에 대해 배워 보았는데,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워 봅시다.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맛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맛을 표현하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은 아주 다양하지만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소하다’는 볶은 깨, 참기름 등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처럼 맛이 좋다는 뜻입니다. 땅콩의 맛과 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콤하다’는 냄새나 맛이 약간 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볶이나 비빔밥의 맛이 매콤한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추나 겨자의 맛이 매운맛이고 매콤하다는 약한 매운맛을 나타냅니다. ‘얼큰하다’는 ‘꽤 매운맛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콤하다’보다는 매운맛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추나 고추장을 넣어 매운 찌개의 국물 같은 것을 얼큰하다고 표현합니다. ‘느끼하다’는 음식에 기름기가 많아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것을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달콤하다’는 입에 맞게 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이 적당한 음식을 달콤하다고 합니다.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것이 달콤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콤하다’는 조금 신맛이 있을 때 그 맛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레몬이나 식초가 대표적인 새콤한 음식입니다.

음식 이야기를 할 때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도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 쓰는 말을 알아봅시다.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에는 껍질이 있는 재료의 껍질을 떼어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껍질 같은 것을 떼어내는 것을 ‘벗기다’라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을 칼로 잘라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칼날을 아래로 누르면서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내는 것을 '썰다'라고 합니다. '무를 썰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질을 여러 번 해서 고기나 채소를 작게 만드는 것은 '다지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다져서 음식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나 생선 등의 속에 소금이나 식초, 설탕 따위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절이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배추김치를 만들 때에는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입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썰고 다지고 절여서 다양하게 재료를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을 알아보시다. '굽다'는 불에 익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겹살을 굽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끓이다'는 물 등의 액체를 뜨겁게 해서 뜨거워진 액체가 방울방울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끓이는 것이 필요하죠. '데치다'는 '물에 넣어 살짝 익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오래 두지 않고 살짝만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시금치 같은 것을 요리할 때 데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치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골고루 섞는 것을 말합니다. 시금치를 데친 뒤 양념을 넣고 무치면 시금치나물이라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볶다'는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멸치볶음', '감자볶음'과 같이 볶는 방법으로 만드는 반찬이 많습니다. '부치다'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전 등의 음식을 익혀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계란프라이 같은 것이 부쳐 만든 요리입니다. '삶다'는 물에 넣고 끓이는 것을 말합니다. 계란은 부쳐서 먹기도 하지만 통째로 삶아서 먹기도 하죠. '조리다'는 양념을 한 재료를 넣고 양념 맛이 충분히 속까지 들어가도록 국물이 조금 남을 때까지 끓이는 것을 말합니다. 딸기잼을 만들 때는 딸기와 물, 설탕을 넣고 물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계속 끓이는데, 이런 방식이 바로 '조리다'에 해당합니다. '튀기다'는 끓는 기름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프렌치프라이라고도 부르는 감자튀김, 새우튀김 같은 것이 튀겨서 만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찌다'는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떡 중에는 찌서 만든 것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식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은 식당 직원과 손님의 대화입니다.

직원 :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 네, 비빔밥 하나 주시는데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직원 : 비빔밥 하나, 고기 빼고요?

손님 : 네, 맞아요.

비빔밥과 함께 먹을 다른 음식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직원 : 된장찌개는 어떠세요?

값이싼 데다가 양도 많아요.

손님 : 그럼 된장찌개도 주문할게요.

직원 : 알겠습니다.

반찬이 더 필요하시면 벨을 눌러 주세요.

이 대화에서는 식당에 들어간 손님이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먼저 “주문하

시겠어요?” 하고 묻는데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문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죠. 직원의 요청에 손님은 “네, 비빔밥 하나 주시는데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라고 합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문하려는 음식의 이름과 양을 말하고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설렁탕 하나 주세요.”, “불고기 1인분 주세요.”처럼요. 또는 ‘주세요’를 사용하지 않고 ‘이다’를 사용해서 “설렁탕 하나요.”, “불고기 1인분이에요.”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재료가 있어서 그것을 음식에 넣지 않기를 원한다면 “~은 빼고 주세요/~는 빼고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카페모카 한 잔이요. 휘핑크림은 빼고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주문을 마치자 직원이 “비빔밥 하나, 고기 빼고요?” 하고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손님도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은 직원에게 “비빔밥과 함께 먹을 다른 음식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된장찌개는 어떠세요?”라며 된장찌개를 추천하네요. “~은 어떠세요/~는 어떠세요?”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처럼 음식을 권할 때 쓸 수도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은 어떠세요?”처럼 행동 등 다양한 것을 권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된장찌개를 권하면서 “값이 싼 데다가 양도 많아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쓴 ‘-(으)ㄴ 데다가/-는 데다가’는 앞에 오는 상태나 상황에 다른 상태나 상황을 더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된장찌개가 값이 싸고 양도 많다, 두 가지에 다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김치는 맛이 있는 데다가 몸에도 좋아요.”와 같이 다양한 문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점원의 말을 들은 손님이 된장찌개도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점원이 손님이 있는 자리를 떠나면서 “반찬이 더 필요하시면 벨을 눌러 주세요.”라고 말하죠. 한국에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식당에는 보통 테이블마다 호출벨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할 경우 호출벨을 눌러 쉽게 종업원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당은 물이나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이나 반찬을 처음에 준 것보다 더 먹을 경우에도 돈을 낼 필요는 없고, 벨을 눌러 종업원을 부른 뒤 더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대화를 들어봅시다.

A: 오늘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B: 고마워요.

뭐부터 할까요?

A: 밥은 있고, 단무지는 길게 썰어 놓은 걸로 사 놓았지요?

B: 네.

그리고 시금치, 당근, 고기, 계란도 준비했어요.

A: 그러면 우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무치고 당근은 채를 썰어서 볶아야 돼요.

B: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A: 고기는 다져서 프라이팬에 볶고 계란은 얇게 부쳐서 썰어야 돼요.

(잠시 후)

B: 다 했어요.

A: 이제 마지막으로 김 위에 밥과 준비한 재료를 놓고 말면 돼요.

김밥은 김 위에 밥을 펴 놓고 여러 가지 반찬을 그 위에 놓은 뒤 둘둘 감아 싸서 썰어 먹

는 음식입니다. 김밥은 한때는 여행을 갈 때와 같이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요즘 김밥은 편의점이나 분식점에서 쉽게 사서 빨리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대화는 이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대화입니다.

우선 A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자 B는 “뭐부터 할까요?” 하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단무지는 무를 절여 만드는 일본식 음식인데 김밥 재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는 보통 길게 썰어 놓은 것을 구입하는데, 이 때문에 A가 길게 썰어 놓은 걸로 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금치, 당근, 고기, 계란이 필요합니다. A는 먼저 시금치와 당근을 요리하는 법을 설명하는데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무치고 당근은 채를 썰어서 볶아야 돼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채를 썰다’라는 표현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늘고 길쭉하게 잘게 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어야 돼요/-아야 돼요.’는 ‘-어야/아야’ 앞에서 말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채를 썰어서 볶아야 돼요.”라고 하면 당근을 채를 썰어서 볶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돼요.”, “9시까지 거기에 도착을 해야 돼요.”와 같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는 고기는 다져서 프라이팬에 볶고 계란은 얇게 부쳐서 썰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단무지와 당근, 계란 모두 길쭉한 모양의 김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쭉한 모양으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김 위에 밥과 재료를 넣고 맵니다. ‘말다’는 종이나 김과 같이 얇고 넓적한 물건에 내용물을 넣고 돌돌 감아 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김 위에 밥과 준비한 재료를 넣고 말면 돼요.”라고 알려주는데요, ‘-면 되다/-으면 되다’는 ‘-면/으면’ 앞에서 말한 일이 괜찮다, 좋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9시까지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돼요.”와 같이 다양한 문장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및 정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기로 한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음식 문화 그리고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표현을 모두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는 배추, 무, 오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고추, 파, 마늘,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넣고 발효시켜서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배추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동치미, 파김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맛과 재료, 만드는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치는 조선시대에 고추가 수입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고 현재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들의 필수 반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몸에 좋고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울리며 다채로운 양념으로 깊은 맛을 냅니다. 한국에는 겨울에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김장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전통음식으로 떡이 있습니다. 떡은 곡식 가루를 찌거나 삶거나 기름에 지져 만드는 음식인데,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떡은 원시시대부터 먹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조선시대에 가장 발달했다가 서양식 과자가 들어오면서 덜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은 여전히 각종 행사를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잔치,

명절 때 먹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떡은 다양하게 변화하며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바로 떠오르는, 지역별로 잘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 신당동의 떡볶이, 전주와 진주의 비빔밥, 수원의 갈비, 춘천의 닭갈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독특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반찬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준비된 음식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으며, 이렇게 차려진 반찬들은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고기구이는 식탁에서 직접 불판에 구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구운 고기를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는 ‘쌈’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삼겹살이나 닭갈비 등을 다 구워 먹은 뒤에는 볶음밥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맛별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점차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식당, 배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발달해 외식 문화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핵심입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식사를 멈추는 것 모두 웃어른이 먼저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배운 것은 맛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소하다, 매콤하다, 얼큰하다, 느끼하다, 달콤하다, 새콤하다와 같은 단어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의 재료를 준비할 때 쓰는 말로, 벗기다, 썰다, 다지다, 절이다를 배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굽다, 끓이다, 데치다, 무치다, 볶다, 부치다, 삶다, 조리다, 튀기다, 찌다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배운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주문하려는 음식의 이름과 양을 말하고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재료가 있어서 그것을 음식에 넣지 않기를 원한다면 “~은 빼고 주세요/~는 빼고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 어떠세요/~는 어떠세요?”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으)ㄴ 데다가/-는 데다가’는 앞에 오는 상태나 상황에 다른 상태나 상황을 더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김치는 맛이 있는 데다가 몸에도 좋아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법을 설명할 때에는 ‘-어야 돼요/-아야 돼요.’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어야/아야’ 앞에서 말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면 되다/-으면 되다’는 ‘-면/으면’ 앞에서 말한 일이 괜찮다, 좋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음식을 즐긴다면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한국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관혼상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 제사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한국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국의 북쪽 지역 김치는 남쪽 지역 김치에 비해 맵고 짠 편이다. (O/X)

정답: X

2.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삼국시대에 이미 김치를 먹고 있었다. (O/X)

정답: O

3. 고추가 김치의 재료로 쓰이게 된 것은 1600년대의 일이다. (O/X)

정답: O

4. ‘매콤하다’는 ‘얼큰하다’보다 매운맛이 강할 때 사용한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5. 다음 중 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깍두기 ② 인절미 ③ 송편 ④ 백설기

정답 : ①

6. 한국의 지역과 지역별 대표 음식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전주 - 오징어 순대 ② 제주도 - 비빔밥 ③ 속초 - 옥돔구이 ④ 춘천 - 닭갈비

정답 : ④

7. 다음 중 음식과 그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땅콩 - 고소하다 ② 기름 - 얼큰하다 ③ 레몬 - 새콤하다 ④ 겨자 - 맵다

정답 : ②

단답형 (8분)

8. 무를 크게 썰거나 통째로 소금에 절인 뒤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부어 심심하게 만든 국물김치를 이르는 말은?

정답 : 동치미

9. 한국에서 매년 11월 전후에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은?

정답 : 김장

10. 다음 문장의 () 안에 들어갈 ‘입에 맞게 달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나는 케이크나 초콜릿처럼 ()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정답 : 달콤한/달콤하다

11. ‘시금치를 데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다음 문장의 () 안에 들어갈 표현은?

시금치 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금치를 () 돼요.

정답 : 데쳐야

나. 토의 (40분)

한국 음식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나 싫어하는 한국 음식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 과제 (50분)

수업 중에 언급된 한국 음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김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822>>.

「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196>>.

박경우·조인욱(2016), 『한국문화교실』, 보고서.

박재옥, 「진주비빔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4898>>.

박채린, 「김장」,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7405?pageType=search&keyword=%EA%B9%80%EC%9E%A5>>.

박채린, 「김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7408?pageType=search&keyword=%EA%B9%80%EC%B9%9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혜경, 「진주비빔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662>>.

송광섭(2022. 3. 25.), 「김치 있어야 밥 먹는 한국인?…이젠 밥심 대신 빵심」, 『매일경제신문』,
<<https://www.mk.co.kr/news/economy/10267496>>.

우정사업본부, 「한국의 전통음식 시리즈(첫번째 묶음)」, 『우표정보-한국우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93773&cid=59943&categoryId=59986>>.

윤덕인, 「떡」,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7542?pageType=search&keyword=%EB%96%A1>〉.
 이선이·이명순·백지윤(2019), 『오늘의 한국』(개정판), 한국문화사.
 이현미(2013. 7. 17.),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입맛 돋워주는 썸밥」,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717024258>〉.
 장소원 외(2018), 『여행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최영진, 「수원갈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7792?pageType=search&keyword=%EC%88%98%EC%9B%90%EA%B0%88%EB%B9%84>〉.
 「파김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544>〉.
 한국관광공사, 「신당동 떡볶이 골목」,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c64d5699-c7b2-4908-ae22-2dec5a317089&big_category=A02&mid_category=A0203&big_area=1〉.
 한국관광공사,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3eb0b703-0e5b-4ad4-8f47-3559591a5475&big_category=A02&mid_category=A0203&big_area=32〉.
 한복진, 「닭갈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943>〉.

<6차시> 한국인의 관혼상제

■ 학습목표

1.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식 풍습을 이해한다.
2. 한국의 장례 및 제사 문화를 이해한다.
3. 한국의 결혼식 및 문상 예절을 이해한다.
4. 관혼상제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식
3. 한국의 장례와 제사
4. 결혼식 및 문상 예절
5. 관혼상제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6.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4차시와 5차시, 두 시간에 걸쳐 사람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옷, 집,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혼상제와 관련이 있는 문화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관혼상제’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행사인 관례·혼례·상례·제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례는 성인식, 혼례는 결혼식, 상례는 장례식, 제례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현대인의 중요한 행사인 결혼과 장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식, 장례 문화와 제사 문화에 대해 배우고 결혼식 및 문상과 관련이 있는 예절도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장례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2.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식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가

사회적 인정을 받아 성적(性的)으로, 또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두 사람은 각각 하나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혼은 두 가족의 사회적인 결합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 취급을 했으며, 어린 나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어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결혼을 계기로 비로소 사회적 성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결혼은 이러한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함께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 나이가 고대에는 남자 30세, 여자 20세 정도였는데, 고려 중기부터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생겨 조선시대에는 남자 15세, 여자 14~20세 정도에 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이후에 결혼을 하는 나이는 다시 20~30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수도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 즉 남편 한 명이 아내 한 명만 두는 제도를 유지했지만 부분적으로 남편 한 명이 아내를 여럿 두거나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즉, ‘첩’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부터는 일부일처제가 완전히 확립되어 원칙적으로는 아내를 여럿 두거나 첩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도 시대에 따라 다른데,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나 가문의 생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중매혼이 도입되면서 자유롭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자유혼은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다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결혼식이 간단한 편이었는데, 조선시대에 결혼에 대한 규정이 많이 생기면서 결혼과 결혼식의 절차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전통 혼례’라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 중기에 생겼습니다. 이때는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한 후, 3일 만에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혼이 남성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의 ‘출가외인’이나 결혼한 여자가 시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하는 일을 가리키는 ‘시집살이’라는 말은 이 시기 여성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 서양의 문화가 유입되고 근대적인 여성 교육이 보급되면서 서양식 결혼식을 모방한 신식 결혼이 생기게 되었고 ‘예식장’이라는 공간도 이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신식 결혼은 1890년대 예배당 결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결혼 문화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혼 평균 연령이 1920년대에는 남자 21세, 여자 18세였는데, 2022년에는 남자 33.4세, 여자 31.1세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국의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결혼에 적합한 나이는 따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남자 53.0%, 여자 60.4%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릅니다. 1950년대 조사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를 정할 때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다’는 비율이 11.5%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6%~0%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한 후 당사자가 동의한다’는 사람의 비율도 1950년대에는 35.9% 수준이었고 1970년대 초반까지도 43.6%로 비교적 높았지만, 2000년대에는 4.2%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정한 후 부모님이 허락한다’는 방식은 1970년대 이후부터 가장 선호하는 선택 방식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결혼할 사람의 선택권이 강해지고 있지만, 부모의 생각도 동시에 중시하는 방식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혼과 재혼, 결혼하지 않고 한집에서 사는 동거,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딩크족 등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의 친척과 친구들, 선후배는 물론이고 양가의 부모님들과 친분이 있는 분들까지 모두 초청됩니다.

일반적인 현대의 결혼식은 우선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단상에 놓인 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신랑이 식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이라는 말과 함께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 앞으로 걸어갑니다. 서로 마주 선 신랑 신부는 맞절을 하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 결혼식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 또는 신랑이나 신부가 존경하는 분을 주례로 모시는데, 서약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주례사를 들은 후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신랑 신부 행진!”이라는 말과 함께 힘차게 행진을 하며 식장을 나갑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피로연장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피로연장으로 가지 않고 폐백을 드립니다. ‘폐백’은 신부가 처음으로 남편의 부모를 만날 때에 큰절을 하고 물건을 올리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대추·밤·술·안주·과일 등을 상에 올려 드립니다. 신랑과 신부는 준비된 폐백 상 앞에서 신랑의 부모님께 절을 하고 술을 따라 드립니다. 그러면 신랑의 부모는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가득 던져 주며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는 친척 어른들께도 인사를 드린 후 잘 살라는 덕담을 듣습니다. 폐백은 한국 전통 결혼식 절차 중 일부인데, 현대식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도 폐백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폐백 의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피로연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결혼식은 넓은 장소를 빌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결혼을 위해 혼수, 예물, 예단 등 다양한 것들을 마련해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및 가족들과 주고받는 풍습이 있어서 결혼에 드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처럼 결혼에 드는 비용은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규모가 큰 결혼식이 아닌 작은 규모의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교적 작은 공간에 적은 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식의 순서도 간단하게 해서 결혼식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은 보통 ‘스몰 웨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현재도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식을 ‘전통 혼례’라고 합니다. 본래 전통 혼례 방식은 전통 사회에서 각 집안의 어른들이 결혼을 의논하여 정하던 시기에 정해졌기 때문에, 처음 결혼 문제를 두 집안이 논의하는 것부터 결혼의 절차에 포함되었습니다. 전통 혼례는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의

혼,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 예물을 보내는 납폐, 혼례식을 올리는 친영,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현대의 전통 혼례는 보통 결혼식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친척이나 이웃이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치르면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문화는 현대의 축의금 및 조의금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요한 행사에 갈 때면 흰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전달하는데, 돌이나 결혼처럼 축하할 일에 내는 돈을 ‘축의금’이라고 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는 돈을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식당 입구 앞에 축의금을 내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여기에서 축의금을 내는 것으로 축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신랑이나 신부와 친한 경우 선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식에 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한국의 장례와 제사

다음으로 죽음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장례와 제사에 대해 알아보시다. ‘장례’는 좁은 의미로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람이 죽음에 이른 순간부터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다가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남아서 후손들을 돌본다고 생각하여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렀습니다.

한국에는 선사시대부터 일정한 형식을 가진 장례의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삼국시대에는 기록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집안에 관을 놓아두는 방을 만들며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날을 정하는 등의 정해진 형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길게는 6년까지 사찰에 두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유골을 매장하는 불교식 장례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중시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방식 역시 유교식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유교식 장례는 완전한 조선의 문화로 정착해서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해진 장례 절차는 일제강점기에도 없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졌죠. 광복 이후에도 복잡한 장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전통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하면서 상을 치르는 기간이 짧아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입는 옷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과 가정의 여러 행사들을 도와주는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가 장례와 관련이 있는 의식들을 대신해 주면서 장례 업무가 하나의 전문직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유교식 장례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19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기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보통 ‘3일장’이라고 해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뒤에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 사람을 모실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죽은 사람을 정해진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정해진 공간에 모시는 것을 ‘안치’라고 하는데, 안치가 끝나면 가족 및 장례관계자들과 함께 문상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빈소를 정하

고 장례 일정과 방식 등을 정합니다. 빈소가 정해지면 죽은 사람 및 죽은 사람의 가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알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빈소에 방문해 죽음을 슬퍼하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문상(조문)이라고 합니다. 빈소에서는 종교에 따라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립니다. 안치를 한 다음 날에는 죽은 사람을 관에 넣습니다. 이를 ‘입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입관을 한 다음날에는 죽은 사람의 관을 매장 또는 화장하기 위해 옮기는데 이를 ‘발인’이라고 합니다. 발인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매장이나 화장이 이루어집니다.

현대 한국의 장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장례의 절차가 간단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례 기간이 점점 짧아져 5일 또는 3일 안에 발인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장례 기간이 3일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고, 즉 죽음을 알리는 글을 받으면 빨리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장례 절차는 죽은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각 종교마다 서로 다른 장례의 순서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 제사를 지낼 수도, 예배나 미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문상을 하는 옷차림이나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현대 한국의 장례 문화는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빈소 앞에는 조의금을 전달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조의금 역시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문상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매장을 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죽은 사람을 모시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매장을 하는 장소는 가족이나 후손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장례 이후에 매장을 한 장소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화장과 같은 매장이 아닌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화장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던데 2005년에는 사망자의 50% 이상이 화장을 하였고, 2009년에는 사망자의 ⅔정도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사망자의 80% 이상이 화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이 늘어나면서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과 운반하는 수단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화장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납골을 선택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관을 운반할 때에는 ‘상여’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명의 사람이 관을 들어 운반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상여 대신 영구차,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서 관을 운반합니다.

죽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또 다른 의식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본래 제사는 조상과 함께 신에게도 지냈지만, 조선시대 이후 조상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중요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당제·사시제·이제·기일제·묘제, 차례·기제·시사·불천위제사·생일제사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렸지만, 요즘에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차례, 두 가지 종류가 주로 남아있

습니다. 기제사는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조상이 돌아가신 날 밤 12시 즈음에 지냅니다. 차례는 설이나 추석 아침에 지내며 기제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4대조까지의 조상 전체를 위해 지냅니다. 즉,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까지가 제사의 대상이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조상에게 드릴 음식을 마련하는데 제사 종류에 따라 상에 올리는 음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제사에는 밥과 국을 올리지만 차례에는 밥과 국 대신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과 같은 명절 음식을 올립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상을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놓을 때는 홀수로 놓습니다. 과일도 1개, 3개, 5개 등 홀수로 올리고 나물의 가짓수도 홀수로 맞춥니다. 과일은 제철과일을 쓰되 복숭아는 올리지 않습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빨간색이 들어가는 음식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할 때 고춧가루를 쓰지 않지요. 빨간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기 때문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있는 음식을 상에 놓으면 제사 때 조상의 혼이 집으로 오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파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향신료는 음식에 넣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추는 왕을, 밤과 감은 지위가 높은 관리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집안에 훌륭한 자손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탕을 사용합니다. 생선으로 만든 탕, 소고기로 만든 탕, 꿩이나 닭고기로 만든 탕이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꿩고기 같은 재료는 구하기가 어렵고 세 가지 탕을 모두 만들기가 번거롭기도 해서 세 가지 재료를 모두 넣은 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사상에 놓는 음식은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빵이나 바나나같이 원래는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집안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이라면 상에 놓기도 합니다.

4. 결혼식 및 문상 예절

한국인의 예절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사나 의식에 참석했을 때의 예절입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문상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또는 그들의 부모님이 ‘청첩장’이라고 불리는 초대장을 전달하며 손님을 초청하는데요, 이때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초대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결혼식장의 좌석이나 음식의 양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갈 때에는 깨끗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운동복이 유행이라고 해서 운동복을 입고 간다든지, 너무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식 날은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색인 흰색의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화려한 색의 옷을 입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해서 신부에게 가야 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인 만큼 늦게 도착해서 식

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시작된 후에 신랑과 신부는 무척 바쁘고 정신이 없으므로 가급적 결혼식 시작 20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신랑, 신부 및 두 사람의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면 식장 입구에 마련된 축의금 내는 곳에서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보통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내는 곳과 신랑 측에 축의금을 내는 곳이 구분되어 있는데, 본인을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 쪽에 축의금을 전달하면 됩니다. 축의금을 전할 때는 돈을 깨끗한 종으로 포장해 봉투에 넣는데, 흰색 봉투의 앞면에는 축하 문구를 적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신랑 측에 축의금을 낼 때는 ‘축결혼’이라고 쓰고,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낼 때는 ‘축혼인’이라고 썼지만, 최근에는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축성혼’이나 ‘축화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투에 뒷면에는 이 봉투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소속이나 직장 등을 쓰고 이름을 적습니다.

한국에서 축의금을 낼 때는 2, 4, 6, 8과 같은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즉, 2만원, 4만원 같은 금액을 축의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과 같은 액수를 내는데, 축의금의 금액은 보통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과 본인의 관계, 자신의 경제적 형편, 이전에 본인의 행사에서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이 낸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의 액수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결혼식 후에 먹는 식사 비용이 보통 3만 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축의금 역시 보통 3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나 신부에 대한 험담을 삼가야 합니다. 결혼식장의 모습이나 제공된 식사의 맛과 양 등을 평가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신랑이나 신부, 또는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짓궂은 농담을 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니 결혼식의 주인공을 불쾌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로연장에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할 때에도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형식을 갖추어 문상을 해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적절하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할 때에는 남녀 모두 흰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넥타이나 양말도 검은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없다면 회색이나 감색의 정장도 괜찮습니다. 양복 정장이 없으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느낌의 평상복을 입습니다. 빈소에서는 신발을 벗게 되므로 맨발이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이나 스타킹 등을 꼭 신고 화려한 장신구나 화장도 피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라면 가급적 빨리 장례식장으로 가서 빈소를 마련하는 일이나 장례 일정을 정하는 일 등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복장은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망한 사람이 친척이나 친지가 아니라면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빈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를 위한 의상을 갖추어 입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상을 할 때에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면 입구에 마련된, 문상을 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조객록’에 이름을 쓰고 분향소로 갑니다. 분향소에 가면 앞에는 죽은 사람의 사진이 있고 분향소 오른쪽에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서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눈으로 가볍게 인사를 한 다음, 죽은 사람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분향소에는 불에 태워 냄새를 내는 길다란 물건인 향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향소에 켜져

있는 초를 이용해 이 향에 불을 붙인 다음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불을 끈 후 향로에 꽂습니다. 이때는 입으로 향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분향소에 꽃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 꽃도 바칩니다. 오른손으로 준비된 꽃의 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 후 꽃을 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 후에는 죽은 사람의 사진을 향해 정중히 두 번 절합니다. 이때 절을 하는 방법 역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바로 선 상태에서 허리 위치에 손을 모으는데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모읍니다. 그런 다음 모은 손을 눈높이로 올렸다가 왼발을 뒤로 빼면서 모았던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한 뒤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는 서서 손을 모을 때 왼손이 위로 가도록 모읍니다. 그런 다음 모은 손을 눈높이로 올리고 손을 눈높이에 그대로 둔 채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한 뒤 일어납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상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종교 때문에 절을 하기 어려우면 죽은 사람의 사진을 향해 서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묵념을 하는 것으로 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절을 다 하고 나면 죽은 사람의 사진 앞에서 물러납니다. 이때는 바로 돌아서지 않고 두세 걸음 정도 뒷걸음질로 물러난 다음 돌아섭니다. 그 후,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절을 하고 분향소에서 나오면 되는데, 이때 가족들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상이 끝나면 다시 분향소 입구로 가서 미리 준비한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조의금 역시 하얀 봉투로 준비하며 앞에는 ‘근조, 조의’ 또는 ‘부의’라고 쓰고 뒷면에는 자신의 소속이나 직장과 이름을 씁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웃거나 크게 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 등을 남은 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5. 관혼상제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이제 한국의 관혼상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혼, 장례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워 봅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장면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과 장례 관련 표현을 아는 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혼과 관련이 있는 단어와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신랑, 신부라고 부르는데요, ‘신랑’은 막 결혼했거나 결혼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부’는 막 결혼했거나 결혼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혼주’라는 말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혼주’는 결혼의 중심이 되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보통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혼주가 됩니다.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손님은 ‘하객’이라고 부릅니다. 하객들은 결혼식을 지켜본 뒤 식이 끝나면 ‘피로연’에 참석합니다. ‘피로연’은 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하는 잔치를 말하며, 피로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피로연장’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결혼식장이 있는 건물 안에 마련된 별도의 식당이 피로연장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결혼하다’이지만 같은 의

미로 ‘혼인하다’, ‘혼례를 올리다’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혼례’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또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상투를 틀다’,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머리를 올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에 남자가 결혼을 한 이후에야 머리카락을 올려 상투를 틀고, 여자도 결혼을 한 이후에야 머리카락을 올려 비녀를 꽂을 수 있었던 데에서 온 표현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하하는 말로 “백년해로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백년해로 하다’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100년이 되도록 즐겁게 함께 늙어가라고 축복을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일, 또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을 ‘부고’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보통 ‘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인의 남은 가족들은 ‘유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고인의 자녀나 손주를 ‘상제’라고 하고 상제들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람을 ‘상주’라고 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첫째 아들이 상주가 되죠. 장례 이후에 고인을 묻는 곳, 모시는 곳을 ‘장지’라고 하며, 고인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로 가는 것을 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상이 가능한 것은 발인 전까지입니다.

한편, ‘생명이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 중 하나는 ‘죽다’인데요, 그 외에도 ‘사망하다’와 같은 말을 쓸 수 있으며, ‘돌아가다’와 같은 표현도 어미 ‘-시-’와 결합해 ‘돌아가시다’가 되어 윗사람의 죽음을 정중하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소천하다’를 ‘죽다’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족이 죽었을 때 유족의 입장에서 ‘상을 당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어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아유미 : 5월에 결혼한다면서요? 축하해요, 하진 씨.

하진 : 고마워요. 이게 청첩장이예요.

아유미 : 와, 예쁘네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어요.

하진 :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유미 씨는 제 결혼식에 올 수 있어요?

아유미 : 그럼요. 잊어버리지 않게 달력에 표시할게요.

이 대화에서는 하진과 아유미가 하진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아유미가 하진에게 “5월에 결혼한다면서요?”라고 물으며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죠. 여기에서 쓰인 ‘-는다면서/-다면서/-라면서’는 이미 들어서 아는 사실을 물어볼 때 쓰는 어미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가 온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서요?”와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미 씨는 하진의 결혼 소식을 확인하고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러자 하진은 고마움을 표시한 뒤 “이게 청첩장이예요.”라며 청첩장을 주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청첩장은 결혼과 같은 좋은 일에 올 하객을 초대하는 글입니다. 보통은 예쁘게 디자인된 종이에 결혼식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어 만들기 때문에 아유미 씨도 “와, 예쁘네요.”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유미씨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어요.”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겠-’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해 추측을 할 때 쓰는 어미입니다. 아유미 씨는 하진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준비 때문에 바쁠 것이라고 짐작한 것입니다. ‘-겠-’은 추측을 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두운 하늘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추측을 할 때는 “내일 비가 오겠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영수를 보고 지각할 것이라고 추측을 할 때는 “영수 지각하

겠어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유미 씨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하진 씨가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아유미 씨는 제 결혼식에 올 수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며 결혼식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앞서 결혼식 예절을 이야기할 때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식에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유미 씨도 대답합니다. “그럼요. 잊어버리지 않게 달력에 표시할게요.”

이번에는 문상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살펴봅시다. 영미와 우빈이 부고를 받고 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미 : 우빈 씨, 부고 메일 받았어요?

우빈 : 네, 주영 씨가 모친상을 당했어요.

영미 : 그러면 우리 문상을 가야 되네요. 발인이 언제예요?

우빈 : 내일이라고 들었어요.

영미 : 그럼 오늘 같이 문상을 갈까요?

우빈 : 네, 좋아요.

영미와 우빈에게 부고가 메일로 도착했나 봅니다. 영미가 “우빈 씨, 부고 메일 받았어요?”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요즘에는 상을 당했을 때 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로 부고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의 질문에 우빈은 “네, 주영 씨가 모친상을 당했어요.”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모친상’은 어머니의 죽음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상을 당하다’의 ‘상’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죽었는지를 말해주는 ‘모친상’과 같은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이때, 아버지의 죽음은 ‘부친상’, 할머니의 죽음은 ‘조모상’, 할아버지의 죽음은 ‘조부상’이라고 합니다. 주영 씨의 모친상 소식을 들은 영미는 “우리 문상을 가야 되네요.”라고 말해요. ‘-아야 되다/-어야 되다’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야/아야’ 앞에서 말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미가 문상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미는 발인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발인 전에만 문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인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빈이 “내일이라고 들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다고 들었다/-는다고 들었다/-라고 들었다’는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다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빈은 발인이 내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길에 비가 온다는 라디오 일기예보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비가 온다고 들었어.”와 같이 말하시면 됩니다.

우빈의 말을 들은 영미는 “그럼 오늘 같이 문상을 갈까요?”라며 문상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고 우빈도 찬성합니다.

6. 핵심 요약 및 정리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모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결혼 문화와 결혼식, 장례와 제사에 대해 배우고 결혼식 예절과 문상 예절에 대해 알아본 뒤 결혼식, 문상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표현을 배웠는데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결혼을 하는 나이, 아내와 남편의 수,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 결혼식을 치르는 방식 같은 것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결혼 문화는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결혼에 적합한 나이에 대한 의식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결혼할 사람의 선택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결혼 서약, 주례사, 신랑 신부 행진 등으로 구성되며, 결혼식 후에는 기념사진 촬영과 피로연, 그리고 전통 결혼식의 흔적인 폐백도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몰 웨딩이라 부르는 작은 규모의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전통 혼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친척이나 이웃이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치르면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문화는 결혼식의 축의금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축의금은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장례'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식 장례가 유행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식으로 통일되었으며 이것이 현대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을 치르는 기간이 짧아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입는 옷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보통 '3일장'을 치룹니다.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을 안치한 뒤 빈소와 장례 일정 및 방식을 선택하고 제사 또는 예배와 문상을 진행합니다. 안치 다음 날에는 입관이, 입관 다음 날에는 발인이 이어집니다. 발인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매장이나 화장이 이루어집니다.

현대 한국의 장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장례의 절차가 간단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장례 절차는 죽은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상을 할 때에는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또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모시는 방식으로 화장과 같은 매장이 아닌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화장을 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납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또다른 의식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요즘에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차례, 두 가지 종류가 주로 남아있습니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밤 12시 즈음에 지내는 제사이고, 차례는 설이나 추석 아침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상을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와 위치는 정해져 있으며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결혼식 예절과 문상 예절을 정리해 봅시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흰색 옷이나 화려한 옷은 피합니다. 식장에 늦게 도착하지 말아야 하며 식 시작 전에 도착해서 신랑, 신부와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의금은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데, 금액은 보통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과 본인의 관계, 자신의 경제적 형편, 이전에 본인의 행사에서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이 낸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 외에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나 신부, 결혼식장, 식사 등에 대한 험담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피로연장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할 때에도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조문을 할 때에는 남녀 모두 흰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넥타이나 양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이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이나 스타킹 등을 꼭 신고 화려한 장신구나 화장도 피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라면 가급적 빨리 장례식장으로 가서 일을 돕고, 친척이나 친지가 아니라면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빈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상을 할 때에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면 ‘조객록’에 이름을 쓰고 분향소로 갑니다. 분향소에서는 향을 사르고 꽃을 바칩니다. 그 후에는 죽은 사람의 사진을 향해 정중히 두 번 절합니다. 절을 다 하고 나면 죽은 사람의 사진 앞에서 물러난 뒤,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절을 하고 분향소에서 나오면 되는데, 이때 가족들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분향소 입구로 가서 미리 준비한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웃거나 크게 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 등을 남은 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다.

결혼과 관련이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신랑, 신부, 혼주, 하객, 피로연, 피로연장, 결혼하다, 혼인하다, 혼례를 올리다, 상투를 틀다, 머리를 올리다, 백년해로 하다와 같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는 부고, 고인, 유족, 상제, 상주, 장지, 발인, 죽다, 사망하다, 돌아가다, 소천하다, 상을 당하다와 같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결혼식 및 문상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먼저, ‘-는다면서/-다면서/-라면서’는 이미 들어서 아는 사실을 물어볼 때 쓰는 어미입니다. 그리고 ‘-겠-’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해 추측을 할 때 쓰는 어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아야 되다/-어야 되다’는 ‘-어야/아야’ 앞에서 말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고 들었다/-는다고 들었다/-라고 들었다’는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다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 제사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행사, 의식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 배워봅시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명절 음식과 풍속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명절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볼 것입니다. 명절은 매년 돌아오는 한국인들의 큰 행사이며 한국 문화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명절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국의 결혼식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스몰 웨딩이다. (O/X)

정답: X

2. 현대 한국의 장례 절차는 3일로 축소되었다. (O/X)

정답: O

3. 조문을 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는다. (O/X)

정답: O

4.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반드시 올린다. (O/X)

정답: X

선택형 (3분)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조선시대 중기부터 예식장이라는 공간이 생겨났다.
- ② 현대에는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③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부모님이 정한 후 당사자가 동의하는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④ 축의금의 액수는 2, 4, 6, 8 등의 숫자는 쓰지 않고,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과 같이 낸다.

정답: ④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조선시대에는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유교식으로 통일되었다.
- ② 현대에는 장례식장과 가정의 여러 행사들을 도와주는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가 하나의 전문직업이 되었다.
- ③ 현대 한국의 장례 문화는 정부에서 권고한 순서와 방식에 따르게 되면서, 종교에 따른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 ④ 요즘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차례가 주로 남아있다.

정답: ③

단답형 (10분)

다음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단어로 적으세요.

1.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가득 던져 주며 잘 살기를 기원하는 결혼식 행사는?

정답: 폐백

2. 돌이나 결혼처럼 축하할 일에 내는 돈은?

정답: 축의금

3. 장례에서 죽은 사람을 관에 넣는 일은?

정답: 입관

4. 결혼식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또는 그들의 부모님이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초대장은?

정답: 청첩장

5.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손님은?

정답: 하객

6. 100년이 되도록 즐겁게 함께 늙어가라고 축복으로,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

정답: 백년해로

7. 유족의 입장에서 가족이 죽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은?

정답: 상을 당하다

나. 토의 (30분)

한국의 결혼식에는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한데 녹아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 이러한 조화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국의 각 종교에 따른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시다.

■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김민희(2022. 12. 27.),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 결혼 인식 조사·연구 결과 발표」, 『문학뉴스』, <<http://www.mun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89>>.

김시덕, 「상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228?pageType=search&keyword=%EC%83%81%EB%A1%80>>.

김택규, 「제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1261>>.

박경우·조인옥(2016), 『한국문화교실』, 보고서.

보건복지부, 「문상 방법」, 『e하늘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portal/content/view.do?id=0301010000>>.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오정훈(2022. 10. 14.), 「결혼식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5」, 『Esquire』,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71577>>.

이선이·이명순·백지윤(2019), 『오늘의 한국』(개정판), 한국문화사.

「장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409>>.

장성실(2022. 10. 13.), 「결혼식 예절 수칙」, 『Allure』,
 <
https://www.allurekorea.com/2022/10/13/%ea%b2%b0%ed%98%bc%ec%8b%9d-%ec%98%88%ec%a0%88-%ec%88%98%ec%b9%99/?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장소원 외(2018), 『여행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천혜숙, 「혼인」,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540?pageType=search&keyword=%ED%98%BC%EC%9D%B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례」, 『에듀넷』,
 <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e96c0e72-9e53-4f6a-8548-f8e0ad807844&svc_clss_id=CLSS0000018001&contents_openapi=naverdic>.

함인희, 「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911>>.

<7차시> 한국의 명절

■ 학습목표

1.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한다.
2. 한국 사람들이 명절에 먹는 음식과 명절의 풍속을 이해한다.
3. 명절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의 대표적 명절, 설날과 추석
3. 명절 음식과 풍속
4. 명절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5.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행사인 결혼, 장례와 관련이 있는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년 돌아오는 한국인들의 큰 기념일인 명절과 관련이 있는 문화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명절이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 중에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유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설날과 추석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명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으며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도 배워볼 것입니다.

2. 한국의 대표적 명절, 설날과 추석

명절은 국가나 문화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또 명절에는 그것을 기념하며 즐겁게 보내기 위해 특별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어떤 명절이 있나요? 그날에 특별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날, 추석, 한식, 단오, 이 네 가지 명절을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명절 중에서 한식과 단오는 그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설날과 추석은 지금도 한국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권영민 외 2009:68). 동시에 설날은 한 해의 첫 번째 명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설). 정부와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의 업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이것을 기념합니다(권영민 외 2009:68).

설날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명절로 기념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설). 설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하게 하는 일들은 주로 고려시대 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에 하는 특별한 일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때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일이 ‘대보름’이라고 불리는 음력 1월 15일까지 계속 이어질 정도로 설날은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설). 지금도 설날은 한국의 큰 명절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은 많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자 신성한 날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겨울이라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서 여유 시간이 많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설날과 새해 첫 달에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특히, 한 해가 시작되는 신성한 기간에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고 신성한 명절이었던 설날은 한때 없어질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며 한국에는 음력설과 양력설, 이렇게 두 개의 설이 있었습니다. 음력설은 전통적인 음력을 따라 음력 1월 1일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고 양력설은 새롭게 도입된 양력을 따라 양력 1월 1일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둘을 서로 대비해서 음력설을 구정, 양력설을 신정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896년 1월 1일에 양력을 정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전통 명절인 설날, 즉 음력설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없애기 위해 일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음력설을 버리고 양력설을 기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기념하는 문화가 생겼고, 이러한 문화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설날을 두 번 기념하는 것이 낭비라고 하며 금지했고,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진 뒤에는 국제적으로 양력설을 기념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것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서 명절을 보내느라 설 때 한국인도 같이 쉬고 외국에서 모두 일을 하는 음력설에는 한국인도 쉬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무리 양력설을 강요해도 일반인들은 음력설을 명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음력설인 설날을 휴일로 정할 것이냐를 두고 오락가락하다가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설날에 붙이고 하루만 공휴일로 만드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이 되어서야 음력설은 다시 본래의 이름인 ‘설날’을 되찾고 휴일도 3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는 70년에서 80년 만에 설날을 되찾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양력설은 한때 휴일이 3일로 정해졌다가 2일로 줄어들었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휴일이 하루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3일의 휴일이 주어지는 설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설날은 예전의 설날처럼 신성한 날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한국 사람들은

예전처럼 음력 1월 15일까지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지도 않죠. 하지만 설날은 여전히 새로운 일 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날이자 한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로서 한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양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설날을 기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국의 대표 명절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 해 동안의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이선이·이명순·백지윤 2016:161). 또한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달의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추석).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8월의 가운데’라는 뜻입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가위). 추석은 농경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입니다(권영민 외 2009:67). 한국에서 음력 8월은 한 해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때이고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활하기에 알맞습니다. 추석은 이 가을의 보름날을 택해서 수확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조상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추석 역시 삼국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명절로,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기념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명절입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추석). 추석은 늘 1년에 있는 명절 중 최고의 명절로 여겨졌는데, 특히 수확을 하는 때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시기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 수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추석의 특성이 반영된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산업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추석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명절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4대 명절 중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로 단오와 한식이 있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더운 여름을 맞기 전, 씨 뿌리기가 끝난 후에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권영민 외 2009:71, 『한국민속대백과사전』-단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단오). 과거에는 풍년을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여자들은 나쁜 일을 막기 위해 창포라는 풀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으며, 수리취라는 풀의 잎을 넣어 만든 떡인 수리떡을 해 먹었습니다. 놀이로는 그네뛰기, 씨름, 탈춤 등을 함께 즐겼죠. 하지만 오늘날 단오는 일반 가정에서 기념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강릉단오제와 같은 전국적인 축제로 계승되어 명절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한식은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음력 2월이나 3월에 해당합니다(권영민 외 2009:71, 『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식). 한식이라는 이름은 이날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날은 조상의 무덤을 돌보는 성묘를 하고 무덤 주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기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대 명절 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념하는 명절로는 정월대보름이 있습니다(권영민 외 2009:71, 『한국민속대백과사전』-대보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을 맞아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기도 하고, 보름날 해뜨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한 해의 더위를 파는 ‘더위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위팔기는 아침에 사람을 보면 이름을 부른 뒤, 그 사람이 대답하면 곧 “내 더위 사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짚이나 솔잎, 나무들을

모아서 언덕 위에 쌓아 ‘달집’을 만들어서 태우면서 풍년을 비는 ‘달집태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놀이로는 연날리기, 쥐불놀이, 널뛰기 등을 즐깁니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 새벽에는 밤, 잣, 호두 등 견과류를 먹습니다. 이것을 ‘부럼’이라고 부르는데 부럼을 이로 깨뜨려 먹으면 안전하고 피부병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쌀, 보리, 조, 수수, 팥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물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대추, 밤, 감, 팥 등으로 약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단오와 한식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정월대보름의 경우에는 현대에도 음력 1월 15일에 부럼이나 오곡밥, 약밥을 먹으며 이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3. 명절 음식과 풍속

앞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언제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각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떡국입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설). 음식 문화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언급했던 음식인데, 떡의 한 종류인 가래떡이 기본 재료가 되는 요리입니다. 가래떡을 얇게 썰어 고기와 함께 국물에 넣고 끓여서 만듭니다. 요즘에는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해오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떡국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떡국에는 만두를 빚어 넣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 떡국을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만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죠(권영민 외 2009:68).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드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설날에 일부러 떡국을 먹지 않고 나이도 먹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떡국을 여러 그릇 먹어 빨리 나이를 먹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외에도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세시풍속이란 해마다 명절과 같은 일정한 때에 반복하는 고유의 습관을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매년 명절에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제사, 놀이 같은 것들은 모두 세시풍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의 세시풍속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설날 아침에는 모두 새 옷을 입습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설). 이렇게 설날에 입는 새 옷을 설빔이라 합니다. 설날에는 주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고, 여자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빔을 차려입고 나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지난 시간에 ‘제례’에 대해 배울 때 ‘차례’에 대해 배웠죠? 바로 그 차례를 지내는 대표적인 명절이 설날입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면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성묘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돌보는 일을 말하는데(『표준국어대사전』), 보통 묘가 자손들이 생활하는 곳과 먼 경우가 많고 명절에는 차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설날 당일이 아닌 설날 전후 다른 날에 성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례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자리를 정리하여 앉습니다(박경우·조인옥 2016:231).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새해 인사로 절을 올리고 형제들끼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며 새해 첫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설날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절을 세배라고

합니다. 이때 아랫사람은 절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같은 인사를 하고, 절을 받은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잘되기를 비는 말을 해 주며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돈을 줍니다. 이렇게 세배를 한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식사를 마친 뒤에는 친척과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직장 관계를 고려해서 회사원들은 회사 윗사람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기도 하죠.

세배를 하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박경우·조인옥 2016:231). 남자는 우선 왼손을 위로 해서 손을 잡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문상을 하며 절하는 법과는 조금 다르죠? 장례식장에서는 오른손이 위에 오도록 손을 잡았지만 세배를 할 때에는 왼손이 위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잡은 두 손을 눈높이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왼쪽 무릎부터 바닥을 짚고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허리를 굽히며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서 머리를 숙여요. 그 다음에는 다시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서 일어나 두 손을 눈높이에 올렸다가 내린 후 다시 눈짓으로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해서 손을 포갠 후 어깨 높이로 올립니다. 역시 문상을 가서 빈소에서 절을 할 때와는 손의 위치가 반대죠. 그 다음 남자와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순서로 무릎을 꿇고 몸을 45도 정도 굽혔다가 일어나서 두 발을 모읍니다. 그리고 올렸던 두 손을 내리고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또한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날에 즐기는 놀이로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는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모두가 집안에서도 하고 밖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하는 설날의 가장 잘 알려진 놀이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윷가락 네 개를 던져 놀이를 하는데, 윷가락은 둥글고 긴 나무조각을 반 자른 모양으로 한쪽은 편평하고 다른 쪽은 볼록합니다. 편을 갈라 윷을 던져 나온 수만큼 말이라고 불리는 작은 패를 움직여서 모든 패들이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편이 이겨요. 허공으로 던져진 윷이 나타내는 수는 윷이 바닥에서 멈췄을 때 편평한 면이 몇 개나 위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면 ‘도’, 둘이면 ‘개’, 셋이면 ‘걸’, 넷이면 ‘윷’, 넷 다 볼록한 면이 위로 와서 편평한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모’라고 합니다.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보드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척 재미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과 같은 명절에 즐기며 심지어는 명절이 아닐 때에도 즐기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젊은 성인 여자들이 널뛰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널뛰기). 널뛰기는 긴 널빤지의 한가운데 아래쪽에 짚단이나 가마니를 두고 널빤지 양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마주 보고 번갈아 뛰면서 즐기는 놀이입니다. 색색의 한복을 입고 여자들이 널을 뿔 때마다 휘날리는 치맛자락과 웃고름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게 보이죠.

그 외에도 설날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연날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연은 종이에 대나무 가지를 가로세로로 붙이고 실을 맨 다음 공중에 높이 날리는 장난감인데(『표준국어대사전』), 바람을 잘 만나면 아주 높이,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연을 만들어 날려본 경험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설날을 전후로 연을 많이 날리며 놀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자주는 아니지만 겨울에 강가나 공터에 나가면 연을 가지고 나와 날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추석에는 명절 음식으로 송편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송편’의 ‘송’은 소나무라는 뜻으로 송편을 찰 때 솔잎을 바닥에 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박경우·조인옥 2016:233). 쌀가루를 반죽해서 팥, 콩, 밤, 대추, 깨 같은 것을 속에 넣고 반달이나 조개 모양으로 모양을 만든 뒤 솔잎을 깔고 찌서 완성합니다. 이때 전통적으로 송편의 속에 넣는 팥, 콩, 밤, 대추

등은 모두 그해에 새로 수확한 것으로 마련해서 무척 맛이 있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추석).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맛이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추석 전날에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만드는데,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잘못 만들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송편을 예쁘게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도 설과 마찬가지로 새 옷을 입습니다(권영민 외 2009:67). 특히 추석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름옷에서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추석에 입는 새 옷은 추석빔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석에도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추석의 차례 방식이나 차례상의 음식은 설날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석은 수확을 하는 계절인 가을에 있기 때문에 차례 음식을 만들 때 그해에 새로 수확한 재료로 밥, 떡, 술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추석 역시 설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통 놀이를 즐겼습니다. 특히 추석 무렵은 좋은 계절이고 풍요로운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유쾌하고 한가해서 여러 놀이를 했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추석).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주로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하는 놀이였습니다.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놀이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추석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달이 솟을 무렵 젊은 여자들은 넓은 마당이나 잔디밭에 모여 손과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뛰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추석). 노래는 처음에는 느리다가 차츰 빨라져서 나중에는 마구 뛰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래 장단에 따라 춤동작도 정해졌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추석빔으로 곱게 단장한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추는 춤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현재 강강술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추석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줄다리기는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굵은 밧줄을 마주 잡고 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요즘에는 학교 운동회 같은 행사에서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설, 추석, 단오와 같은 명절에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이 센 사람들은 씨름으로 힘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각자 허리와 다리에 둘러서 묶은 천을 잡고 힘과 기술로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한국 고유의 놀이이자 운동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잔디밭이나 백사장에서 구경꾼에 둘러싸여 힘과 기술을 겨루었는데, 씨름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은 장사라 부르고 상을 주기도 했어요(박경우·조인옥 2016:233). 씨름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 지금도 추석이 되면 ‘추석장사씨름대회’라는 이름으로 큰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현재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 당일을 포함해 그 앞과 뒤, 하루씩을 더해 총 3일의 공식적인 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3일이나 휴일을 주는 명절은 설날과 추석뿐이고, 그 외의 명절은 모두 휴일이 하루씩만 주어지니 설날과 추석이 한국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겠죠? 설날이나 추석 전후에 주말이 바로 있다면 5일까지도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날이나 추석이 가까워지면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이 가까워지면 뉴스에서는 ‘민족대이동’이 큰 화제가 됩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차례와 성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전국의 모든 도로가 사람들로 몸살을 앓

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이동하면 고향을 가는 데에 평소보다 두 세 배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휴일 중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지를 예측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설날과 추석의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을 피하거나, 고향에 있는 집안 어른들이 다른 곳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러 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지면서 고향에 가지 않거나 아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설이나 추석을 반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명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 기간 전후에 받는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명절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이정수 2022. 9. 8.).

2021년 한국의 한 기업이 한국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2%인 832명이 명절증후군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명절증후군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시간 운전과 명절 음식 준비, 가족과 세대 간 갈등 등의 스트레스가 꼽혔습니다. 또한 2023년에 한 온라인 사이트가 성인 8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0.5%가 명절 스트레스가 크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김성훈 2023. 1. 21.).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명절 비용 지출을 지당한 사람이 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적어지는 개인의 자유시간(17.3%), 가족 간 의견 다툼(15.2%), 잔소리(12.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에 이렇게 명절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와 가족 제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박경우·조인옥 2016:236). 명절은 농사를 짓는 일이 주된 산업이던 사회,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서 생긴 풍습인데, 산업화 사회,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전통사회의 풍습을 따르면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 만들기, 차례 준비, 설거지, 청소 등과 같은 가사노동이 여성들에게 물리면서 여성들이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하면 가사노동 쏠림 현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성들에게 명절의 가사노동이 쏠리는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가 농사를 짓는 일이 중심이던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하면서 설날과 명절의 세시풍속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례나 성묘, 떡국 먹기, 송편 먹기 등과 같은 세시풍속은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민속놀이를 비롯한 다른 다양한 세시풍속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시풍속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즐기지 않으며 문화재가 되거나 지역축제가 되어 어렵게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명절 때에 한복을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고향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명절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의 세시풍속을 즐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다양한 세시풍속을 알리기 위해 민속박물관과 민속촌, 고궁 등에서는 명절 연휴 때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명절의 세시풍속을 즐겨보고 싶다면 명절 연휴에 이런 장소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음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전통적인 명절들의 의미가 약해지고 관련 세시

풍속들이 사라져가는 대신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공식 기념일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념일은 아니지만 이날이 되면 그에 맞는 기념 행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습처럼 이루어지는데요, 현대 한국의 청년문화와 상업 마케팅이 영향을 미쳐 만들어진 최근의 기념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명절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전하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와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는 여성이, 화이트데이에는 남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4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지는 않지만 블랙데이라고 하는데,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상대가 없었던 사람들이 자장면을 먹는 날입니다. 이 밖에도 숫자 3이 겹쳐 있다는 이유로 3월 3일은 삼겹살데이라고 하고, 11월 11일은 긴 막대 같은 숫자 1이 네 개 겹쳐 있다고 해서 막대 모양의 과자인 빼빼로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명절들은 관련 업계의 마케팅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를 만드는 제과회사에서 1997년에 정식 행사로 기획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의 상술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명절들이 젊은이들 스스로 만든 명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젊은이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4. 명절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명절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죄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을 죄다’, ‘추석을 죄다’처럼 ‘죄다’는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지내는 것을 죄다고 해요. “설날 잘 됐어?”, “추석 죄고 나면 뭐 할 거야?”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설날이나 추석을 설 때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부모를 뵙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성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고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귀경’이라고 부릅니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족대이동에 대해 뉴스를 전할 때 ‘귀성길’, ‘귀경길’, ‘귀성 행렬’, ‘귀경 행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귀성길’은 다른 지역(특히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하며, ‘귀경길’은 명절을 죄고 나서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또 귀성 행렬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귀경 행렬은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차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교통체증을 분석할 때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을 설 때는 차례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쓰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물품을 ‘제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수로 쓸 과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

지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요. 이처럼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를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는 선물과 제수로 쓸 각종 과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을 티브이를 통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설날에는 세배를 하는 아랫사람과 세배를 받는 윗사람 모두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좋은 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을 ‘덕담’이라고 하는데요, 덕담은 특히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덕담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내라는 의미로 하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상대의 형편과 소망에 맞춰서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복이나 평안을 비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뜻하는 말이고, ‘평안’은 ‘걱정이나 사고가 없음. 무사히 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배를 하는 아랫사람은 절을 한 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인사를 건네고, 세배를 받는 사람도 절을 받은 뒤에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와 같이 덕담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설날이나 추석의 세시풍속 중에는 복과 평안을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는 어린아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주머니에 곡식을 넣어 한복 고름에 매어줬는데요, 그 주머니를 ‘복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명절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배워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절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어 표현을 배워 봅시다.

영수 : 큰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뵈네요.

큰아버지 : 이게 얼마 만이지?

정말 반갑다.

영수 :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으니까 2년 만이네요.

큰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큰아버지 : 너도 2년 전 모습 그대로구나.

군대에서는 잘 지냈니?

영수 : 네.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군대 생활이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더라고요.

큰아버지 :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세배를 받아볼까?

영수 : (세배를 한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대화에서는 군대 생활을 마친 영수가 설날을 맞아 오랜만에 큰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성인 남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서 군인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영수도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큰아버지를 오랜만에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입니다. 영수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뵈네요.”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뵈다’, ‘뵈다’는 윗사람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아버지가 영수보다 윗사람이니까 “오랜만에 보네요.”라고 하지 않고 “오랜만에 뵈네요.”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서 영수가 큰아버지에게 말한 인사들은 모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난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명절에는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별일 없었죠?”,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와 같은 표현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의 인사를 받은 큰아버지는 “이게 얼마 만이지?”라고 물으면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 만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만이다’ 앞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삼 년 만이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질문에 영수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으니까 2년 만이네요.”라며 역시 “~ 만이다”를 사용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와 큰아버지는 서로 “큰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하셔요.”, “너도 2년 전 모습 그대로구나.”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생활에 대해 묻는 큰아버지에게 영수는 자신이 건강하게 잘 지냈다고 대답하며 “군대 생활이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더라고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고 보니까’는 어떤 행동이나 경험 후에 말하는 사람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고’ 앞에는 동사가 오고, ‘보니까’ 뒤에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영수가 말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더라고요.”는 영수가 시간이 지나는 경험을 한 후에 군대 생활이 좋은 경험이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후 “그럼 이제 세배를 받아볼까?”라는 큰아버지의 말과 함께 영수는 세배를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정우 : 스티븐, 오래간만이야.

우리 얼마 만이지?

스티븐 : 마지막으로 만난 게 5월이니까, 4개월 만에 만났네.

정우 : 곧 추석인데, 연휴에 뭘 할 거야?

스티븐 : 그냥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

정우 : 기숙사에서 혼자 있느니 차라리 나랑 같이 내 고향에 가지 않을래?

스티븐 : 그래도 괜찮을까?

정우 : 괜찮아. 가면 송편도 만들고 차례 지내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야.

스티븐 : 와, 정말 고마워.

기대하고 있을게.

이 대화에서 정우와 스티븐은 추석 연휴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추석 연휴는 한국의 가장 긴 휴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연휴의 계획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정우는 스티븐을 보자 “오래간만이야.”, “우리 얼마 만이지?”라며 인사를 합니다. 스티븐 역시 “우리 얼마 만이지?”라는 질문에 대해 “4개월 만에 만났네.”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쓰인 “~ 만에”는 앞의 대화에서 배운 “~ 만이다”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개월 만에 만났네.”라고 하면 4개월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우와 스티븐이 만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 만에’ 앞에도 역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정우는 “곧 추석인데, 연휴에 뭘 할 거야?”라며 스티븐에게 연휴 계획을 묻습니다. 스티븐

은 별다른 계획이 없는지 “그냥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정우가 “기숙사에서 혼자 있느니 차라리 나랑 같이 내 고향에 가지 않을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느니 차라리’라는 표현은 그 앞에 오는 사실과 뒤에 오는 사실이 둘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앞에 오는 사실보다는 뒤에 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 먼 곳까지 걸어가느니 차라리 버스를 타겠다.”와 같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먼 곳까지 걸어가는 것과 버스를 타는 것, 둘 다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걸아가는 것보다는 버스를 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차라리’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정우의 제안에 스티븐은 미안했는지 “그래도 괜찮을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정우는 괜찮다고 하며 “가면 송편도 만들고 차례 지내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네요. 외국인인 스티븐에게 한국의 명절 문화를 경험시켜 주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이런 정우의 말에 스티븐도 명절 계획을 바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 핵심 요약 및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고 각 명절의 음식과 풍속을 알아본 뒤 명절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설날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설날의 역사는 깊습니다. 전통적으로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자 신성한 날로 생각되었습니다. 설날은 한때 없어질 뻔했지만 1989년이 되어 다시 본래의 이름인 ‘설날’을 되찾고 휴일도 3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설날은 여전히 새로운 일 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날이자 한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로서 한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 해 동안의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 역시 그 역사가 길며 늘 1년에 있는 명절 중 최고의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산업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추석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추석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더운 여름을 맞이 전, 씨 뿌리기가 끝난 후에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풍년을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여자들은 나쁜 일을 막기 위해 창포라는 풀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으며, 수리취라는 풀의 잎을 넣어 만든 떡인 수리떡을 해 먹었습니다. 놀이로는 그네뛰기, 씨름, 탈춤 등을 함께 즐겼습니다.

한식은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음력 2월이나 3월에 해당합니다. 한식이라는 이름은 이날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날은 조상의 무덤을 돌보는 성묘를 하고 무덤 주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념하는 또 다른 명절로는 정월대보름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을 맞아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더위 팔기,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널뛰기, 부럼깨기 등의 풍속이 있습니다. 또 풍년을 기원

하기 위해서 오곡밥과 약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현대에도 음력 1월 15일에 부럼이나 오곡밥, 약밥을 먹으며 이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떡국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 떡국을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날의 세시풍속으로, 설날 아침에는 모두 새 옷, 설빔을 입습니다. 그 후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면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또 웃어른께 인사로 세배를 하면서 덕담과 세뱃돈을 나눕니다. 세배를 할 때, 남자는 우선 왼손을 위로 하여 손을 잡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손을 포개 후 절을 합니다. 또한 설날에는 전통적으로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과 같은 놀이를 즐겼습니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으로 송편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송편 안에는 올해 수확한 재료들을 넣었습니다. 또한 추석에는 추석빔을 입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차례 음식 역시 올해에 수확한 재료로 만듭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등을 즐겼습니다.

현재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 당일을 포함해 그 앞과 뒤, 하루씩을 더해 총 3일의 공식적인 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차례와 성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지면서 고향에 가지 않거나 아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명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명절 기간 전후에 받는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명절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사회가 변화하면서 설날과 명절의 세시풍속들은 많이 사라지고, 대신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인 기념일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전하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명절과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쇠다, 귀성, 귀경, 제수, 대목, 덕담, 복, 평안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명절과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 만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만이다’ 앞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그리고 ‘-고 보니까’는 어떤 행동이나 경험 후에 말하는 사람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고’ 앞에는 동사가 오고, ‘보니까’ 뒤에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 만에”는 앞에서 언급한 “~ 만이다”와 비슷한 표현인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만에’ 앞에도 역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옵니다. ‘-느니 차라리’라는 표현은 그 앞에 오는 사실과 뒤에 오는 사실이 둘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앞에 오는 사실보다는 뒤에 오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때 ‘차라리’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매년 기념하는 명절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여가 문화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은 여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 한국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여가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도 배워 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설날에 즐기는 한국의 전통 놀이로는 널뛰기가 있다. (O/X)

정답: O

2. 설날, 세배를 할 때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에 오도록 손을 잡는다. (O/X)

정답: O

3.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 당일을 포함해 총 5일의 휴일이 주어진다. (O/X)

정답: X

4.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쇠다’이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5.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겼던 명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설날 ② 추석 ③ 단오 ④ 제헌절

정답 : ④

6. 추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킨다.
- ②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추석을 기념했다.
- ③ 추석에는 다른 사람에게 더위를 파는 ‘더위팔기’를 한다.
- ④ 한 해의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정답 : ③

7. 한국의 명절과 명절에 먹는 음식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① 설날 - 오곡밥 ② 추석 - 송편 ③ 단오 - 떡국 ④ 정월대보름 - 수리떡

정답 : ②

단답형 (8분)

8. ‘설날’의 정확한 날짜는?

정답 : 음력 1월 1일

9. 정월대보름에 먹는 밤, 잣, 호두 등의 견과류를 일컫는 말은?

정답 : 부럼

10. 명절 기간 전후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말은?

정답 : 명절 증후군

11.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나타낼 때 쓰는, 다음 문장의 () 안에 들어갈 표현은?

졸업 후에 처음 뵈는 거니까 벌써 1년 ()이네요.

정답 : 만

나. 토의 (40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의 기념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다. 과제 (50분)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명절이 한국의 명절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봅시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명절 음식, 풍습에 대해 소개해 봅시다.

■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김명자, 「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4243?pageType=search&keyword=%EC%84%A4>>.

김명자, 「추석」,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5060?pageType=search&keyword=%EC%B6%94%EC%84%9D>>.

김명자, 「한가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5229?pageType=search&keyword=%ED%95%9C%EA%B0%80%EC%9C%84>>.

김성훈(2023. 1. 21.), 「시월드도, 전부치기도 아니었다…명절스트레스 1위 '이것'」,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99626?division=NAVER>>.

김선풍, 「단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3529?pageType=search&keyword=%EB%8B%A8%EC%98%A4>>.

김선풍, 「한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793>>.

「단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3638>>.

박경우·조인욱(2016), 『한국문화교실』, 보고서.

서영대, 「한식」,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5233?pageType=search&keyword=%ED%95%9C%EC%8B%9D>>.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8997>>.

이선이·이명순·백지윤(2019), 『오늘의 한국』(개정판), 한국문화사.

이정수(2022. 9. 8.), 「운전부터 상차림까지…추석 스트레스 명절증후군 피하려면」, 『메디파나 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1960&sch_cate=K>.

장소원 외(2018), 『여행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장주근, 「대보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413>>.

장주근, 「대보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3580?pageType=search&keyword=%EB%8C%80%EB%B3%B4%EB%A6%84>>.

장주근, 「넌뛰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413>>.

<8차시> 한국인의 여가

■ 학습목표

1.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얼마나 가지며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이해한다.
2. 여행과 문화생활, 게임과 인터넷 등 한국인의 여가 활동과 관련이 있는 문화를 이해한다.
3.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인의 여가 시간과 여가 문화
3. 여행과 문화생활
4.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5.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6.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년 돌아오는 한국인들의 큰 기념일인 명절과 관련이 있는 문화를 배워 보았습니다. 설날과 추석 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은 무엇이 있으며 명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의 여가 시간과 관련이 있는 문화를 배워 보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이란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은 직장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나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그러한 활동과 관련해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가 시간 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볼 것입니다.

2. 한국인의 여가 시간과 여가 문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나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여가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가지시나요? 여가 시간은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이니 일을 얼마나 하는지가 여가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가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한국인들은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냈죠.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역시 10년의 시간 동안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 5위가 된 것이라고 하니 놀랍죠. 실제로 2011년에는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2,13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의 근로시간 역시 OECD 평균보다는 200시간이 넘게 많은 것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적은 독일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일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 시간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에 대해 조사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일 평균 여가 시간은 3.8시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일 평균 여가 시간은 5.8시간입니다. 둘을 합하면 요일 평균 여가 시간은 4.4시간이 되죠.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4.4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 여가 시간 비율이 22%를 넘는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에 비하면 크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전에 비하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2018년부터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제도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추가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여가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까요?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들의 여가 활동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가 40.6%로 가장 많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가 20.4%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는 12.8%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여가 활동은 주로 개인의 즐거움과 휴식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역시 휴식활동, 그리고 취미오락활동이 많았습니다. 여가 시간에 휴식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5%로 1위를 차지했고, 취미오락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휴식활동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한 것은 TV 시청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산책 및 걷기, 모바일 콘텐츠 시청, 낮잠 순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오락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쇼핑/외식이었고,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 음주, 미용, 게임, 등산 순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일을 아주 중시하고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일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며 자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 휴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과 그와 관련이 있는 문화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가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뒤에서 살펴볼 여행과 문화생활, 인터

넷과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여가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등산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중 등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던 한국인 중장년층들의 등산복 사랑 역시 처음에는 등산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로스앤젤레스의 등산로를 가득 메운 이민 2세, 3세 재미 한국인들에 대해 다루며 “등산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등산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여가 문화가 얼마나 독특해 보이는지 알 수 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한국인에게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오락활동을 물었을 때 등산은 6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등산 사랑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질문을 바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취미오락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에는 등산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취미오락활동과 달리 등산은 꾸준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갤럽이 2019년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산이 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등산이 아닌 다른 취미가 1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등산을 여가 활동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등산이 여가 활동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한국에 산이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의 국토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3%나 됩니다. 또한 한국의 전체 국립공원 22개 중에서 산악 국립공원은 18개나 되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산이 많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지 주변에서 쉽게 산에 갈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을 즐길 수 있는 등산도 널리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수한 장비가 없어도 쉽게 즐길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는 점도 등산이 사랑을 받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산에 오를 때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역시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사랑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한국인의 독특한 여가 문화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방’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PC방’, ‘노래방’, ‘찜질방’, ‘DVD방’, ‘만화방’ 등 ‘00방’이라는 간판이 유난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시에 주로 존재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공간, 여가 활동의 공간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한국 사람들의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도시의 유흥가에는 노래방이 정말 많이 있죠. 노래방은 노래 반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정해진 요금을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입니다. 노래 반주 장치는 사실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어로 ‘가라오케’는 ‘노래가 없는 오케스트라’라는 뜻으로 노래 없이 반주만 녹음된 테이프나 디스크 또는 그 연주 장치를 말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연주 장치가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술집에서 돈을 내고 녹음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

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 부르기가 인기를 얻자 1990년 무렵부터는 동영상을 배경으로 노래 가사와 반주가 화면에 함께 나오는 장치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원하는 노래의 번호를 누르면 해당 노래의 가수가 공연하는 화면이 펼쳐지고, 가수들이 부른 원곡의 반주와 비슷한 수준의 반주가 나오며, 매월 신곡이 추가되고 애창곡의 순위가 발표되는 등 한층 발전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방과 노래 반주 장치가 발전하게 된 것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흥겨운 파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신입생을 소개하는 자리나 회사에서의 단체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노래 한 곡씩을 부르곤 하죠. 자기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것을 요청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이 있을 때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 노래방을 자주 찾습니다. 이처럼 노래방이 인기를 얻다 보니 여가 생활에서 노래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 활동 중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오락활동을 묻는 질문에서 노래방 가기가 등산하기를 제치고 6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2019년, 2020년에도 등산에 이어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에 존재하는 노래방이 30,291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래방은 한국의 빼놓을 수 없는 유흥 문화 공간이자 여가 활동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거주하는 외국에도 노래방이 활성화되어 누구나 고국의 최신곡을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한국의 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인기곡들이 내장된 노래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노래방에서 자신의 노래 솜씨를 뽐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을 비롯한 방 문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노래방, PC방 등 각종 ‘방’들은 영업을 금지되거나 제한적인 영업만 허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노래방, PC방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노래방, PC방 등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 활동 중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오락활동을 물었을 때 응답자 중 11.4%만이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8년 31.3%, 2019년 28.1%, 2020년 28.4%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래방, PC방 등 여러 종류의 ‘방’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방’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노래방이 이전과 같이 여가 문화에서 큰 비중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여가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개인 중심의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보면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6%가 ‘혼자서’라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위인 ‘가족과 함께(28.8%)’의 두 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특히 연령대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15~19세에서 ‘혼자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76%, 20대에서 ‘혼자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80.3%로, 주로 젊은 사람들이 혼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사람의 수에 따라 응답자를 나누어 보면 1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 즉 혼자 사는 사람들 중 ‘혼자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90.8%에 달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가 활동의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외식을 하는 혼밥,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 등 예전에는 주로 여럿이 함께 하던 활동들을 혼자서 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의 경우에도 여럿이 함께 가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노래방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에 적합한 코인 노래방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반주 기계가 있는 노래방을 말하는데, 방 하나는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며 동전의 액수로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수가 정해지므로 혼자 가서 짧게 원하는 노래 몇 곡만 부르고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여행과 문화생활

이제부터는 여가 활동의 종류별로 한국인들의 여가 활동과 여가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여행’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행은 ‘여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가 활동의 하나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도 바로 여행이고, 유학이나 취업과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된 외국인들이 꼭 한 번은 시도하게 되는 여가 활동도 바로 여행입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여행지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는 경치가 좋은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문화유적이 있는 곳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이죠. 또한 한국에는 다양한 지역 축제가 발달해 있는데 지역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주로 여름과 겨울에 있다 보니 온천이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치가 좋은 자연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치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여행지로는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등 셀 수 없이 많은 곳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국내외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는 아마 제주도일 것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경치가 아주 아름다우며 겨울에도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날이 드문, 따뜻한 휴양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화산지형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세계 최고 규모의 용암 동굴인 만장굴, 아름다운 숲을 즐길 수 있는 비자림과 사려니숲길,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섭지코지, 아름다운 해안을 볼 수 있는 용머리해안과 월정리해변, 주상절리대, 제주 3대 폭포인 정방폭포, 천지연 폭포, 천제연 폭포,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이면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과 그 정상에 있는 백록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악산은 한국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가장 유명한 산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산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도 놓치지 않고 1위를 한 산이기도 합니다. 설악산은 한국 최초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며, 가장 높은 봉우리인 대청봉에서는 동해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자연 석굴인 금강굴, 혼자 밀어도 여럿이 밀어도 똑같이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다는 흔들바위, 동양에서 가장 큰 돌산이라는 울산바위,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비룡폭포 등이 있으며, 특히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어 꼭 등산을 하지 않아도 설악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세 개 도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입니다. 앞서 설악산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조사에서 늘 2위를 차지하는 산이기도 하죠. 면적이 넓은 만큼 많은 봉우리와 계곡, 폭포 등 다양한 경치를 보여주며, 지리산을 따라 남해로 이어지는 섬진강의 모습도 선사합니다. 지리산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쌍계사 등 유서 깊은 절과 그곳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로 문화유적이 있는 곳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문화유적이 많은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역시 수도인 서울과 함께 경주, 부여 등 다양한 도시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서울에는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과 같은 조선 시대의 궁궐과 동대문, 남대문 등 옛 서울의 관문 등을 비롯해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는 이런 문화재들 외에도 여의도, 명동, 대학로, 홍대, 이태원, 청계천, 롯데월드타워 등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적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이 풍부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로, 과거 천 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경주를 방문하면 신라 시대의 많은 문화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역사유적지구는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국보인 다보탑과 석가탑을 볼 수 있는 불국사,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인공석굴인 석굴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시설인 첨성대, 신라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대릉원 등이 모두 경주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는 다양한 지역 축제가 발달해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지역 축제에 참여한 사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3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축제는 관광의 대상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의 체험 학습 공간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지역 축제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꼽기는 참 어렵는데요, 그래도 그 중 유명한 것 몇 가지를 꼽자면 진해 군항제, 강릉 단오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벚꽃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봄축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군항도시 중 하나인 진해에서 열리는 축제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인데 3월 말에서 4월 초에 10일간 진행됩니다. 군악대 취주악, 의장대 시범 등을 선보이는 개막식,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대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벚꽃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해군진해기지, 해군사관학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 축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해를 찾습니다.

강릉단오제는 명절에 대해 배울 때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단오의 세시풍속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축제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음력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 정도에 걸쳐 진행되는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역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단오에 신에게 올리는 제사인 단오제례, 그리고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는 단오굿, 노비들이 하던 탈놀이인 관노가면극, 이렇게 과거의 풍습을 이어가는 행사 외에도 다양

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1월에 열리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형 축제입니다. 산천어얼음낚시대회를 중심으로 얼음축구대회, 빙상경기대회 등 얼음낚시와 빙상경기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경치가 좋은 곳, 문화유적이 있는 곳, 지역 축제가 열리는 곳 등을 여행하며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보 여행과 캠핑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보 여행은 걸어서 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지역별로 걷기 좋은 길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도보 여행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산책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도보 여행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올레길, 한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산인 지리산 주변을 도는 약 300KM의 긴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캠핑은 산이나 들, 바닷가 등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2019년 538만명, 2020년 689만명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7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처럼 여가 시간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캠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야외에서 생활하는 오토캠핑, 고급스럽고 편리한 물건들을 갖추어 놓고 야외에서 생활하는 글램핑 등 다양한 캠핑 방식들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행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의 형태가 크게 변화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 축제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지역 축제 참가가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지난 1년 간 한 번 이상 참여한 관광활동을 묻는 질문에서 지역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38.7%, 39.1%의 비율을 차지했고, 2020년에도 25.8%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에는 7.1%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온천이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역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방역을 위해 마스크가 져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적은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긴다는 사람은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여행과 함께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문화생활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란,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나 공연 등을 즐기는 생활을 말합니다. 영화, 연극, 무용 공연, 음악 연주회 등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시회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작품이나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도 문화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가 활동에서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미술 활동 등과 같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예술 작품이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것을 더 많이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에서 예술 작품이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것 역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특히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문화생활이 대부분 영화 관람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영화

번 이상 참여했다고 대답했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휴식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6.6%가 모바일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여가 활동의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웹서핑은 물론이고, 모바일 메신저 사용, 인터넷 방송 시청, SNS 사용, 게임, 드라마나 영화 보기, 음악 감상, 쇼핑, 웹소설과 웹툰 읽기, TV 시청, 인터넷 강의 듣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나 음악을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과거에는 TV나 영화관, 오디오, 사진기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던 여가 활동들인데 이것들이 모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여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직접 만나는 대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경우 2022년 8월 사용자 수가 4,319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22년 한국의 인구가 5,163만 명에 못 미쳤으니 전체 한국 인구의 8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한 달 중 26.74일 동안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카카오톡 사용 시간은 12.28시간에 달했다고 하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해서 문자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나 음성 통화를 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문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자 대화는 필요한 내용만 바로 전달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말로는 쉽게 하기 힘든 표현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모티콘이나 사진, 동영상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에 재미를 더할 수도 있어서 문자 대화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로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지고 음성 통화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일이 줄어들면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같은 OTT,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대체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집 밖의 특정한 공간에서 영화 관람,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OTT를 통해 영화를 관람하거나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연 실황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문화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이루어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가 최근 3개월 이내에 OTT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OTT 서비스 이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문화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생활이 기존의 문화생활을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OTT,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생활이 예전과 같이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SNS 사용인데, 특히 10대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SNS는 인터넷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과소비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SNS의 단점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여가 활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은 한국의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대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인터넷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인터넷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어디에서는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것이 쉬워지면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이 이스포츠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프로게이머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생의 장래 희망에서 프로게이머가 7위를 차지했으며 남학생들의 장래 희망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온라인게임의 인기는 한국의 PC방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PC방은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돈을 내고 컴퓨터로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보통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PC방이 발달하게 된 것은 온라인게임의 인기 때문인데요, 1998년 만들어진 미국 블리자드사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는 아직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기 전이어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찾으면서 PC방은 젊은이들의 오락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PC방에서는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PC방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장비와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음료 등을 갖추고 있는 PC방들이 많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PC방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의 PC방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인의 여가 생활 및 여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서 멋진 경치이나 문화유적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눈으로 본 장면의 아름다움이나 그것을 보며 느낀 기분을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에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먼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멋진 경치를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같다’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실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울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절경이다, 장관이다, 빼어나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절경이다’의 ‘절경’은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경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치를 보고 “절경이다.”라고 말한다면 최고로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다’의 ‘장관’은 훌륭하며 규모가 큰 광경을 말합니다. 즉 ‘장관이다’는 규모가 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빼어나다’는 여럿 가운데에서도 뚜렷하게 뛰어나다는 뜻을 가집니다. “경치가 빼어나다.”라는 말은 경치

가 다른 곳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표현이죠. ‘빼어나다’는 경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얼굴이 빼어나다”라고 하거나, 노래 솜씨가 훌륭한 사람에게 “노래 솜씨가 빼어나다”라고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퍼져서 드러나 있을 때 그것을 ‘끝없이 펼쳐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있을 때,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줄지어 서 있다’와 같은 표현은 어떤 것이 줄을 이루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나무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어 서 있을 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한 꽃이나 나무와 같은 것들이 많아서 공간에 꽂들어차 있을 때는 ‘꽃으로 가득하다’, ‘나무로 가득하다’와 같이 ‘-로 가득하다/-으로 가득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치 외에 문화유적의 모습 역시 다양한 한국어 표현과 어휘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의 모습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림’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다’는 ‘자연과 잘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들은 주변의 자연과 경치를 생각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한국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적이다’는 ‘한국적인 옷, 한국적인 음식, 한국적인 얼굴’처럼 한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풍성하고 큰 문화유적을 보았을 때는 ‘웅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거대하다’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유적은 오래된 것의 멋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오래된 것의 멋을 보여주는 유적은 ‘고풍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준이 높고 훌륭하며 아름답다’는 뜻의 ‘우아하다’ 역시 유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편,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나 멋진 유적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어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보았을 때 느낀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와 표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상적이다’는 ‘마음속에 느낌이 강하게 남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떤 경치나 유적을 보았을 때 강한 느낌을 받았다면 “설악산의 경치는 정말 인상적이야.”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다’는 ‘큰 느낌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치나 유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만큼 큰 느낌을 받았을 때 ‘감동적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산 위에 올랐을 때처럼 넓게 펼쳐진 경치를 보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가슴이 뻥 뚫리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힌 것 없이 잘 통하는 느낌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원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 때는 ‘기분이 상쾌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진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머리가 맑아지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다’는 ‘머릿속이 흐리지 않고 깨끗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나 유적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마음이 차분해지다’와 같은 표현으로 기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다’는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편안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유적에 대한 안내문을 보며 한국어 표현을 배워 봅시다. 화면에 제시한 안내문은 서울에 있는 ‘창덕궁’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창덕궁>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시대 궁궐이다. 조선 태종 5년(1405년)에 지어진 것으로 조선의 궁궐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들이 지냈던 곳이다. 창덕궁은 건물들이 산을 따라 골짜기에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또한 숲과 연못, 정자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후원으로 유명하다. 창덕궁은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풍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유적을 방문하면 지금 읽은 것과 같은 유적에 대한 안내문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내문들은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유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안내문에서는 우선 ‘창덕궁’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창덕궁은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덕궁이 지어진 때를 설명하는데요, ‘조선 태종 5년’이라는 표현을 썼죠. 유적 안내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태종’이라는 왕이 왕이 된 지 5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때는 1405년이죠. 그리고 조선의 가장 큰 궁궐은 경복궁이었지만 조선의 궁궐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들이 지냈던 곳은 창덕궁이라고 하네요. 창덕궁은 산을 따라 ‘골짜기’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여 있는 곳에 건물들이 있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다’는 앞에서 배운 표현이죠? ‘자연과 잘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창덕궁은 숲과 연못, 정자들로 이루어진 후원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인데요,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어서 안에 있어도 경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풍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을 뿐만 아니라/-ㄴ 뿐만 아니라’는 앞에서 언급한 주어가 ‘뿐만 아니라’ 앞에 오는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 뒤에 오는 특성도 가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미 ‘을/ㄴ’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풍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어인 창덕궁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며, 거기에 더해서 고풍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도 가진다는 뜻입니다. “창덕궁 후원은 고풍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는 명사와 결합해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뿐만’이 조사로서 앞에 오는 명사와 직접 결합합니다. 이때는 “나는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대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보며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한국어로는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 봅시다.

민아 : 제니야, 영화 재미있었어? 한국어 대사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

제니 : 나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대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대사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민아 : 그래? 대단하다. 한국어가 많이 늘었구나.

제니 : 근데 영화에 나오는 한국의 역사를 잘 몰라서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찌나 지루하던지 졸리기도 했어. 그래도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왔어.

민아 : 아, 그랬구나. 다음에 만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대화에서 민아는 영화를 보고 온 외국인 친구인 제니에게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한국어 대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여기에서 ‘대사’는 영화나 연극에서 배우가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제니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대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화를 볼 때는 대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네요. 한국어 실력이 대단한 것 같죠? 민아 역시 그 말을 듣고 제니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제니의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한국의 역사를 잘 몰라서 영화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찌나 지루하던지 졸리기도 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루하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답답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재미가 없는 영화나 책 등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또한 제니는 여기에서 ‘어찌나 -던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의 크기, 정도가 아주 크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던지’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오죠. 그러니까 ‘어찌나 지루하던지’는 지루함의 정도가 아주 큼을 강조하여 나타낸 표현인 것이죠. ‘아기가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깜짝 놀랐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강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니는 영화 앞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아주 지루했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네요. 앞에서 배운 ‘감동적이다’와 같은 표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영화 같은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니의 말을 들은 민아는 다음에 만났을 때 영화에 나온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대화를 마치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재미있다, 지루하다, 감동적이다’ 등 기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과 ‘어찌나 -던지’와 같은 강조 표현 등을 활용하면 영화를 보고 난 뒤의 느낌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고 이런 대화를 한국어로 한번 나눠 보세요.

6. 핵심 요약 및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여가 생활과 여가 문화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얼마나 가지며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고 한국인의 여가 활동과 관련이 있는 문화를 배운 뒤,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근로 시간이 많아 여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꾸준히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개인의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 휴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역시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과 그와 관련이 있는 문화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여가 문화에는 등산 사랑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누구나 쉽게 산에 갈 수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등산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는 점도 등산이 사랑을 받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 문화 역시 독특한 여가 문화입니다.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PC방’, ‘노래방’, ‘찜질방’, ‘DVD방’, ‘만화방’ 등 ‘00방’이라는 간판이 유난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시에 주로 존재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공간, 여가 활동의 공간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과 노래 반주 장치가 발전하게 된 것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래방이 인기를 얻다 보니 여가 생활에서 노래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노래방을 비롯한 방 문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여가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개인 중심의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가 활동의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외식을 하는 혼밥,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 등 예전에는 주로 여럿이 함께 하던 활동들을 혼자서 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으며,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에 적합한 코인 노래방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여행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은 경치가 좋은 자연이 있는 곳, 문화유적이 있는 곳을 많이 선호합니다. 또한 한국에는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발달해 있는데 지역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주로 여름과 겨울에 있다 보니 온천이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경치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여행지로는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등이 있고, 문화유적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여행지로는 수도인 서울과 함께 경주, 부여 등 다양한 도시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한 지역축제로는 진해 군항제, 강릉 단오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보 여행과 캠핑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지역별로 걷기 좋은 길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도보 여행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대표적인 도보 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역시 최근 들어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며 다양한 캠핑 방식들도 대중화되고 있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행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축제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지역 축제 참가가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온천이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역시 팬데믹 이후에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적은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긴다는 사람은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여행과 함께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문화생활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란,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나 공연 등을 즐기는 생활을 말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문화생활은 대부분 영화 관람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관람이 한국인들의 여가 활동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의 영화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영화 사랑이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다만 여가 생활과 문화생활의 측면에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대부분이 영화 관람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생활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인들의 여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이 있는 한국의 여가 문화를 배워 보았습니다. 한국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달된 인터넷은 한국인들의 여가 활동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2022년 1분기 한국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은 1일 평균 5.2시간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가 활동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관련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척 커졌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여가 활동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웹서핑은 물론이고, 모바일 메신저 사용, 인터넷 방송 시청, SNS 사용, 게임, 드라마나 영화 보기, 음악 감상, 쇼핑, 웹소설과 웹툰 읽기, TV 시청, 인터넷 강의 듣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여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직접 만나는 대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나 음성 통화를 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문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같은 OTT,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대체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SNS 사용인데요, 특히 10대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여가 활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라인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인터넷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졌는데 이 때문에 어디에서는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것이 쉬워지면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이 이스포츠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프로게이머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게임의 인기는 한국의 PC방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PC방은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돈을 내고 컴퓨터로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PC방이 발달하게 된 것도 온라인게임의 인기 때문이었고 오늘날에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PC방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장비와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음료 등을 갖추고 있는 PC방들이 많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PC방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멋진 경치를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림 같다, 절경이다, 장관이다, 빼어나다, 끝없이 펼쳐지다, 줄지어 서 있다, -로/으로 가득차다’를 배웠습니다. 문화유적의 모습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과 어휘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다, 한국적이다, 웅장하다, 거대하다, 고풍스럽다, 우아하다’를 배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보았을 때 느낀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와 표현으로는 ‘인상적이다, 감동적이다, 가슴이 뻥 뚫리다, 기분이 상쾌해지다, 머

리가 맑아지다, 마음이 차분해지다' 등을 배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적에 대한 안내문과 영화에 대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을 뿐만 아니라/ㄹ 뿐만 아니라'는 앞에서 언급한 주어가 '뿐만 아니라' 앞에 오는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 뒤에 오는 특성도 가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미 '-을/ㄹ'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는 명사와 결합해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때는 '뿐만'이 조사로서 앞에 오는 명사와 직접 결합합니다. '어찌나 -던지'는 앞에서 언급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의 크기, 정도가 아주 크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던지'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여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국문화와 예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문학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한국의 방대한 문학 작품들과 그것들이 가지는 특징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취미로 선호하지 않는다. (O/X)

정답: X

2.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취미로 선호하지 않는다. (O/X)

정답: O

3. 진해 군항제는 벚꽃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봄 축제로, 충무공 이순신을 추모하는 축제이다. (O/X)

정답: O

4.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가 시간이 많은 편에 속했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각종 '방'들은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③ 유명 여행지인 경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로, 조선시대의 수도였다.

④ 한국인 전체 인구 가운데 80% 가량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사용하였다.

정답: ②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한국에서 등산은 과거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0년대 이후 최근에는 지속적인 취미오락 활동으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노래방은 노래 반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정해진 요금을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을 가리킨다.
- ③ 최근에는 여가 활동을 혼자서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 ④ 미국 블리자드 사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PC방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락의 중심지가 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정답: ①

3.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그림 같다 -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실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느껴진다
- ② 장관이다 - 규모가 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칭찬하는 말
- ③ 웅장하다 - 규모가 작고 귀여운 아름다움이 있다
- ④ 우아하다 - 수준이 높고 훌륭하며 아름답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단어로 적으세요.

1.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도 놓치지 않고 1위를 한 산은?

정답: 설악산

2. 산이나 들, 바닷가 등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 취미로 각광을 받는 것은?

정답: 캠핑

3. '자연과 ()를 이루다'의 ()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 조화

4.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찌나 지루하() 졸리기도 했어'의 ()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 던지

나. 토의 (30분)

한국 사람들에게 'PC방', '노래방', '찜질방', 'DVD방', '만화방' 등 '00방'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 생각해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는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취미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 참고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 권용훈(2022. 12. 30.), 「"혼자 즐긴다"...떼창 노래방 지고, 코인 노래방 뜨고」,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3021631>>.
- 김동진(2022. 4. 18.), 「국내 캠핑인구 700만명 돌파 ... 캠핑 스타트업 잇따 투자유치」, 『THE STOCK』, <<https://www.the-stock.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4>>.
- 김정일(2022. 10. 26.),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 건강 빨간 불」, 『약업신문』,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74705>>.
- 김재훈(2022. 12. 26.), 「[김재훈의 e스펙트럼] '어려도 프로다'...e스포츠, 프로게이머 직업 정신 강화」, 『굿모닝경제』,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267>>.
- 류석호(2021. 9. 18.), 「[전문가 포커스] '등산강국' 만든 한민족의 '山 사랑' 유전자」,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492>>.
- 문화체육관광부(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7077&outLink=Y&entrType=#H2_6.2>.
- 박상돈(2022. 11. 14.),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아직은 OECD 5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48600003>>.
- 박정원(2018. 6. 28.), 「['산의 정의가 무엇인가?' <2>산지면적 논란] 남한 산 면적, 산림청 63% vs 학자 72.1%」, 『산』, <<http://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2>>.
- 박정원(2020. 1. 6.), 「[Hot Focus] 한국인 부동의 취미생활 1위는 등산」, 『산』, <<http://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4>>.
- 서예레(2018),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에 따른 방(房)의 형성과 도시공간적 특성 연구: 흥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성도현(2023. 1. 19.), 「작년 12월 한국 방문 일본인 8만5천명...입국 외국인중 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9129000371?input=1195m>>.
-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지구」, 『그곳...속초』, <<https://www.sokchotour.com/tour/destination/nature>>.
- 이선아·이명순·백지윤(2019), 『오늘의 한국』(개정판), 한국문화사.
- 장소원 외(2018), 『여행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주관광공사(2022), 『혼자오피서』, 제주관광공사.
- 통계청(2022. 3. 29.), 「여가시간」,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32>>.

한국고용정보원(2021. 10. 29.), 「[청정 블로그] 직장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62시간이나 줄여준 '주52시간제'를 파헤쳐봤다!」, 『온라인 청년 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jynTips/jynTipsDetail.do?tipsId=202110290004>>.

한국관광공사, 「2022 강릉단오제」, 『대한민국 구석구석』,
<
<https://korean.visitkorea.or.kr/kfes/detail/fstvlDetail.do?jsessionid=B004769DDAA199DB3085F3349BC7781B.instance2?cmsCntntsId=531391>>.

한양명, 「진해군항제」,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4953?pageType=search&keyword=%EC%A7%84%ED%95%B4%EA%B5%B0%ED%95%AD%EC%A0%9C>>.

<9차시> 한국의 문학

■ 학습목표

1. 한국 고전문학의 특징과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2.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과 현대문학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3. 문학과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국의 고전문학 (1) : 다양한 목소리
3. 한국의 고전문학 (2) : 풍자와 해피엔딩
4. 한국의 현대문학 (1) : 가족과 세대
5. 한국의 현대문학 (2) : 전쟁
6.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7.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인의 여가와 관련이 있는 한국문화를 배워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가 시간에 자주 즐기는 여행과 문화생활,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 배울 한국문화는 바로 한국의 문학입니다. 문학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한국 문학의 역사는 아주 길고 문학 작품의 종류와 수도 무척 많아서 한 번의 수업에서 한국 문학의 전부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한국 문학을 시기에 따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전문학의 특성을 다루고 현대문학의 특성도 이어서 살펴본 뒤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도 배워볼 것입니다.

2. 한국의 고전문학 (1) : 다양한 목소리

앞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³⁾ 문학은 문자 예술일까요, 언어 예술일까요? 정답은 언어 예술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이 문자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기 전에도 문학은 있었고, 문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문학을 창작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문자가 전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말’,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문학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학이라는 뜻이죠. 왕이나 정치인, 종교인과 같은 사회의 지배층들은 나라를 새롭게 세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 나라의 농사가 잘되어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가축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번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을 문학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조선을 만든 단군에 대한 신화인 <단군신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하자 환인은 아들에게 청동 검, 청동 방울, 청동 거울을 주고 땅으로 보내 주었어요.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세 명의 신하와 3,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장선미 외 2017).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백 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21일을 참자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는데요,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했습니다. 곰은 마침내 여자가 되었지만 그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단수 아래에 가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러자 환웅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한반도의 첫 번째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그린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이야기는 당시 한반도에 곰을 신성하다고 생각하던 부족과 호랑이를 신성하다고 생각하던 부족이 있었고, 하늘의 신을 믿던 새로운 부족이 그들 부족, 특히 곰 부족과 결합한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배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문학으로 남겼을까요? 이들은 농사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작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힘든 일상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체험이나, 삶에 대한 소박한 깨달음 등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아리랑>도 바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문학입니다. 노래의 가사죠.

꽃은동동 배꽃이요, 열매동동 꺾은열매

3) 고전문학에 대한 설명은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구슬아 선생님께서 자문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밤주든 은장도로 어렴설설 설어다가
단단히 묶어내어 바리바리 실어다가
닷문안에 부라놓고 마당에 백이었네
도로끼로 비락맞쳐 싸리비로 날부리여
앞내물에 배를 띄워 조리쪽박 건지다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인 민요 <메밀노래>의 일부입니다.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표현이 재미있죠? ‘꽃은동동, 열매동동, 어렴설설, 바리바리’와 같은 표현들이 재미있어서 생생한 리듬을 느끼며 재미있게 가사를 익힐 수 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재미있는 표현과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꼭 규칙을 맞추진 않는 멋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한국 고전문학의 아름다움이죠. 이 가사는 곡식인 메밀을 심고 가꾸어 수확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일의 보람, 곡식 하나하나의 소중함이 이 가사에서 잘 느껴지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조동일 외 2018: 23, 86-87).

한편,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자는 바로 중국의 한자였습니다. 2차시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은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자를 사용했는데요, 기원전 108년경에 한반도에 한자가 들어왔고, 마치 유럽에서 라틴어로 모두가 같이 소통했던 것처럼 한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자를 빌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문학으로 능숙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외우면서 읽고 쓰는 훈련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 한자를 활용한 문학 작품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임금, 귀족과 같은 사회의 지배층, 지식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활용한 고전문학은 주로 이런 지배층,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 귀족, 정치인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였을까요? 주로 윤리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같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수준 높은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자를 활용한 문학 작품들은 이런 세상과 인간에 대한 수준 높은 생각들을 문학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문학 작품들은 주로 질서가 완벽하게 잡힌 안정되고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한자를 활용한 문학은 적어도 6세기부터 한국 고전문학의 시대가 끝나는 19세기 말까지 수없이 많이 창작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그것을 기록하는 수단인 문자가 다른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종대왕은 한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할 수 있는 문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자, 이제는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활용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고전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지점이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일랑 구뵈구뵈 퍼리라 -16세기 기녀 황진이의 시조

황진이라는 여성은 조선 명종 때 송도(지금의 개성)에서 활약한 유명한 예술가이자 기녀입니다. 이 시는 겨울의 긴 밤, 아직 오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그린 것인데요, 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잘라내었다가, 님과 만났을 때 이어 붙여 님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참신하게 표현한 시조입니다. 표현과 생각이 아주 재미있죠?(조동일 외 2018 : 한국 전쟁5-한국 전쟁6)

이처럼 한국 고전문학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인 한자, 한글을 문학 작품을 만드는 데에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을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3. 한국의 고전문학 (2) : 풍자와 해피엔딩

앞에서는 한국 고전문학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 고전문학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고전문학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민요를 이야기하며, 한국 고전문학은 ‘한(恨)’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이라는 말은 번역하기에 적당한 영어 표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독특한 한국인만의 정서입니다. 이별의 슬픔, 관리들의 착취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 자연재해 앞에서의 무기력함, 능력 있는 인재가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슬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극 등등 진지하면서도 심각한 내용이 한국 고전문학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비극 앞에서 끝없이 좌절하거나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하려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비판하고 상대를 반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조동일 외 2018 : 23-26). 이런 한국 고전문학의 주요 표현 방법을 ‘풍자(諷刺)’라고 합니다. ‘satire’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풍자’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지배층을 비판하거나, 혹은 지배층 중에 생각이 깨어있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해 주는 내용 등이 풍자의 방법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잠시 동영상 강의를 멈추고 화면에 있는 문학 작품을 읽어보세요.

토끼 :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태산이 붕괴하고 오성이 음음한데 시일갈상 노래소리 억조창생 원망 중에 탐학한 상주임금이 성현의 뱃속에 칠궁기 있다기로, 비간의 배를 갈러 무고히 죽였은들 일곱 궁기가 없었으니, 소토도 배를 갈러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뉘를 다려 달라 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용왕 : “이놈, 네가 그 말이 당치않은 말이로구나. 의서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하고, 담수병즉설불능언하고, 신수병즉이불능청하고, 간수병즉목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토끼 : “예. 소토가 아뢰리다. 소토의 간인즉 월륜정기로 생겼삽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이내다. 그 때는 세상의 병객들이 소토 곧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파초 앞에다가 꼭꼭 싸서, 침으로 칭칭 동여, 영주 석상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터리에 달아매고, 도화유수 옥계변에 탁족하러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 좋다 하기로 완경차로만 왔나이다.”

용왕 : “이놈! 네가 그 말도 거짓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한단말이냐?”

토끼 : “하하하하하! 대왕이 도지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 태호 복희씨는어찌하여 사신 인수가 되었으며, 신농씨 어찌하여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허옵고, 소토는 무슨 일로꼬리가 이리 묘뚝허옵고, 대왕의 옥체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토의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가 한가지라 뻑뻑우기니 답답치 아니하오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옵소서.”

(중략)

용왕 : “네 여봐라, 토선생을 또다시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정배축출 하리로다. 별주부는 듣거라. 어서 토공 모시고 세상 갔다 오도록 하여라.

이 작품은 한국의 판소리 <수궁가>라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는 한국의 판소리 <수궁가>의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죽음을 앞둔 용왕, 바다의 임금인 옥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자, 신하인 자라가 나서서 자신이 토끼를 잡아 오겠다고 옥지로 올라갔다가 토끼의 꼬에 당하는 것이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글은 <수궁가>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토끼가 자신이 간을 옥지에 두고 와서 지금은 간이 없으며, 용왕을 위해 간을 드릴 테니 다시 옥지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꼬를 내어 용왕과 자라를 속이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말도 많아서 한 번에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자체보다 유식한 말을 사용하며 상대를 속이는 데서 오는 재미입니다. 이 대목을 들은 관중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토끼의 생명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용왕이 사실은 똑똑하지 않고 잘 속는 무능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아, 저런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용왕이 토끼에게 속아 토끼를 놓치고 결국 죽게 되는 결말은 조선 사회의 지배층이 보여주는 무능력과 부패 등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그런 무질서한 사회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을 바르다고 인정해 주는 풍자의 효과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배층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 판소리를 들으면 지배층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전문학이 풍자를 중시했다고 해서 마냥 웃기는 이야기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깨달음과 교훈을 제시하죠.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은 유럽의 문학과 달리 ‘비극’이 적어요. 주로 웃음을 통해 진실의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 중 많은 작품들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단군신화>,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고전소설들은 주인공인 영웅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열심히 노력해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주인공이 반드시 능력 있는 영웅인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영웅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 작품으로 고전 소설 <흥부전>이 있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흥부전). 한 동네에 사나운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

는데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부를 내쫓았습니다. 아내와 많은 자식과 함께 쫓겨난 흥부는 할 수 없이 언덕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살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놀부의 집으로 쌀을 구하러 갔지만 매만 맞고 돌아왔죠.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해도 먹고 살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흥부네 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데 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흥부가 불쌍히 여겨 다리를 치료해 주었고 가을이 되자 제비는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돌아올 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죠. 흥부는 그 박씨를 심어 가을에 큰 박을 많이 땀는데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놀부가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더니 날려 보냈습니다. 이듬해 봄에 놀부도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많은 박을 땀는데 그 속에서 온갖 나쁜 것이 나와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부에게 재물을 주어 살게 하고, 그 뒤 놀부도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으며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흥부전>의 줄거리를 보면, 순하고 착해서 답답하기까지 한 흥부는 가난했지만, 결국 그 착한 마음 덕분에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부자가 되죠. 반면에 자기 욕심만 많고 이기적인 놀부는 부자였지만, 그 나쁜 마음 때문에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 고전문학은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정정당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해피엔딩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실은 착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에 걸맞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걸맞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에서는 불가능과 좌절 대신, 이런 정정당당한 마음과 노력, 순수한 마음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해피엔딩을 통해 드러납니다. 한국 사람들의 낙관적인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4. 한국의 현대문학 (1) : 가족과 세대

이번에는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봅시다. 한국 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현대문학은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성립했는데요, 한문으로, 한자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사라지고 한글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완전히 확립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 작품의 수가 많아지고 내용과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한국의 현대문학은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한국 현대문학의 특성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독특한 특성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제 -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이 시를 읽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나요? 아픈 아들에게 약으로 먹일 산수유 열매를 찾아 눈밭을 헤매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는 어릴 적 병으로 고통스러웠던 날 느낀 아버지의 사랑을 성인이 되어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볼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은 바로 이 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이며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든 가족을 다루는 문학 작품은 많이 만날 수 있죠. 특히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족’은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화,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로부터의 독립, 한국전쟁, 급격한 경제 성장, 독재와 민주화 운동 등을 거치며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화했는데요, 가족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이런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가족 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현대문학은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식구 수가 많고 아버지가 중심인 전통적인 가정에서 시작해서 식구 수가 적은 가족으로 변화하고 또 1인 가족, 가족을 대신하는 대안가족 등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황도경·나은진 2004 : 238), 문학 작품 안의 가족 형태도 변화하면서, 아버지, 남자 중심의 가족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여성의 지위가 빠르게 높아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국의 문학 작품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각 시기의 주요한 사회 문제, 당시 한국의 문화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많은 문학 작품들은 가족 이야기를 통해 당시 한국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가족,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을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위로합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인 채만식은 그의 소설 <태평천하>에서 윤직원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윤직원은 지금의 서울인 당시의 경성에 사는 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지만 재산을 탐하는 관리들과 도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살해되었습니다. 그 후 윤직원은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 경성으로 온 뒤 돈으로 족보를 꾸며 가짜 양반이 되고, 자기의 가족을 빛나게 하기 위해 일본을 지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윤창식은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의 재산만 쓰며 방탕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윤직원의 첫째 손자인 윤종수의 생활도 윤창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반면에 둘째 손자인 윤종학은 일본의 법과대학에 다니고 있어 할아버지인 윤직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윤종학은 일본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 소설에서 윤직원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는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자신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죠.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윤직원에게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편안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윤창식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죠(김성렬 2008 : 9). 반면에 윤종학은 가족에서 벗어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처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당시 한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윤직원은 당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일본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대표하고, 윤창식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라마저 없어진 혼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형태를 잃은 채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조선 그 자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김상현 2008 : 9). 이들은 모두 소설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등 한국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문학 작품 속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손흥규의 소설 <이슬람 정육점>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튀르키예인과 그가 입양한 한국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룬 가족과 그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의 모습과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프

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통나무집에 거주하기도 했으며 북극에서는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반얀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서 잠들었고 짙이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기도 했다.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녔다(손흥규 2010:219).

화면 속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문화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장성규 2018:24). 한국인, 중국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유럽인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현대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생각을 가지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생각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부모 세대와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현대문학에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가정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태평천하>는 가족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윤직원은 근대화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평안과 재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대인 윤창식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경험하지만 그 중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손자인 윤종학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하도록 강요하는 할아버지에게 반대하며 이전 세대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아들, 손자의 갈등은 소설 속 윤직원 가족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 사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윤직원 가족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죠.

하지만 소설 속의 세대 갈등이 늘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학 작품들이 소설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가 싸움을 멈추고 안 좋은 감정을 푸는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최일남의 소설 <흐르는 북>에서는 젊을 때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떠돌면서 북을 치며 살아온 노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최유찬 2013:115-116). 떠도는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하며 살아온 아들은 이제 출세를 해 사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인은 나이가 들어 아들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들 부부는 노인을 아주 차갑게 대하며 노인이 북을 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손자는 탈춤패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할아버지의 술친구가 되어주는데요, 어느 날 손자가 탈춤패 행사에 할아버지가 북을 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 나간 노인은 신나게 북을 치고, 손자는 행사가 할아버지 덕에 최고였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노인을 탓하고 손자도 혼을 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손자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노인은 아들 부부가 경찰서에 가고 없는 집에서 북을 울립니다.

이 소설에서 노인의 손자 성규는 자신이 노인과 잘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 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최일남 1987:34)

소설 속에서 노인과 그 아들의 갈등은 손자를 통해 변화합니다. 한 세대를 건너서 세대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세대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대문학은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세대 차이와 갈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고 그 안의 문제를 드러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의 현대문학 (2) : 전쟁

한국 문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한국이 1950년 6월 25일부터 한국전쟁을 겪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의 전쟁으로 3년 동안 지속된 뒤 휴전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전쟁의 기억은 한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많은 문학작품에서 한국전쟁과 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의 삶에 전쟁이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이정숙 2010 : 9).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에는 전쟁 그 자체나 전쟁 경험, 그로 인한 피해, 전쟁 직후 한국 사회의 모습이 문학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전쟁을 다루는 작품이 많았던 것이죠(이정숙 2010 : 11). 이런 작품들은 전쟁의 상처와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사회 상황을 주로 다루다 보니 우울하고 어두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소설가 손창섭은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을 문학 작품에서 다루기 시작한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비 오는 날>은 한국전쟁 직후의 부산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해 불행해진 한 남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비오는날). 어느 날 원구는 거리에서 우연히 학교 동창이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동욱을 만납니다. 동욱은 아직 미혼인 여동생 동옥과 함께 살며, 동욱이 초상화를 그려 번 돈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던 어느 날 원구는 처음으로 외진 곳의 낡은 집에 사는 동욱을 찾아가는데, 동욱만이 차갑게 원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 원구는 우연히 동욱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으며, 동욱이 아주 차갑게 동욱을 대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뒤 비가 와서 가게를 열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 남매의 집을 찾죠. 그러는 사이 원구와 동욱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동욱은 원구에게 동욱을 보살펴 줄 사람이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으며 동욱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를 보기만 하면 화가 난다는 말을 하며, 원구에게 동욱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며칠 뒤 원구는 동욱이 더 이상 초상화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동욱이 집주인에게 오빠 몰래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원구는 다시 동욱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동욱, 동욱 남매가 없습니다. 새 집주인으로부터 동욱은 군대에 끌려갔는지 며칠째 소식이 없고, 동욱 또한 혼자 며칠 밤을 울다가 원구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는데 편지는 부주의로 없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뒤부터 비가 오

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동옥 남매 생각에 우울해지곤 합니다.

이 작품에서 계속해서 내리는 비는 전쟁 이후 어두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동옥과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있는 동옥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이런 주인공들의 슬프고 힘든 상황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며, 절망과 무기력함을 드러냅니다. 원구 역시 동옥, 동옥 남매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는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문학 작품들이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함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시를 봅시다.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 구상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워 있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든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 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 리면
가로막히고,
무주 공산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달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놓아 버린다.

이 시는 구상의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적군 묘지는 한국전쟁 때 남한에서 사망한 북한군들을 묻어준 곳을 말합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서로 총을 쏘며 싸우던 사람들이었지만, 죽은 뒤에는 해가 잘 드는 곳에 묻어준 것이죠. 남한에 있는 북한군의 묘지에서 시 속의 말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미움과 갈등이 극복되는 것을 보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고, 목놓아 우는 것, 즉,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낮게 합니다.

전쟁의 직접적 경험을 주로 다룬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보면 전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정숙 2010: 13-15).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다루는 작품도 있고, 어릴 때 체험한 전쟁의 기억과 흔적을 그리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처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전쟁과 분단을 다루지만 배경이나 주인공의 활동 장소를 외국으로 확대하여 다룬 작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서 발표된 9편의 단편소설을 묶어 하나로 만든 연작소설 <소라단 가는 길>은 60세를 앞둔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 40년을 맞이하여 익산에 있는 시골 동창회에 참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이정숙 2010: 15-20). 이 친구들은 고향에서 자신이 어릴 때 겪은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차례로 풀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은 한국전쟁의 허무한 의미를 되새기죠. 이것은 친구들 중 하나인 이진원의 생각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 전쟁일 텐데, 한국전쟁을 통해 어느 쪽도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 그 점을 이진원은 음울한 어조로 밝혔다.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두 진영에 속해 있던 금옥이누나와 명주누나 두 사람 다 똑같이 불행해진 결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금옥이누나가 불행해지면 명주누나가 행복해지고, 명주누나가 불행해지면 금옥이누나가 행복해지는 것이 원래 전쟁 목적에 어울리는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겠는가(윤홍길 2003:200).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 대해 추억을 나눈 하룻밤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친구의 목숨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동창들 중 스스로 죽으려고 수면제를 가지고 온 인철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수면제를 땅에 묻어버리죠. 50여 년 전 전쟁의 기억이 현재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현대문학은 전쟁의 기억을 다루며 전쟁의 상처를 낮게 하고 남한과 북한이 나뉜 한국의 상황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학에 대해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도 무척 힘든 일이죠. 어려운 단어와 사투리,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문학적인 표현들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문학도 어렵지만 옛날 말로 되어 있는 고전문학은 더욱 어렵죠. 하지

만 문학 작품을 읽으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작품의 내용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한국문화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서 한국에 대해 더 깊고 넓게 알고 한국어 실력도 높이면 좋겠네요.

6.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학 작품들은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과 심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들 몇 가지를 배워봅시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학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학 작품을 읽으며 느낀 감정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뿌듯하다’는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에서 백점을 맞아서 뿌듯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홀가분하다’는 ‘할 일을 모두 끝내서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모두 끝내니 홀가분하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니 홀가분합니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설레다’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소풍을 앞두고 신나서 들뜬 마음, 좋아하는 사람과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 같은 것이 바로 설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통쾌하다’는 아주 즐겁고 시원하여 유쾌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흥부전>을 읽으며 착한 흥부가 잘되고 못된 놀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죠. ‘안타깝다’는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불쌍하여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를 의미합니다.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보니 안타깝다.”,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속상하다’는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생이 내 차를 망가뜨려서 속상해.”와 같이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쓰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신 모습을 보니 속상해요.”와 같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쓰기도 합니다. ‘괘씸하다’는 ‘남에게 예절이나 믿음에 어긋난 짓을 당하여 분하고 밉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속이다니. 정말 괘씸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한 친구의 행동이 정말 괘씸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화나고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아서 억울해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서럽다’는 ‘분하고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서 동시에 슬플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억울하게 혼이니 너무 서러워서 한참 울었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처럼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까 허무해.”, “인생이 허무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뒤죽박죽 질서 없이 어지럽다’라는 뜻인데요,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나라”처럼 사람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상욱은 혼란스러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한국어 표현을 배워 봅시다.

파비앙 : 연아 씨,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연아 : 이거요?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이에요.

파비앙 : 한국어 소설이에요? 재미있어요?

연아 : 네, 한국어 소설이에요. 주인공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잘돼서 통쾌해요.

파비앙 : 그래요? 저도 읽고 싶네요. 저는 한국 문학 작품이라고는 하나도 읽어 보지 않았어요.

연아 : 정말요? 파비앙 씨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소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이 대화에서 파비앙과 연아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비앙이 책을 읽고 있는 연아를 보고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질문하고, 연아는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을 읽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파비앙이 한국어 소설인지, 재미있는지 물으며 관심을 보이네요. 연아가 읽고 있는 소설은 한국어 소설이었어요. 연아는 파비앙에게 “주人公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잘돼서 통쾌해요.”라며 읽고 있는 소설의 내용과 그것을 읽으며 느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다’, ‘통쾌하다’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현들이 사용되었네요. 여기에서 연아는 ‘당하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기는 하지만’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결합해서 앞의 내용을 일단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는 다른, 또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오는 말이 명사이면 ‘기는 하지만/이기는 하지만’을 써요. “음식이 맵기는 하지만 맛있어요.”, “저는 김치를 먹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학생이기는 하지만 이 학교 학생은 아니에요.”와 같이 사용합니다.

연아의 말을 들은 파비앙은 자기도 읽고 싶다고 말하며 “저는 한국 문학 작품이라고는 하나도 읽어 보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명사 뒤에 온 ‘라고는/이라고는’은 명사 뒤에서 앞의 말을 강조해 주는데요, 앞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없음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 작품이라고는 하나도 읽어 보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한국 문학 작품’을 강조하면서 한국 문학 작품은 읽어 본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어.’, ‘비라고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이런 파비앙의 말을 듣고 연아는 파비앙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소설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합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7. 핵심 요약 및 정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모두 배워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학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한국 문학을 시기에 따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국 고전문학의 첫 번째 특성은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한국 고전문학에는 문학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한 언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전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말, 음성 언어로 문학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의 지배층들은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 나라의 풍요와 번영을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을 문학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조선을 만든 단군에 대한 신화인 <단군신화>가 있습니다. 지배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농사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노래를 부르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메밀노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자는 바로 중국의 한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빌려 한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문학으로 능숙하게 표현했습니다. 한자를 활용한 문학 작품은 주로 지배층,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표현해주며, 윤리와 사회에 대한 고민,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같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수준 높은 생각들을 드러냈죠. 이런 문학 작품들은 질서가 완벽하게 잡힌 안정되고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한자를 활용한 문학은 적어도 6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끊임없이 창작되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는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활용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고전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지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6세기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의 두 번째 특성은 풍자와 해피엔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비판하고 상대를 반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한국 고전문학의 주요 표현 방법을 ‘풍자(諷刺)’라고 합니다. 지배층이나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풍자의 방법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수궁가>가 있죠.

이처럼 한국의 고전문학은 풍자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웃음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많은 작품들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죠. 대표적인 예로는 <흥부전>이 있는데요, 한국 고전문학은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해피엔딩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현대문학은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 한국 문학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족’은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문학 작품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문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가족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국의 문학 작품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각 시기의 주요한 사회 문제, 당시 한국의 문화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 손흥규의 소설 <이슬람 정육점> 등이 있습니다.

한편 현대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태평천하>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현대문학 작품에서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가정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또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소설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가 싸움을 멈추고 안 좋은 감정을 푸는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최일남의 소설 <흐르는 북>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의 전쟁으

로 3년 동안 지속된 뒤 휴전을 통해 마무리되었죠. 이러한 전쟁의 기억은 한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많은 문학 작품에서 한국전쟁과 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의 삶에 전쟁이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에는 전쟁 그 자체나 전쟁 경험, 그로 인한 피해, 전쟁 직후 한국 사회의 모습이 문학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전쟁을 다루는 작품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작품들은 전쟁의 상처와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사회 상황을 주로 다루다 보니 우울하고 어두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손창섭의 소설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문학 작품들이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상의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와 같은 작품은 미움과 갈등의 극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전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다루는 작품, 어릴 때 체험한 전쟁의 기억과 흔적을 그리는 작품,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처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남한과 북한의 전쟁과 분단을 다루지만 배경이나 주인공의 활동 장소를 외국으로 확대하여 다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소라단 가는 길>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을 복습해 봅시다.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뿌듯하다, 흥가분하다, 설레다, 통쾌하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껄썩하다, 억울하다, 서럽다, 허무하다, 혼란스럽다’를 배웠습니다.

문학 작품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기는 하지만’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결합해서 앞의 내용을 일단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는 다른, 또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오는 말이 명사이면 ‘기는 하지만/이기는 하지만’을 씁니다. 명사 뒤에 오는 ‘라고는/이라고는’은 명사 뒤에서 앞의 말을 강조해 주는데요, 앞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없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의 문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한국의 고전문학, 현대문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학은 그 종류와 작품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오늘 배운 것으로 한국 문학의 특성을 모두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 확산연구센터에서는 한국 문학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알아보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이제는 대표적인 한국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이 ‘한류’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라 할 수 있는 대중가요,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대중문화를 이야기할 때 팬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팬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서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 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문학은 문자 예술에 해당한다. (O/X)

정답: X

2.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이 많았다. (O/X)

정답: O

3.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는 전쟁으로 인해 불행해진 한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다. (O/X)

정답: X

4. 최근의 한국 문학 작품은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룬다. (O/X)

정답: O

5. 구상의 시 <초토의 시8 - 적군 묘지 앞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미움과 갈등이 극복되는 모습을 그렸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6. 한국 고전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비판하고 상대를 반성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① 한(恨) ② 풍자(諷刺) ③ 해학(諧謔) ④ 해피엔딩(happy ending)

정답 : ②

7. 한국어 단어와 단어의 뜻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쾌하다 - 아주 즐겁고 시원하여 유쾌하다.
- ② 뿌듯하다 -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다.
- ③ 홀가분하다 - 할 일을 모두 끝내서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 ④ 께씸하다 -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

정답 : ④

단답형 (8분)

8. 한국의 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눌 때 주로 그 경계로 삼는 시기는?

정답 : 19세기 후반

9.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 중 '고조선을 만든 인물에 대한 신화'의 제목은?

정답 : <단군신화>

10. 한국인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문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문학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정답 : 한글이 만들어진 일

11.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라는 뜻을 가진,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생이 내 옷을 망가뜨려서 ().• 아버지께서 아파서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 |
|---|

정답 : 속상하다

나. 토의 (40분)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 중,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나라의 문학 작품과 한국의 문학 작품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다. 과제 (50분)

한국의 현대문학 작품 중 한 편을 골라서 감상해 보고, 작품의 주제와 내용,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김성렬(2008), 「가족 소재 소설로 읽는 한국 근현대 소설의 과거·현대·미래」, 『한국문예창작』 7-2, 171-19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손흥규(2010),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송백현, 「비오는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204>>.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창비.

이정숙(2010), 「6·25 전쟁 60년과 소설적 수용의 다변화, 그 심화와 확대」,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7-33.

인권한, 「흥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012>>.

장선미 외(2017), 『생방송 한국사 1』, 아울북.

장성규(2018),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 『인간연구』 36,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7-31.

장소원 외(2018), 『여행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조동일 외(2018), 『한국문학강의』, 길벗.

최유찬(2013),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세대 갈등과 극복」,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95-127.

최일남(1987), 『흐르는 북』, 문학사상사.

황도경·나은진(2004),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현대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37-258.

<10차시> 한국의 대중문화

■ 학습목표

1. 한류의 의미와 발달 과정을 이해한다.
2.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과 대중문화를 즐기는 팬 문화를 이해한다.
3.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한류의 어제와 오늘
3. 한국의 대중음악과 케이팝
4.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5. 한국의 팬 문화
6.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7. 핵심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수업도 마지막 열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국의 문학에 대해 배워 보았습니다. 한국의 고전문학과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고 관련이 있는 작품들도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배워 보려고 합니다. ‘대중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문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등이 대표적인 대중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한류’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라 할 수 있는 대중가요,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팬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서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도 배워 볼 것입니다.

2. 한류의 어제와 오늘

여러분들은 ‘한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류’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한류’는 ‘한국의 음악, 영화, 텔레비전, 패션, 음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대표되는 한국과 그 대중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가’ 또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류’라는 말은 중화권의 언론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는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면서 등장했는데요, 지금은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의 다양한 요소들 또는 한국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한국의 음악,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한국어 등과 같은 한국의 다양한 요소로 넓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한류가 확대되게 된 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기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97년에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CCTV를 통해 방영된 때를 한류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CCTV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목욕탕집 남자들>, <보고 또 보고>와 같은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꾸준히 방영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드라마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한국 드라마와 함께 대중가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중화권에서 시작된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등이 한류를 주로 이끌었지만 그중에서도 한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연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 등 다양한 사랑 이야기는 많은 아시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역동적인 댄스 음악은 많은 아시아 청소년들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02년과 2003년에 <겨울연가>, <대장금> 등과 같은 드라마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는 일본,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한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몇몇 가수들이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H.O.T., 클론 등이 아시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비슷한 문화가 많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뛰어넘어서, 미국과 유럽의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 전문 사이트와 SNS를 통해 한류가 더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의 다른 다양한 예술 분야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영역을 넓히고 영향력을 키워나가던 한류는 2010년대 초반을 지나며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도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류의 지역과 대상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소수의 열성 팬이나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들

을 넘어서 보편적인 세계인으로 확대되었죠. 이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문화 콘텐츠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한국의 대중가요가 음반 순위 1위를 하거나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것도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OTT가 발달하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OTT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가요는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과 행사가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게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연이나 행사도 다시 시작되고 있죠. 게임과 만화, 웹툰, 문학 작품, 음식 등 다양한 영역의 문화 콘텐츠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해외 18개국의 현지 한류 콘텐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라 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는 1위가 케이팝, 2위는 한식, 3위는 드라마, 4위는 한류스타, 5위는 IT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중가요, 드라마가 한류의 대표적인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한식이나 IT 산업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한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외국 한류 콘텐츠 경험자들이 가장 좋아한 한국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가장 좋아한 한국 영화는 <기생충>, 가장 좋아한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단>, 가장 좋아한 한국 애니메이션은 <라바>, 가장 좋아한 한국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품들은 최근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들이라 할 수 있으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 아직 이런 작품들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3. 한국의 대중음악과 케이팝

이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대중음악입니다. 대중음악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대중가요 또는 가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에 시작된 현대적인 한국 대중음악은 현재까지 그 형식을 바꾸어가며 많은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트로트로 시작된 한국의 대중가요는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민요풍의 포크 송과 록의 유행, 1980년대 발라드의 유행을 지나 1990년대부터는 댄스 음악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류로 인해 한국의 대중가요가 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한국의 대중가요를 다른 나라의 대중음악과 구분해서 케이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가요는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 음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듣기 쉬운 댄스 음악이 대부분이고 듣다 보면 중독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후렴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노래가 귀에 쏙 들어오고 기억에 남죠. 또한 화려하면서도 빈틈없이 잘 짜인 군무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처럼 멋진 춤은 가수의 퍼포먼스를 인상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수준 높은 뮤직비디오도 큰 특징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장면들로 구성된 뮤직비디오는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전문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이돌 가수의 외모와 이미지도 아이돌 음악이 큰 인기를 끌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돌 음악의 특징들은 케이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2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악의 인기 요인을 물었을 때 후

럼구와 리듬이 18.3%로 1위로 꼽혔고, 가수 외모가 14.8%로 2위, 퍼포먼스가 13.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보면 케이팝의 인기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댄스 음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전 세계에 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외국에서 보는 케이팝은 곧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댄스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팝에 아이돌 음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이돌 음악이라 볼 수 없죠. 이 노래는 재미난 춤과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 대중가요의 한 종류인 '트로트'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한국 대중가요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현대 한국 대중가요의 다양한 종류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본 대중음악의 하나인 '엔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수하면서도 슬픈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며 트로트는 흥을 돋우는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로 바뀌었고 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라고 생각되었던 트로트는 201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트로트가 큰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트로트를 부르는 실력을 겨루는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트로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뿐만 아니라 출연자들도 큰 팬덤을 가질 만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트로트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국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음악 프로그램에도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할 만큼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2월 1일 현재 유튜브 뮤직의 주간 인기곡 차트 100위 안에는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의 곡이 3곡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유명 음악 사이트인 '멜론'의 2023년 1월 30일 일간 인기곡 차트에는 앞에서 말한 가수의 곡이 10곡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탄생한 가장 오래된 한국 대중가요인 트로트가 21세기에 다시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트로트는 한국적인 정서가 강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종류의 대중음악이라 외국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적인 대중음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음악입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트로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의 대중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트로트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근의 한국 대중가요는 한국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케이팝은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케이팝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해서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 태국, 일본 등 외국 출신의 멤버를 포함하여 그룹을 만들거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외국 음악가를 음반 제작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케이팝은 꾸준히 그 인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음반(실물 CD) 수출액은 2억 3311만 3000달러(한화 약2895억원)로 역사상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음반이 수출되는 나라의 수도 2016년 60개국에서 2022년 138개국으로 크게 늘었죠. 또한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중음악 시장을 가진 미국의 빌보드 hot100 차트에 포함된 노래 중 한국 가수가 불렀거나 한국 가수가 외국 가수와 함께 부른 노래는 13곡, 빌보드 200 차트에 든 한국 가수의 앨범은 21개였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수 10위 안에 한국 가수가 둘이나 포함되기도 했죠.

다만, 앞서 이야기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중음악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한국어 가사와 획일적인 음악 장르가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돌의 댄스 음악이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의 대중가요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4.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이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중 영상 콘텐츠에 대해 살펴보시다.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배워 본 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국 문화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한 종류이면서 동시에 지금과 같은 한류의 발전을 이루게 한 주요 요소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한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류 스타들이 탄생하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발달 과정과 특성, 현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행』, 『올드보이』, 『기생충』 등과 같은 한국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영화들은 최근에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유명한 한국 영화들인데요, 이렇게 한국 영화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되기까지 한국 영화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시작된 때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말에서 1920년대 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산업이 처음으로 생겨났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 후, 1960년대에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영화 산업이 발전하였지만, 1970년대에 한국의 독재 정부가 영화 산업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 영화는 큰 위기를 맞는데요, 바로 할리우드 영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는 더 발달된 기술과 더 많은 자본을 들여 만들어진 외국 영화와 경쟁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영화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는 점차 다양화되면서 큰 비용을 들여 만드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한국 영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2003년 『실미도』를 시작으로 천만 명의 한국 관객을 동원하는 한국 영화들이 나올 정도로 영화가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영화 시장 역시 그 규모가 아주 커졌죠. 여덟 번째 수업에서 한국인의 여가에 대해 배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의 영화 시장은 세계 4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영화 시장은 영화 수출입에 있어서 오랜 기간 외국 영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한국은 능동적으로 영화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생산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는, 자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보다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보다 높았죠. 한국에서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총 29편인데 이 중에서 외국 영화

는 9편뿐이고, 나머지 20편은 모두 한국 영화입니다. 이처럼 높은 인기와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영화는 양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창조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죠. 2004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 등 전 세계 여러 유명 영화제의 각종 상들을 받으면서 한국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화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0년 만에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보다 낮아지기도 했죠. 하지만 OTT의 발달로 영화를 즐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한국 영화는 OTT,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에 소개되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승리호』, 『#살아있다』, 『정이』 등과 같은 영화들이 유명 OTT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서 한국인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거나, 한국인 배우가 할리우드를 비롯한 외국에서 영화를 찍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한편, 한국 영화와 함께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류를 만들어 낸, 한류의 토대가 된 콘텐츠이자,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텔레비전 방송 초창기부터 ‘안방극장’이라 불리며 한국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0년에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후로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욕망을 담아낸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한국 드라마는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했죠.

199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다루기 시작했고, 촬영 방법의 발달로 화려한 영상을 선보이면서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일일드라마, 주말에 방송되는 주말드라마, 10회에서 20회 안팎의 미니시리즈, 일회성 드라마인 단막극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드라마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은 ‘드라마의 왕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송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의 드라마 편성 시간 비율은 각각 36.7퍼센트, 46.8퍼센트, 50.8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커지고 케이블TV 방송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쟁이 더욱 심해진 것도 한국 드라마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OTT가 발달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다 보니 KBS, MBC, SBS 등과 같은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OTT를 통해 전 세계에 드라마가 공개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죠. 이런 변화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마는 한류를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용준과 최지우

가 주연을 맡은 『겨울연가』는 2002년에 한국에서 방영된 후 일본으로 수출돼서 일본의 대표적인 방송국인 NHK에서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죠. 주연 배우들은 일본에서 ‘윤사마, 지우히메’로 불리며 한류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영애가 주연을 맡은 『대장금』은 조선 시대의 궁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2003년에 한국에서 방송될 때도 50퍼센트가 넘는 시청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그 후에 여러 나라로 수출되면서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장금』은 2004년 3월에 한국에서 방영을 마친 후, 2009년 말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90%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후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꾸준히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으며 한류를 이어왔습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이야기와 소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펼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 역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 제작 기술의 수준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방송사의 수와 OTT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라마 제작에 전문 인력과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 제작 기술의 수준과 완성된 드라마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OTT가 급격하게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오징어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징어게임』은 2021년 한 OTT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어 전 세계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덕분에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죠. 『오징어게임』 이후 『지옥』, 『사내 맞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 『더글로리』 등 많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였고, 한국 드라마는 꾸준히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의 2022년 드라마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이며,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10위까지의 드라마 중 70~80%가 한국 드라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북미나 유럽의 드라마처럼 한 작품 안에서 하나의 장르에 집중하며 시즌제의 형식으로 제작되는 한국 드라마들이 늘고 있어서 아시아를 벗어나 북미, 유럽 등 더 넓은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영화와 마찬가지로 오락성과 창조성,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의 유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빈, 로운이 주인공을 맡은 2021년 드라마 『연모』는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앞에서도 언급한 2021년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등이 출연한 『오징어게임』은 에미상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미국 배우조합 상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최근 꾸준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2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로 꼽은 것은 『기생충』, 『부산행』, 『서복』, 『미드나이트』, 『승리호』였고,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로

꼽은 것은 『오징어게임』,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펜트하우스』, 『갯마을 차차차』였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드라마들을 한번 찾아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한국의 팬 문화

한편,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작품이나 스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한국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영화, 드라마, 음악이나 배우, 가수 등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죠.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팬으로서 대중문화를 즐기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팬 문화를 만들며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가수와 배우의 역사만큼이나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역사도 길지만, 한국에서 스타의 팬들이 팬클럽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인기 가수인 조용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당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필그림’, ‘위대한 탄생’ 등과 같은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죠. ‘오빠부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성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이때 생긴 팬클럽이라고 하는 팬 활동의 형태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빠부대는 당시 특정 남성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여성 팬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 스타를 ‘오빠’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각종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나타나 뜨거운 환호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19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출현하면서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모임인 ‘팬클럽’은 상설 조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출현한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수, 배우, 스포츠 스타 등의 팬클럽이 많이 생기고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 팬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2000년대까지 팬클럽들은 인터넷 팬카페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해 왔고, 스타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팬클럽의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나 영향력이 스타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가 되면서 팬클럽 간의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팬클럽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한때 사회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죠.

하지만 2010년대부터는 팬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스타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거의 동시에 인기를 얻으며 팬덤 역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큰 규모를 유지하게 되다 보니 해외 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팬카페는 점차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보다는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팬과 스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이 함께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특히, 2010년대 말부터는 위버스, 유니버스, 버블 등과 같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생기면서 팬 문화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팬이 스타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거나 스타가 적극적으로 일상을 공개하는 일도 늘어나면서, 스타와 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대중문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없는 10대 청소년으로 치부되었던 팬클럽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문화 산업의 한 기둥이 되었죠(박경우·조인

옥 2016:99). 팬클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넓어지게 되었고, 스타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팬클럽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던 팬클럽 초창기의 한국 팬 문화는 팬클럽별로 팬 상징 색깔이나 응원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고 방송국의 방청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타 자체에 대해 열광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팬클럽은 기부나 봉사로 스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스타의 이름이나 팬클럽의 이름으로 다양한 기관에 기부를 하거나 유기동물, 불우이웃 등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타로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다양한 연관 문화 상품들은 팬을 일차적인 소비자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은 한국의 문화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를 배출한 회사에서 ‘굿즈’라고 부르는 스타 관련 파생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의 CD에 사진집이나 포토카드를 넣어 팔거나, 응원 도구를 비롯하여 화장품, 먹거리 등 스타를 상징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사들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굿즈를 사고 모으며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포토카드를 받기 위해 앨범을 여러 장 사는 등 불필요한 과소비를 부추기거나 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굿즈를 팔아 회사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굿즈 판매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굿즈를 구매하는 것이 스타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면, 스타에게 직접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하나의 팬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공’입니다. 조공은 원래 ‘한 나라가 그 나라에 힘을 미치고 있는 더 강한 나라에 때를 맞춰 선물을 바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스타의 팬들 사이에서는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죠. 팬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목적으로 스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기부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스타의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스타 및 스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나 간식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팬 문화는 한류와 함께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공과 같은 팬 문화가 없던 나라에 새로운 팬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선물을 받는 대상이던 스타들이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조공의 반대라고 해서 ‘역조공’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연 관람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독특한 팬 문화로 ‘떼창’이 있습니다. 이 떼창은 외국에서 한국 팬들의 특징으로 꼽히는데, 떼창은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없어도 팬들이 자발적으로 부르며 대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문화에 따라서는 가수가 공연을 할 때 청중들이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떼창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꽤나 특이한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 가수들에게 다른 언어로 된 가사를 외워 큰 소리로 따라부르는 한국 관객들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많은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한 뒤에 한국 관객들의 떼창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2014년 4월에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 브루노 마스(Bruno Mars)는 공연 후 SNS를 통해 “지금까지 가장 큰 소리를 내 준 관중들이었다. 고마워요, 한국!”이라며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면 떼창을 하는 한국 관객들과 이를 기뻐하는 가수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떼창을 하며 핸드폰 플래시를 켜거나 종이비행기 등을 던지는 이벤트로 가수에게 큰 감동을 선물하기도 하죠. 물론, 외국에서도 공연 중간에 떼창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떼창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팬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6.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 및 표현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 스타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스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 관련 어휘들을 배우고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어 표현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스타들은 대부분 배우, 가수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보통 ‘연예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연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 무용, 마술, 쇼 등을 공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연예인’은 ‘연예’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분야, 즉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방송 등과 같은 분야를 ‘연예계’라고 부릅니다. 연예인은 그들을 훈련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통해 훈련을 받고 연예계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회사는 ‘소속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소속사를 통한 훈련을 마치고 연예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을 ‘데뷔’라고 합니다. ‘데뷔’는 ‘일정한 활동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로는 ‘데뷔하다’가 있습니다. ‘아이브는 2021년 12월에 데뷔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데뷔를 한 연예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음 작품이나 앨범을 준비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예전의 활동 무대에 다시 돌아오는 일을 ‘컴백’ 또는 ‘복귀’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컴백하다, 복귀하다’를 사용할 수 있죠. ‘블랙핑크가 다음 달에 컴백한다./세븐틴은 복귀가 언제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으면서 컴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음반과 같은 상품을 팔기 시작하는 것을 ‘발매’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발매하다’를 사용하는데요, ‘나는 방탄소년단의 음반 발매를 기다리고 있어. 내년에 새 음반을 발매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들은 새로운 영화를 공개하거나 새로운 드라마의 방송을 시작하면서 컴백하게 되는데 특히 인기가 있는 배우들은 작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맡아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연극, 영화, 소설 등의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하며, 이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는 배우를 ‘주연 배우’라고 합니다. 새 영화가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개봉’이라 하고, 어떤 작품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것은 ‘방영’이라고 하는데요, 배우들에게는 영화의 개봉이나 드라마의 방영이 곧 컴백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화나 드라마가 관객이나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완전히 끝나는 것을 종영이라 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2020년 5월에 개봉해 7월에 종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연 관람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 표현을 배워 봅시다.

소영 : 유진 씨, 6월 6일에 서울에서 BTS가 공연을 한대요. 시간 되면 같이 갈래요?

유진 : 아, 정말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공연이 며칠이라고요?

소영 : 6일이요. 공연장이 학교에서 멀지 않으니까 수업 끝나고 같이 가면 되겠어요. 7일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시험공부는 포기하고 가야겠네요.

소영: 시험공부를 포기하고 간다고요? BTS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요.

이 대화에서 소영 씨는 유진 씨에게 6월 6일에 서울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BTS를 좋아하는 유진 씨는 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연이 며칠이라고요?” 하고 묻습니다. 명사 뒤에 ‘이라고요/라고요?’를 붙여서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앞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듣지 못했거나 자신이 들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한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연이 며칠이라고요?”라고 묻은 것은 공연 날짜를 분명하게 듣지 못했던 유진 씨가 다시 한 번 공연 날짜를 물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공연 날짜를 잘 모르면서도 공연에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유진 씨는 BTS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죠?

유진 씨의 질문에 소영 씨는 “6일이요.”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서 공연장이 학교에서 멀지 않으니 수업이 끝나고 같이 가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면 되다/-으면 되다’가 사용되었죠? 이것은 ‘-면/으면’ 앞에서 말한 일이 괜찮다, 좋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자 유진 씨는 놀랍게도 “7일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시험공부는 포기하고 가야겠네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사 ‘가다’ 뒤에 사용된 ‘-아야겠-/어야겠-’은 동사로 표현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냅니다. 즉, ‘시험공부는 포기하고 가야겠네요.’라고 하면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공부를 포기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유진 씨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일은 쉬어야겠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 “너는 빨리 집에 가야겠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유진 씨가 대답을 하자 그 대답에 놀란 소영 씨가 좀 전의 유진 씨처럼 다시 한번 앞서 말한 내용을 물어보죠. “시험공부를 포기하고 간다고요?” 하고요. 앞에서는 명사 ‘며칠’ 뒤에 ‘이라고요’가 결합하였는데요, 지금처럼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다고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결합하여 확인하는 질문을 만듭니다. 이때 확인하려고 하는 앞선 대화가 질문이었으면 ‘-냐고요’,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었으면 ‘-라고요/으라고요’,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면 ‘-자고요’가 결합합니다. “내일 영화를 보냐고요?, 이제 집에 가라고요?, 내일 만나자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영 씨는 이렇게 유진 씨의 대답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BTS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요.”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나/-은가/-ㄴ가/-는가 보다’라는 표현은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뒤에서 쓰여서 앞의 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흐릿하게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BTS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요.”라는 말은 유진 씨의 대답을 통해 소영 씨가 추측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티켓을 살 때나 공연장에 갔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안내문을 통해 한국어 표현을 배워 봅시다. 한국에서 공연을 갈 일이 있다면 이런 안내문에 사용된 표현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먼저 화면에 있는 안내문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관람 안내>

- 1)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관객 입장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2)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티켓이 없으면 어떠한 사유로도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4)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지정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 5) 공연 중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수 없습니다. 촬영 적발 시 모든 자료는 삭제되며, 강제로 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서는 다섯 가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안내 사항은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연을 보는 사람들 즉 관객들의 입장은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을 예정이다/-ㄴㄹ 예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앞으로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관객 입장이 시작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미래에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관객 입장을 시작하기로 이미 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화에서도 종종 쓰이고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안내는 입장 완료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원활하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안내는 공연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연이 시작될 때 모든 관객들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방해 없이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를 위해 공연을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공연장 안에서 이동을 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 시간을 고려해 공연 시작 10분 전에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안내문은 티켓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티켓을 구입했어도 공연 날 공연 장소에 티켓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유’는 어떤 일의 까닭, 이유를 뜻합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도’라는 표현은 ‘어떤 이유에서 티켓이 없는 것인지와 상관없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내문은 좌석 변경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대부분의 공연들은 티켓을 살 때 티켓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앉을 자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좌석을 ‘지정 좌석’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어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공연장에서 확인한 자기 자리의 위치가 기대보다 좋지 않을 때 비어있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입장한 자리의 원래 주인이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 바로 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 때문에 이 안내문에서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지정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내는 공연 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공연들은 공연 중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결과물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 적발 시’에서 ‘적발’은 ‘숨겨져 있는 일을 드러냄’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는 명사나 어미 ‘-을/-ㄴㄹ’ 뒤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를 나타내죠. 즉 ‘촬영 적발 시’라고 하면 ‘촬영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화재 발생 시 가까운 문으로 나가세요.’, ‘눈이 올 시에는 집 앞의 눈을 치워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7. 핵심 요약 및 정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기로 한 한국의 대중 문화와 팬 문화, 그리고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표현을 모두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한국 대중문화를 배울 때 꼭 언급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류인데요, 한류는 ‘한국의 음악, 영화, 텔레비전, 패션, 음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대표되는 한국과 그 대중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가’ 또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97년대 후반에 중화권에서 시작된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와 댄스 음악이 한류를 주로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와 20대들을 중심으로 동영상 전문 사이트와 SNS를 통해 한류가 더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퍼졌죠. 2010년대부터는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도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한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보편적인 세계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OTT가 한류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으며, 게임과 만화, 웹툰, 문학 작품, 음식 등 다양한 영역의 문화 콘텐츠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중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아주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대중음악이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의 대중가요가 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한국의 대중가요를 케이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가요는 아이돌 음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은 듣기 쉬운 댄스 음악, 매력적인 후렴구의 반복, 잘 짜인 군무, 수준 높은 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케이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되었죠.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 대중가요의 한 종류인 ‘트로트’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영상 콘텐츠에는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2000년대부터는 천만 명의 한국 관객을 동원하는 한국 영화들이 나올 정도로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한국은 능동적으로 영화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생산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창조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죠. 최근에는 OTT,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국영화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에 소개되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류를 만들어 낸, 한류의 토대가 된 콘텐츠이자,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텔레비전 방송 초창기부터 ‘안방극장’이라 불리며 한국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쟁이 더욱 심해진 것도 한국 드라마를 더욱 발전시켰죠. 최근에는 OTT를 통해 전 세계에 드라마가 공개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신선한 소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 한국 드라마 제작 기술의 높은 수준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가 오락성과 창조성,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의 유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한 작품이나 스타의 팬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팬 문화를 만들고 대중문화의 인기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팬들은 인터넷 팬카페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해 왔고, 스타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우상이 되었습니

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는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팬과 스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2010년대 말부터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생기면서 스타와 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대중문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팬클럽은 기부나 봉사로 스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또한, 팬은 한국의 문화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를 배출한 회사에서 ‘굿즈’라고 부르는 스타 관련 파생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타에게 직접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하나의 팬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좋아하는 스타에게 선물을 주거나 스타의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스타 및 스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나 간식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연 관람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독특한 팬 문화로 ‘떼창’이 있습니다. 떼창은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떼창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팬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정리해 봅시다.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 ‘연예, 연예인, 연예계, 소속사, 데뷔, 데뷔하다, 컴백, 복귀, 컴백하다, 복귀하다, 발매, 발매하다, 주인공, 주연 배우, 개봉, 방영, 종영’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연 관람에 대한 대화와 공연 관람 안내문을 통해 배운 한국어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사 뒤에 오는 ‘이라고요/라고요?’는 말하는 사람이 앞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듣지 못했거나 자신이 들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한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 뒤에 결합할 때에는 ‘-다고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결합하여 확인하는 질문을 만듭니다. 이때 확인하려고 하는 앞선 대화가 질문이었으면 ‘-냐고요’,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었으면 ‘-라고요/으라고요’,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면 ‘-자고요’가 결합합니다. “내일 영화를 보냐고요?, 이제 집에 가라고요?, 내일 만나자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 뒤에 오는 ‘-아야겠-/어야겠-’은 해야 할 행동에 대한 화자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 “너는 빨리 집에 가야겠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은가/-는가 보다’는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뒤에서 쓰여 앞의 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흐릿하게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을 예정이다/-ㄴ 예정이다’는 이미 정해진 앞으로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명사나 어미 ‘-을/-ㄴ’ 뒤에서 쓰이는 ‘시’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를 나타내죠. ‘시’는 ‘화재 발생 시 가까운 문으로 나가세요.’, ‘눈이 올 시에는 집 앞의 눈을 치워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도 모두 마치게 되었네요.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한국문화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문화와 연결해서 배우기도 했죠. 우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열 번의 수업만으로 다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대표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지식들을 두루 다루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문화의 요소들을 알아보고 싶거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학

산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들을 활용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앞으로도 꼭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최근 케이팝 아이돌 그룹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하여, 외국 출신 멤버를 포함하거나 외국 음악가를 음반 제작에 참여시키고 있다. (O/X)

정답: O

2. 2004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영화제에 진출하였으나, 심사위원 대상을 받지는 못했다. (O/X)

정답: X

3. <오징어게임>은 2021년 한 OTT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어 전 세계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였다. (O/X)

정답: O

4. 최근에는 스타를 배출한 회사에서 ‘굿즈’라고 부르는 스타 관련 파생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2010년대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큰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 ②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대표적인 아이돌 음악이다.
- ③ 1980년대 이후 할리우드 영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는 경쟁력을 잃고 점차 사라져 오늘날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 ④ 19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출현하면서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모임인 ‘팬클럽’은 상설 조직으로 변화되었다.

정답: ④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현재 한국의 대중가요는 트로트가 중심이 되고 있다.
- ② 한국 영화가 시작된 때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말에서 1920년대 초이고,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 ③ OTT의 발달로 영화를 즐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한국 영화는 OTT,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에 소개되고 인기를 얻고 있다.
- ④ 팬클럽들 사이의 갈등은 한때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 팬 활동은 문화 산업의 한 기둥이자 하나의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정답: ①

3.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한류 - 한국의 음악, 영화, 텔레비전, 패션, 음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대표되는 한국과 그 대중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가 또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
- ② 팬 - 영화, 드라마, 음악이나 배우, 가수 등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
- ③ 조공 - 원래 ‘한 나라가 그 나라에 힘을 미치고 있는 더 강한 나라에 때를 맞춰 선물을 바치는 일’을 의미했는데, 최근에는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 ④ 데뷔 - 일정 기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음 작품이나 앨범을 준비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일

정답: ④

단답형 (8분)

다음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단어로 적으세요.

- 1.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문화를 가리키는 말은?

정답: 대중문화

- 2.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은?

정답: 떼창

- 3.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 무용, 마술, 쇼 등을 공연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정답: 연예인

- 4. 영화나 드라마가 관객이나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완전히 끝나는 것은?

정답: 종영

나. 토의 (30분)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부분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을지 이야기해봅시다.

다. 과제 (60분)

한국에서 여러 연예인의 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 참고자료

- 강내리(2022. 11. 22.), 「'연모', 韓 드라마 최초 국제 에미상 수상...이미경 CJ 부회장 공로상(종합)」, 『YTN』, <https://star.ytn.co.kr/_sn/0117_20221122135455926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2019), 「한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931.php>.
- 김영은(2022. 9. 19.), 「'최초 또 최초'... '오징어 게임'이 쓴 5가지 기록들」, 『한경BUSINESS』,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9140586b>>.
- 노지민(2021. 12. 7.), 「'픽셀시트' 문제 심각 진퇴양난 지상파 드라마 할로는」,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43>>.
- 「대중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802>>.
- 「대중음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806>>.
- 박경우·조인옥(2016), 『한국문화교실』, 보고서.
- 「빌보드/기록/한국」,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9%8C%EB%B3%B4%EB%93%9C%20EC%B0%A8%ED%8A%B8/%EA%B8%B0%EB%A1%9D/%ED%95%9C%EA%B5%AD#s-2>>.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서울대 한국어 5B(Student's Book)』,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4B(Student's Book)』,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6), 『I Love Korean 6(Student's Book)』,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혜연(2021. 10. 5.), 「옥스포드 영어 사전 힙쓴 한류... '케이뷰티'부터 '먹방'까지 등재」,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473>>.
- 윤수정(2023. 1. 16.), 「K팝 또 훨훨 날았다... 음반 수출액 3000억 육박 '사상 최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3/01/16/VI2LZPCI4FEDZMEUZU734WMLA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이선이·이명순·백지윤(2019), 『오늘의 한국』(개정판), 한국문화사.
- 이영미, 「트로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860>>.
- 장소원 외(2018), 『여행한국어(中文)』, 세종학당재단.
-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 점유율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4>.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2%9C%EB%A7%8C%20EA%B4%80%EA%B0%9D%20EB%8F%8C%ED%8C%8C%20EC%98%81%ED%99%94#s-4.1>>.
- 최은경(2014), 「드라마」, 『사실적 텔레비전과 방송 편성 문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5501&cid=42192&categoryId=51147>>.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2a), 『2021 한류백서』,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244&page=1&find=&search=&h=>>.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2b), 『해외 한류 실태 조사』,

<
https://www.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235&page=1&find=&search=>.
 「한국 영화」, 『영화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0532&cid=42617&categoryId=42617>>.
 한국콘텐츠진흥원(2022. 10. 20.), 「할리우드에서 본 한국 방송콘텐츠의 흐름과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로그』,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28980604>>.
 『Flixpatrol』, <<https://flixpatrol.com/>>.
 한미화·나은경(2022), 「팬덤의 소셜 미디어 이용 양태에 따른 아이돌 세대별 팬덤 문화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한국콘텐츠학회, 605-616.